No.1 시니어 HMO 네트워크
내일의 나를 위한 선한 선택
센터메디컬그룹

기독일보

심성통운 SAMSUNG SHIPPING
귀국이사·타주이사·시내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T: (877)580-2424

Tel. 213-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FRIDAY, January 26 2024 Vol. 900 A

다음 세대까지 침투하는 동성애…한인 교계 다시 힘 모을 때

캘리 다음세대 보호 위한 청원서 긴급 서명 운동 발의



지난 금요일 1월 19일 오전 10시 30분에 "캘리 다음세대 보호를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 설명회 및 기자 회견이 은혜한인교회 새가족부실에서 열렸다.

당신은 겁을 먹었다. 당신은 우리가 당신의 자녀를 타락시킬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아젠다를 확인하지 않으면 당신이 맞다. 우리는 당신의 아이들을 개조(convert)할 것이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고 미묘하게 일어나서 당신은 그것을 눈치채지도 못할 것이다. (중략) 우리는 여러분 자녀 한 명씩 그리고 모두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바꿀 것이다. 벗어날 길은 없다. 왜냐면 라폴(Rupaul, 미국의 드래그 퀸) 같은 할머니도, 세상이 점차 친절해지고, Z세대는 더 동성애자가 되고 있다. 사랑을 배우고 유행을 배우라. 운명을 대면하라! … 우리가 당신들의 자녀에게 가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게이 합창단에서 만든 노래 가사이다.

지난 금요일 1월 19일 오전 10시 30분 은혜한인교회 새가족환영실에서 윤우경 권사(OC기독교전도회연합회)의 진행과 한기홍 목사의 환영사로 시작된 "캘리 다음세대 보호를 위한 청원서 서명 운동" 설명회 및 기자회견에서 세라 김 사모(TVNEXT: 다음 세대를 위한 가치관 정립 및 보호 대표)가 샌프란시스코 게이 합창단에서 제작한 영상을 틀자, 몇 몇 목사님들에게서 한숨과 탄식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캘리 다음세대 보호를 위한 청원서"(Protect Kids of California Act of 2024) 서명 운동 설명회 및 기자회견 자리에 각 교회 및 기독교 교계 대표들이 모인 자리에 기시감이 들었다. 13년 전, 세라 김 사모는 가주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성애 역사를 포함하도록 하는 'SB48 법안'를 막기 위해 이와 같은 서명 운동을 벌인 적이 있다.

세라 김 사모는 그 서명 운동이 무산된 결과가 오늘날 공립학교에 일어나고 있는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13년전, 2010년도 저희 TVNEXT에서 SB48 때문에 이와 같은 서명 운동을 한 적이 있다. 역사상 최초로 캘리포니아 모든 공립학교의 교과서를 바꿨다. 바꾼 이유는 '동성애는 정상이다'라는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이다.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이라는 명목 아래 성정체성 혁명이 일어났는 데 이는 반기독교적 혁명이었다. 그렇게 흘러간 세월 속에 지금은 어떨까? 공립학교 도서관에 누구나 펼쳐 볼 수 있는 책 가운데 동성애가 정상이라고 묘사한 책이 들어가 있다. 악법들이 통과된 이후의 결과이다."

이 서명운동은 1. 부모 권리 보호, 2. 여학생의 프라이버시 및 공정성 보호. 3. 미성년자의 화학적·외과적 성전환 금지, 4. 부모의 알 권리 회복, 5. 자녀를 보호할 권리 회복을 위해 위해 필요하다.

세라 김 사모에 따르면, 이 서명 운동이 성공하면 1. 출생 성별에 따라 공립/사립학교와 대학 화장실, 샤워실, 락커룸 사용, 2. 여학생 스포츠에 성전환 학생 참가 금지 3. 학교에서 학생을 트렌스젠더로 만드는 '젠더 명칭' '성별 전환' 시도 전에 반드시 학부모에게 알릴 것을 의무화 4. 학교에서 18세 미만 학생 성전환(trans) 시술 금지, 5. 납세자 세금 보호, 18세 미만 학생들들의 성전환 의료서비스에 정부 자금 사용 금지 같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주디 한 기자

➔ 2면에서 계속

조엘 오스틴 "교회 대출금 1억 달러, 20년간 다 갚아" … 눈물 간증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레이크우드교회(Lakewood Church)를 이끌고 있는 조엘 오스틴(Joel Osteen) 목사가 교회가 대출받은 1억 달러(약 1,338억 원)를 다 갚았다고 밝혔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는 "조엘 오스틴 목사가 지난 14일 주일예배에서 '작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우리가 공식적으로 대출금 1억 달러를 20년에 걸쳐 다 갚았다'고 말했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그는 과거 컴팩센터로 알려졌던 스포츠 경기장을 어떻게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주 약 45,000명의 성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대한 교회로 변화시켰는지 회상하며 여러 번 눈시울을 붉힌 것으로 알려졌다.

오스틴 목사는 "교회가 처음 60년 된 경기장을 임대하기 위해 1,150만 달러(약 153억 9천만 원)를 지불했지만, 교회로 사용하기 위해 경기장을 개조하는 데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던 1억 달러를 지불할 돈이 없었다. 당시 난 36살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모든 계절에 은혜를 주시는 분임을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아버지 존 오스틴 목사가 수 년간 거래해 왔던 은행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그들은 너무 부정적이었고, 우리가 돈을 모을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은행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천이심을 생각했다. 그리고 뱅크오브아메리카(BoA)로 갔다. 그들은 우리가 누군지 모른 채 사무실에 나타났다. 그들은 우리의 재정을 본 적이 없었고, 우리는 2,500만 달러(약 334억 1천만 원)에 달하는 수표를 갖고 있었다"고 했다.


1월 14일 주일예배에서 교회 대출금 전액 상환 소식을 전하며 눈물을 훔치고 있는 조엘 오스틴 목사 ⓒ레이크우드교회 유튜브 영상 캡쳐

이어 "그들에게 '우리가 2,500만 달러를 빚지게 됐는데, 1억 달러를 더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고, BoA는 우리에게 1억 달러를 빌려줬다"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너무 신실하셔서, 대출금을 갚는 20년 동안 우리가 예배를 줄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아울러 성도들의 헌신을 언급하며 "우리는 미디어와 인도주의적 지원에 수억 달러를 지출했으며, 전 세계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 또 자본 설비에 대한 부채가 적은 것을 제외하고, 교회가 근본적으로 빚이 없다. 임대 7년 만인 2010년에 건물을 7백만 달러(약 93억 5,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전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레이크우드교회에 행하신 일을 여러분의 삶에도 행하실 것이다. 2024년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방해했던 것들로부터 당신을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될 것으로 믿는다. 빚으로부터 벗어나라. 중독, 관계, 잘못된 사고방식에서 당신을 해방하라. 올해가 해방의 해가 될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강혜진 기자

당일송금 당일지급
송금·환전
한국 돈이나 달러가 필요하신 분?
입금 즉시 캐쉬 OUT/신속 정확
소액~고액 환영/매월하시는 분 우대
타운내 최고로 저렴한 택배(한국택배)
$ 미국 ↔ 한국 ₩
7Day 24hours (213)400-6363


www.marhlaw.com
어려운 시기에 힘드신 분들의 힘있는 변호사
신실한 벗이 되길 희망합니다!
▪상법/부동산법 ▪뱅크럽시 YouTube "마동환 법률상식"
마변호사그룹에서 여러 분야의 법적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자유로워지는 평안을 체험하십시오.
마동환 변호사그룹 MARH & ASSOCIATES Attorneys at Law
대면·전화상담 예약 213.820.3704

태양광, 솔라!!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 80%
✓연방ITC: 30% 이상
✓솔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2024년 설치 시)
✓원금 회수기간: 3년~6년
✓전기로 절감: 최대 90%
BTS SOLAR DESIGN 213.500.8000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 합니다.
신앙과 학문이 하나로 어우러져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갑니다!
신앙의 빛 ! 학문의 힘!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 Tel : 562-926-1023 l www.ptsa.edu

“효과적 강단교류 및 목회자 훈련 통해 LA 부흥 꿈꿔”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 고귀남 대표회장 취임 감사예배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LA지부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행1:8)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4시에 멜리데교회에서 성대히 열렸다. ⓒ기독일보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이하 한기부) LA지부 대표회장 고귀남 목사 취임 감사예배가 ‘성령의 불길을 세계로!’(행1:8)라는 주제로 21일 오후 4시에 멜리데교회에서 성대히 열렸다.

‘축복받은 부흥사로’(창1:1-3)란 제목으로 설교를 한 김정훈 목사(한기부 45대 회장)는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지만, 불신앙도 똑같이 교회와서 안좋은 소리를 들음에서 불신의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라면서 “주께서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다. 말씀을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나의 사명이자 우리의 사명이다”고 했다.

이어 그는 “신앙의 길에서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가지 못하는 길이다.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지시한 땅으로 발을 내디뎠다. 부흥의 비결은 목회자와 하나가 되는 것이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연합하면 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라면서 “두 번째는 우여곡절이 있을 때 진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신앙의 길에서 역경이 올 때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의 능력을 받아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이다.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 하고, 능력을 받아야 한다. 그러면 이삭과 같이 가정이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부 취임예식에서 고귀남 목사의 취임사, 박헌성 목사, 정여균 목사, 박승주 목사의 축사가 있었다. 고귀남 목사는 한기부 LA지부의 세 가지 목표로 강단교류, 목회자 훈련, 미자립교회 지원을 꼽았다. 그는 “부흥회가 많이 사라진 지금, 최소한 강단 교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고귀남 목사는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잘하는, 18번, 그 목사님은 툭 쳐도 그 말이 나오는 66권 중에 최고의 설교가 한 편은 있다. 10편, 천 편을 갖고 계신 목사님도 계시지만, 적어도 한 편은 있다. 강단 교류를 하면 그 목사님의 최고의 메시지를 성도들이 듣게 된다. 그래서 강단 교류는 매우 필요하다. 강단 교류의 전 세계적 발판을 마련하는 일을 힘 닿는 데까지 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 그는 “부흥회를 하러 간다면 10번의 메시지를 전할 10개의 메시지가 있어야 한다. 제가 매달 첫째 주 월요일에 협회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부흥회에 달란트가 있는 분들을 눈여겨봐서 훈련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더 발전시키고 더 빛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45년 담임목회하고 수백 개 교회에서 부흥회한 경험을 토대로 전수해 주고 싶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고 목사는 “세 번째는 미자립교회를 돕는 것이다. 45년간 목회하면서 지난해 재정을 다음 해로 이월시키지 않았다. 그해 현금은 그해에 다 쓴다. 1월부터 절약해서 살아오니 12월 중순, 말이 되면 교회 재정이 남는다. 멜리데 교회는 그 남은 돈 몇만 불을 전부 어려운 교회에 나눠주는 일을 해왔다”라면서 “미자립 교회를 왜 도와야 하냐면, 제가 일을 다 할 수 없다. 미자립 교회 목회자에게 재정을 도와줘서 그분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다면 이게 교회와 목사가 해야 할 일이다. 제가 도울 수 있는 미자립교회를 도와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역하게 한다면 제가 거기서 목회하는 것과 같다. LA지부가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도 존경받고 인정받는 단체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었다.

이날 박헌성 목사(열린문교회), 정여균 목사(한기부 53대 회장), 박승주 목사(한기부 55대 회장)가 각각 축사를 끝으로 행사를 마쳤다.

토마스 맹 기자

➔ 1면 기사 〈제목〉에 이어서

55만명 CA 유권자 서명 받아야 한인 목표: 5만 5천~7만 서명

이 청원서가 11월 주민발의안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약 55만 명의 캘리포니아 유권자 서명이 필요하다.

세라 김 사모의 경험에 의하면, 캘리 정부가 무효화하는 서명들이 많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70만 개의 서명이 필요하다. 한인 커뮤니티의 목표는 55만명의 10%인 5만 5천~7만개이다. 4월 13일까지 TVNEXT로 청원서를 보내야 한다.

청원서 서명을 위한 파일은 TVNEXT.ORG 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으며, 이 파일의 4,5,6,7 페이지를 프린트한 후 마지막 페이지(7)에 서명을 받으면 된다.

설명회에 이어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강순영 목사(JAMA 대표), 샘신 목사(남교협 수석부회장), 이원석 목사(OC목사회 회장), 신용 회장(OC기독교전도회연합회 회장), 박세헌 목사(예수로교회), 양경선 목사(샘물교회), 유수연 전도사(ABC교육구 위원회), 김수연 대표(Refounders United 대표)가 도전의 말씀을 나눴다.

신승훈 목사는 2008년도 주민발의안 서명을 위해 미국교회의 지지를 받아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숨겨 놓은 이들- 가톨릭과 남미 계통 교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경험을 전했다.

동성애 지지 목사와 토론, ‘지금 때가 어떤 때입니까, 이것은 문화입니다’

“많은 젊은 세대가 성경은 옛날 얘기 고리타분한 얘기로 여기게 된다. 악법이 끼어들어 와서 포장을 하고 있다. 목회자가 교인들에게 핵심을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서명할 것이다. 깡패가 5명 있으면, 그 깡패 5명이 일반인 100명을 이긴는 말이 있다. 나머지는 가만히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말도 안되는 법이다. 2008년도에 동성애를 지지하는 목사와 토론을 했다. 그 한인 목회자분이 그런다. ‘지금 때가 어떤 때인데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은 문화입니다.’”

강순영 목사는 “다민족 네트웍을 이용해서 반드시 이기도록 전략을 가지고 싸웠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샘신 목사는 “목사님들이 이것을 나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길 바란다. 목소리가 아닌 믿음으로 협력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승룡 목사는 ‘동성애 반대는 편협한 것’이라는 교육을 받는 자녀들,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는 자녀들의 사례를 전하며, “우리 생각 보다 훨씬 가까이 있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일해야 한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교회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관한 법 세미나를 3월 18일에 하게 된다.”고 전했다.

김수연 대표(Refounders United) 는, “현실 체크가 필요하다. 1세 목사님들에게 상식적으로 이것이 말이 안되는데 40대만 가봐도 뭐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인다. 20~30대는 이미 미국에서 태어나서 그 교육을 다 받았다. 좋다는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교수들과 교직원들 대다수가 무신론자이고 동성애 지지자이다. 미국 주류 사회에서는 이미 동성애가 받아들여질 뿐 아니라 이미 동성애자는 주류 세력이 되었고 우리가 마이너 세력이 되었다. 다 방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성경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고, 교회 안의 아이들에게 선포되어서 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에 대한 분별력을 기를 수 있게 해야 한다. 대학에 보내면 아이가 완전히 변해서 온다. 이미 동성애에 영향 받아서 돌아온다. 이것으로 인해 혼란에 빠지고 우울증을 겪으며 약과 술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죄책감에 빠져 교회와 멀어진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강태광 목사는 “시민불복종 운동. 이런 운동이 성공하기 위한 조건이 있다. 먼저 많은 인종이 동참해야 한다. 평신도 들이 일어나야 하고 작은 그룹을 초청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발의안 전략적 홍보가 관건

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이 대안

한기홍 목사는 “발의안에 대해 전략적으로 알려야 한다. 이 법안이 무엇인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교회 주보에 광고도 하고 부스도 만들고 서명 운동 담당자를 두어서 서명을 받고, 먼저 교회 자체적으로 움직여야 한다.”

한 목사는 또한, 이미 “2세들이나 미국 교회는 부정적이다. 물이 들었다. 대세가 되었지만, 교계가 울타리 역할을 하며 갈 수 밖에 없다. 아이들을 어려서 부터 이런 성교육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바른 성교육을 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세라 김 사모는, “한인 아이들 사례가 2010년부터 매년 늘어났다”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그들(LGBTQ)은 목숨을 내놓았다. 저희쪽에서는 목숨을 내놓고 뛰는 자들은 소수이다”라며, 한인 교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남가주교협 회장단 취임예배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붙들고 충성스럽게 섬길 것"

제54대 회장단 취임예배 및 신년하례 축복 기도회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가 제 54대 회장단 취임 감사예배 및 신년하례 축복기도회를 21일 오후 4시에 영생장로교회에서 성대히 드렸다. ⓒ기독일보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최영봉 목사)가 제54대 회장단 취임 감사예배 및 신년하례 축복기도회를 21일 오후 4시에 영생장로교회(김재연 목사)에서 성대히 드렸다.

최영봉 목사는 취임사에서 "남가주 여러 교회와 사역 위에 영혼이 잘되고 복이 함께 하기를 기도한다.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연임하게 되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려고 한다"면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막으실 일은 막으시고 갈 길은 가게 하시리라 믿는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붙들린바 되어서 충성스럽게 섬기겠다"고 했다.

축사를 한 송정명 목사(미주성시화 운동 공동대표)는 "올해는 선거가 많은 해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일 것이다"면서 "교협 임원들과 회원들이 기도에 불을 붙여서 선한 것으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섬겨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영완 LA 총영사(황성원 영사 대독)는 축사에서 "교협이 한인 동포의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도록 많은 기여를 해주셨다. 앞으로도 교계에 많은 도움과 동포 사회의 화해를 위해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어 축사를 한 제임스 안 회장(LA한인회 회장)은 "교협 리더십들을 보면 이미 노하우가 검증되신 분들이다. 여러분들의 다이내믹한 활동을 기대하며 한인 사회를 향한 뜨거운 기도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학량 목사(증경회장)는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쓴다. 최영봉 목사님은 훈련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교협에게 맡겨준 새로운 임무를 감당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기도한다"고 축사했다.

이어 민종기 목사(증경회장)는 "지금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 위기의 시대이다. 이민사회에 기독교를 대적하는, 동성애 등의 문제를 보면 기독교로 풀지 않으면 풀려지지 않는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교협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 것에 큰 찬사를 드린다"고 축사했다. 더불어 정서영 목사(한기총 대표회장), 박태규 목사(뉴욕교협회장), 박재만 목사(OC교협회장) 등이 영상으로 축사를 했다.

1부 예배에서는 샘신 목사(수석부회장)가 사회를, 국윤권 목사(충현선교교회)가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사사기 2:6-10)이란 제목으로 설교를 했다.

특별히 참석자들은 한국과 미국 번영과 통일과 평화와 축복을 위하여, 2024년 복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과 1400개 교회 부흥과 교협 부흥 발전을 위해 합심해 기도했다.

3부 취임식은 이성우 목사(부회장)의 사회로 진행된 가운데 신임 회장단 소개 및 임명장 수여가 있었으며, 모든 순서는 정해진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마무리 됐다.

토마스 맹 기자

한인필그림교회 창립 46주년, 김상현 담임 목사 취임


한인 필그림교회 김상현 담임 목사(좌) 이기용 원로목사(우) ⓒ기독일보

김상현 목사, "말씀과 기도로 성도를 섬기는 것이 목회 비전"
이기영 목사, "생명 다할 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

한인필그림교회가 창립 46주년 기념을 맞아 지난 21일 주일 담임목사 이취임 감사예배를 드렸다.

미 남침례회 한인총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예배는 축하객과 필그림교회 성도들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이날 예배에서 김상현 목사가 제 10대 담임으로 취임하고, 이기영 목사는 2대 원로목사로 추대됐다.

이날 이임한 이기영 목사는 "주님께서 이 땅에 섬기러 오셨 듯 생명 다할 때까지 섬기는 삶을 살고 싶다"면서 "김상현 담임 목사와 주의 몸 된 교회를 더 잘 섬기겠다"고 말했다.

담임으로 취임한 김상현 목사는 "필그림 교회의 선언문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귀한 성도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잘 섬기는 것이 나의 목회 비전이다"라며 "주님께서 맡기신 성도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취임 인사를 전했다.

설교를 전한 박성근 목사(남가주 새누리교회 담임)는 "목회의 길은 쉽지 않다. 제일 힘든 직업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가장 보람된 일은 목회다. 그는 "예수님은 3년간 목회를 통해 12명의 제자를 남기셨고, 그 남은 제자가 세상을 바꾸었다. 힘든 길이지만 목회는 가장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사역이다"며 "지난 15년간 교회를 섬기신 이기영 목사님께 감사하고 좋은 후임이 세워진 것은 큰 축복이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사도 바울의 고린도교회 목회가 우여곡절과 많은 아픔도 있었지만 이 편지를 마무리하며 쓴 결론은 모든 성도가 축복 가운데 행복해지는 것이다"라며 "늘 진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열정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연결되어있으면 영광스런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는 이기영 목사의 인도로 서종학 목사(미남침례회 한인LA지방회장,파사데나 주님의교회 담임)의 기도 후에 고린도후서 13:5-13절을 본문으로 "행복한 결론"이란 제목으로 박성근 목사가 설교 후 이병동 장로가 이기영 원로목사 추대와 김상현 담임목사 취임을 공포했다.

이어 한충호 목사(미남침례회 증경한인총회장,임마누엘침례교회 담임)가 권면사를, 김송식 목사(미남침례회 교회개척 자문위원)가 축사를 전했다. 모든 예배는 길영환 목사(미남침례회 증경총회장)의 축도로 마쳤다.

조셉 리 기자

▶한인 시니어를 위한 찾아가는 건강세미나

그 동안 시니어들의 건강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며 큰 인기를 얻었던 센터메디컬그룹의 '건강 세미나'가 다가오는 1월 30일에 개최된다.

2024년의 첫 건강세미나로 미국 가정의학과 보드 전문의인 김학준 주치의가 '100세시대, 당신의 노후는 준비 되셨습니까?'라는 주제로 건강하고 활동적인 노후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강연한다.

일시: 1월 30일 화요일 오후 1시~ 3시
장소: South Park Manor Co-op Apt
문의: (714)980-3532



건강한 사역자와 사역지를 찾아서 2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김우준목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남가주 교계에서 주목을 받는다. 우선 조은교회는 젊고 건강한 교회다. 젊은 성도들이 힘차게 사역하고 성장하는 교회로 소문났다. 둘째로 조은교회는 선교적 열정으로 선교적인 교회(Missional church)로 소문났다. 셋째 조은교회는 목회자 세대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 교회를 개척하고 큰 성장을 경험한 고(故)김바울 목사를 이어 1.5세인 김우준 목사가 안정적으로 교회를 이끌어 가고 있다.

넷째 김우준 목사가 1.5세로 성장하며 잘 준비된 목회자라는 평이다. 김목사는 한국어, 영어 그리고 스페인어 구사에 어려움이 없다. 이런 언어적 달란트로 다민족 기도대회를 포함한 여러 다민족 사역에서 긴요하게 쓰임 받는다. 아울러 김우준 목사는 대학 시절 영적 방황을 극복하면서 신앙과 신학을 논리적으로 정리할 기회를 가졌다. 이런 독특한 경험은 김 목사를 이 시대에 방황하는 젊은이들의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목회자로 세웠다.

김우준 목사는 2023년 가을이 매우 힘들었다. 10월 17일에 어머니 안희자 권사가 소천했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어머니는 소중하지만 김우준 목사에게 어머니는 특별하다. 어머니는 김 목사 기도의 후원자요 사역의 멘토요, 선교적 삶을 보여 준 안내자요 코람데오의 신앙을 실천한 모범신앙인이었다.

안희자 권사는 어린 시절 건강이 좋지 않아 "살려만 주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라고 기도를 자주 드렸다. 살기 위해 드린 기도였고 절규였다. 이 절규가 서원이 되었고, 후일에 과테말라 이민은 아내의 서원기도를 이해한 김영민 장로의 동의로 이뤄진 선교이민이었다. 김 목사의 아버지 김영민 장로는 결혼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고, 후일에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했다.


토렌스 조은교회(김우준 목사)

김영민 장로와 안희자 권사 가정이 과테말라 최초 한인 이민 가정이었고 소년 김우준이 과테말라 첫 한인 학생이었다. 온전한 가정 이민은 흔하지 않던 시절이었다. 그들은 이민 가방을 풀면서 가정예배를 드렸다.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모여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자 목사님을 모셨다. 목사님 부임 전에 과테말라 한인교회는 선교했다. 매주 시내 공원에서 현지인 선교를 했다.

소년 김우준은 자연스럽게 성경을 배우고 신앙을 흡수했다. 우연히 참석한 학생 수련회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소명도 받았다. 신학교 진학을 선언하고 열심히 주를 섬겼다. 오래전 아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고 조용히 기도하시던 어머니는 아들의 변화에 내심 환호하며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그러나 대학진학을 하며 청년 김우준은 방황을 했다. 초중고를 과테말라에서 졸업하고 미국 대학(UC Berkeley)에 진학한 그는 대학의 자유, 친구의 죽음 그리고 교수들의 논리 공격("네가 믿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에 청년 김우준은 흔들렸다. 성경을 회의하고 교회 출석도 멈췄다. 많은 질문이 생겼다.

청년 김우준은 당시 진화론에 몰입했다. 믿었던 모든 진리를 의심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청년 김우준이 신앙과 성경을 논리로 검증하는 시간이었다. 성경의 역사성, 일관성, 예언의 성취, 예수님 부활 등을 점검하며 내실을 다졌다. 돌아보면 그 지난(至難)한 방황의 세월이 그를 단단한 사역자로 세웠다.

검증을 거친 김우준 청년은 주님께 다시 돌아왔다. 이젠 확신이 필요했다. "하나님! 확신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했다. 청년 김우준을 잘 아는 대학 선배들이 초청한 대학부 수련회에서 확신을 회복했다. 주님을 다시 만났다. 영적 방황은 끝났다. 신앙생활을 회복했다. 대학원(스탠퍼드)을 마치고 직장생활을 하다 소명을 재확인하고 달라스에 사우스웨스턴 침례 신학대학원에 진학했다.

신학교 생활은 하나님 은혜로 행복했다. 신학교를 마치고 워싱턴 지구촌교회를 섬겼다. 그러던 중 토렌스 조은교회(김바울 목사) 후임 목회자로 내정되었다. 차분히 목회를 준비하던 김우준 목사는 김바울 목사 소천 소식에 급히 부임했다. 고 김바울 목사님은 엄청난 거인(巨人)이었다. 연륜, 헌신 그리고 권위 모든 부분에서 따라갈 수 없는 크신 분이셨다. 김우준 목사는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은혜로 오늘까지 왔다.

김우준 목사의 중요한 비전은 '모두가 제자되어 모두를 제자 삼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여기서 제자는 제자훈련 프로그램 수료자가 아니다. 구체적인 삶에서 예수님 제자로 살아가는 능력을 갖춘 성숙한 성도다. 실제 생활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해내는 제자가 세워지기를 사모하며 사역한다.

김우준 목사의 목회에 중요한 기준이 복음전파다. 그래서 김목사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한다. 특별한 구호나 표어가 없어도 조은교회는 선교적 교회다. 사실 선교적 교회는 교회 본질의 회복이다.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이고, 초대 교회가 보여준 교회의 존재의미는 선교였다.

선교적 교회로서 조은교회는 성도는 선교사라는 의식을 공유한다. 김우준 목사는 모든 성도가 선교사라고 믿는다. 그래서 김목사는 모든 성도에게 선교현장에 동참하기를 부탁한다. 김목사는 '조은교회 성도 중에서 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성도가 아무도 없기를 간절히 바란다.

선교적 교회인 조은교회는 지역전도에 힘쓴다. 매달 많은 성도가 토렌스 지역전도에 나선다. 소위 총동원 전도다. 조은교회 총동원 전도는 한인들을 위한 전도가 아니다. 토렌스 지역 타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눈다. 총동원 전도를 할 때마다 김우준 목사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함께 매주 과테말라 센트럴 파크에서 전도했던 추억과 열정을 되새긴다.

2017년 1월부터 조은교회를 섬긴 김 목사는 감사가 넘친다. 그의 감사는 대략 세 가지다. 첫째, "하나님께 묻고 결정하는 원칙"을 고수 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어려운 사역에서 주께 묻고 응답받으며 결정했다는 건 큰 축복이라 믿는다. 둘째는 교회 역량을 총동원해 복음증거에 주력한 것이다. 교회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이 감사하다. 셋째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준 것이다. 부족함이 많은 목회자를 신뢰하고 따라준 성도들이 늘 감사하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한 김목사가 섬기는 조은교회에도 기쁨과 감사가 넘친다.

강태광 편집위원


함께 예배 드리는 토렌스 조은교회 성도들.

▣ 토렌스 조은교회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문의 310-370-5500



아버지 밥상교회(홈리스미션)
홈리스 영혼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력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무디 고 목사 T.(213)364-7289
2551 W. Olympic Blvd. LA, CA 90006
9030 Duncan Rd. Victorville CA 92392

기독일보 Pay to the Order of Christianity Daily
편집고문 : 장재효, 박기호, 김중언, 고승희, 민종기, 정우성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애틀랜타, 시애틀, 텍사스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소 : 3055 Wilshire Blvd. #480, Los Angeles, CA 90010


레몬법 전문
Proverbs 31:8 Law
잠언 로펌
Proverbs318Law.com

▸ 한인사회 한인들의 권리를 최선을 다해 변호해 드립니다.
▸ 워런티(Warranty) 보증기간이 남은 새차, 리스차, 중고차
▸ 반복적인 문제로 새차교환 현금보상해 드립니다.
▸ 자동차 딜러샵 최고 1~2회 이상 수리한 사실
변호사 비용은 100% 무료!
(자동차 생산업체에서 변호사비용 전액 부담)
새차 리스차 중고차
팩토리(Factory) 워런티를 갖고있는 차
브레이크, 변속기, 엔진, 에어컨, 깨진 유리창, 파손된 후방 카메라, 오일 누수, 냄새, 소리, 타이어, 대시보드(Dashboard) 화면 등
1회 이상 수리한 사실이 있으시면 지금 바로 전화주세요!
David Lee 변호사
6940 Beach Blvd. Suite D-606, Buena Park, CA 90621
무료 상담
(213)210-3651
Dlee@proverbs318law.com



가주 한인들을 위한 **차세대 메디컬 서비스**의 **시작**

시니어만을 **전문**으로 운영되는
의료 서비스는 **센터메디컬그룹**이 **유일**합니다

1 시니어 전문 의료 네트워크

2,000명이 넘는 우수한 실력의
의사와 다양한 의료진!

2 남가주 최다 입원 가능 대형 병원

80여 곳이 넘는 병원들에서
편하게 수술 및 입원 치료!

3 초고속 당일 병원 허가서

미국에서 가장 빠른 리퍼럴
시스템과 승인절차!

4 무료 병원 라이드 서비스

한국인 기사 & 그룹 자체 차량으로
무료 셔틀 서비스 제공!

문의 714-980-3532 cipa@popmso.com

센터메디컬그룹

QR코드를 찍어주세요!
www.centeripa.com

전교인 성경읽기, 모이기 힘쓰며 주안에 굳게 서는 교회

위 브릿지 교회 간증 '남가주주안에교회' 김상현 목사



남가주 주안에교회(김상현 목사) 단체 사진. 2023년 1월 1일 개척한 이 교회는 올해 창립 1주년을 맞았다. 현재 플러튼 아리랑 마켓 인근에 미국교회의 아름다운 채플에서 매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다.

본지에서 지원하는 위 브릿지 사역에 참여하고 있는 남가주주안에교회 김상현 목사가 개척 1년을 맞아 사역 간증문을 보내왔다. 위 브릿지 사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작은 교회들을 돕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됐으며,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협력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교회들이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다리가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간증문에서 김상현 목사는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 속에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지체의 부분을 담당하고 주의 몸을 함께 세우는 남가주주안에교회가 될 것"이라며 "인종 구분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실하기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간증문 전문.

감사하게도 동양선교교회에서 김지훈 담임 목사님의 축하영상과 축하 화환을 보내주셔서 형제 교회를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전교인이(15명)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셨고 당일 날 새로운 성도님 한 분이 전도되어 오셨습니다. 예배 후에 교회 생일뿐만 아니라 남자 성도 3분의 생신이 같은 날이어서 전 교인이 함께하는 생일 잔치였습니다.

저희 교회 오해 표어가 빌립보서 4장 1절의 말씀, "주안에 굳게 서는 교회" 입니다. 굳게 선다는 의미가 당시 로마 전투 대형으로 자기 자리를 굳게 지키고 흔들림 없이 자기 자리를 사수하는 자세를 가지고 주안에 굳게 선다는 의미입니다.

◈ 전교인 공동체 성경읽기

실천 목표로 올 해 1월 1일 부터 전교인이 성경통독을 함께 하기 위해 전교인 공동체 성경읽기를 시작 하였습니다. 창세기를 함께 읽었고 출애굽기가 시작됐습니다. 전교인이 매일 20분 가까이 함께 성경을 읽고 전교인 성경 일독을 목표로 매진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 말씀으로 더욱 함께하는 공동체 의식이 더 굳건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작년 10월 부터 TEE 성경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한국 디렉터이신 한순진 목사님을 직접 모시고 말씀을 듣고 TEE 성경공부를에 대한 개념과 동기를 갖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4월에는 전교인이 함께 하는 크루즈 여행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열 한 분이 신청한 상태이며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함께할 예정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립하기 전부터 기독일보의 위브리지의 사역으로 시작된 교회입니다. 팬데믹으로 교회 문을 속절없이 닫을 수 밖에 없는 미자립 교회의 안타까운 현실에 기독일보 이인규 목사님의 기도와 뜨거운 열정으로 기존 한인 교회와 매칭하는 위브릿지 사역을 통해 우리 교회는 기독일보와 동양선교교회의 도움으로 교회 창립을 담대하게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창립 1주년에는 동양선교교회 김지훈 담임 목사님이 따뜻하고 진심어린 축하 영상 메세지와 아름다운 축하 화환을 보내주셨고 기독일보의 따듯한 관심 속에 교회 1주년 축제가 더욱 빛이 났습니다.

◈ 송구영신예배 이후 침례식 거행

우리 교회는 송구영신예배를 팜스프링에서 전교인이 함께 하였습니다. 오후 5시부터 엘에이 갈비로 저녁 만찬에 전교인 윷놀이를 하였고 저녁 11시에 송구영신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새해 10분 전에 야외로 자리를 옮겨서 침례식을 거행하였습니다. 저희 교회 침례 1호자는 자랑스럽게도 미국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여 현재 샌디에고 미해군사령부에 근무하는 현역 대위가 침례를 받았는데 전교인이 큰 감동과 은혜를 충만히 받는 침례식이었습니다.

저는 개척 후 한 성도님이 저의 주일 설교를 혼자 듣기 아깝다고 미주복음방송에 직접 찾아가셔서 매주일 아침 6시에 방송설교를 할 수 있도록 후원해 주셔서 1년 가까이 방송설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척하는 첫 달 부터 멕시코 신대원에서 주의 종을 교육 시키고 배출하는 멕시코 프론티어 신대원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 플러튼 아리랑 마켓 인근 미국 교회에서 예배

현재 플러튼 아리랑 마켓 인근에 미국교회의 아름다운 채플에서 매주일 오전 11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의 따뜻한 배려와 협조 가운데 주중, 주말, 그리고 새벽 예배까지 자유롭게 드릴 수 있게 되었는데, 이 교회 또한 위브릿지를 함께 시작했던 같은 조의 목사님을 통해 귀한 장소를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23년 동안 미군에서 현역과 예비역 군목을 마치고 은퇴하여 2023년 1월 1일 현재 교회에서 첫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미군 군목으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3번 참전하여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전투 파병 중 공로를 인정받아 동성훈장을 받았습니다.

교회 개척 1년 가운데 한 순간도 주의 도우심과 손길이 아닌 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펜데믹을 통해 '모이기를 폐하는 습관' 속에 교회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함께 지체의 부분을 담당하고 주의 몸을 함께 세우는 남가주주안에교회가 되고, 또한 인종 구분 없이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충실한 남가주주안에교회가 되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싱어게인3 우승 홍이삭...시즌 1~3 우승자 모두 크리스천



왼쪽부터, 시즌 1 우승자 이승윤, 2 우승자 김기태. ⓒ싱어게인 영상

뮤직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크리스천들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찬양팀 위러브와 함께한 무대를 비롯 크리스천으로 알려진 가수 홍이삭이 18에서 19일까지 진행된 JTBC '싱어게인3-무명가수전'(이하, '싱어게인3') 최종 1위를 차지했다.

홍이삭은 58호 가수 '유통기한을 알고 싶은 가수'라는 이름을 출연했다. 이번 시즌에서 홍이삭이 최종 우승을 차지하며, '싱어게인'의

시즌1 이승윤, 시즌 2 김기태

전 시즌 우승을 기독교인 움켜쥐게 됐다.

시즌1에 출연하고, 이제는 그만의 독특한 스타일로 대중음악마저 삼켜버리고 있는 이승윤은 100주년기념교회에서 시무했던 이재철 목사의 아들로도 유명하다. 그는 인디밴드 따밴, 알라리깡숑에서 활동한 바 있으며 30호 가수 '나는 배 아픈 가수'로 활약했다.

시즌2에서 '도수 높은 33년산 허스키'로 출연해 눈도장을 찍고 각종 싱글 앨범을 발매해 오던 33호 가수 '나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려는 가수' 김기태가 우승을 차지한 바 있다. 김기태 역시 크리스천으로 '천 번을 불러도', '이제 역전되리라', 'The Blood' 등의 곡을 주일예배에서 특별 찬양한 바 있으며, 우승한 후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방영된 '싱어게인' 마지막 라운드에는 홍이삭의 부모로 아프리카에서 선교하던 홍세기·강학봉 선교사가 아들의 무대를 보기 위해 귀국한 장면이 전파를 탔으며, 방송에서 이들은 6년째 아프리카에서 교육에 종사 중이라고 소개됐다. 두 사람이 종사하고 있는 학교는 한국에서 아프리카에 세운 첫 종합대학인 쿠미대학교로, 홍 선교사와 강 선교사는 각각 총장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홍이삭은 경쟁 무대에서 조용필의 〈바람의 노래〉를 선곡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다 싶었는데, 아버지도 '바람의 노래' 어떠냐고 카톡으로 보내 주셨다"고 했다. 방송에 공개된 카카오톡 화면에서는 "누가 뭐래도 우리에겐 네가 최고"라는 부모님의 응원도 비춰졌다.

그는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와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라는 가사에 대해 "일단 내가 가진 현실, 내 아픔과 실패를 받아들이고 또 그 해답이 무엇인지 찾아가야 되겠지만, 이게 '지금의 나고 믿고 가자', 그럼에도 불안함은 한쪽에 계속 있으니 그 안에 제가 모르는 유통기한은 있을 것이란 생각은 하지만, 동시에 그 유통기한 자체가 제 삶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지고 있다"고 방송 가명에 '유통기한'이라는 이름을 붙이 이유를 내비치기도 했다.

이상진 기자

2024년
고엘 신학 대학원
봄학기
신입생 모집

고엘 신학 대학원은 기독교 석사 과정
MACM(Master of Arts in Christian Ministry)을 통해
교회와 선교 사역에 참여할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엘 신학 대학원 기독교 사역 석사 과정에 지원하실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엘 신학 대학원
Goel Theological Seminary
총장 백신종 박사

☑ 세계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다양한 하이브리드 학습 방식
☑ 교회, 선교, 교육 사역 100% 온라인 트랙 가능
☑ 메릴랜드 주정부 허가 종교 교육 프로그램
☑ 선교사, 목회자 사모 장학금 신청 가능

고엘 신학 대학원 2024년 봄학기 강의
강의 일정 2024년 3월 11일~6월 20일(15주)
7:00 PM ~ 9:00 PM (미국 동부 시간 기준)
■ 구속 공동체 신학(월) (Theology of Redemptive Community)
■ 성경 신학과 언약적 사유(화) (Biblical Covenant Theology)
■ 아동 개발과 기독교 교육(목) (Child Devel. & Christian Ed.)
봄학기 등록 마감일 : 3월 5일(금)

기독교 사역 석사 과정 구성
■ 교회 사역에 필요한 성경 신학 (Biblical Theology)
■ 선교 사역에 필요한 선교 신학 (Missional Theology)
■ 주일학교 사역에 필요한 실천 신학 (Practical Theology)

Goel Theological Seminary is a religious, educational institution operating in the State of Maryland pursuant to an exemption granted by the Maryland Higher Education Commission (MHEC), without a Certificate of Approval from the Commission, as specified in the Code of Maryland Regulations 13B.02.04.

입/학/문/의 goeladmission@gmail.com T.(443)319-3592 / www.goelseminary.com

ICC 위원장 "인도 총리 · 집권당, 종교 자유 침해 심각"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2024년 1월 17일 케랄라 주 구루바유르 마을에 위치한 힌두교 사원에서 기도하고 있다. 그가 하원 대표로 있는 인도인민당(BJP)은 2014년부터 정권을 잡은 후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강화하고 있다. ⓒ나렌드라 모디 페이스북

미국에 본부를 둔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가 인도를 종교자유 특별우려국(CPC)에서 제외시킨 미 국무부의 결정이 "정의의 회롱"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인터내셔설크리스천컨선(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의 제프 킹 회장은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의 인민당(BJP) 소속 돌격대원들과 바즈랑 달(Bajrand Dal, 힌두 민족주의 무장 조직)이 2023년에 목회자와 평신도, 교회 건물을 반복적으로 공격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소 723건의 공격이 기록되었으며, 그 외에도 기록되지 않은 많은 공격이 있었다"며 "모디와 인민당은 민주주의와 종교적 자유를 믿는 것으로 위장한 과격한 힌두교도들"이라고 비판했다.

미연방정부 산하 초당적 독립위원회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2023년 연례 보고서에서 인도와 다른 여러 국가에 대한 특별우려국 지정을 권고했다.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된 국가들은 통상 분야 등에서 국제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USCIRF는 종교 자유 침해의 증거에도 불구하고, 미 국무부가 인도와 나이지리아를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하지 않은 결정에 대해 의회 청문회를 요구했다. USCIRF의 에이브러험 쿠퍼 의장과 프레드릭 A. 데이비 부의장은 공동 성명에서 "인도에서는 국내에서 심각한 종교 자유 침해를 저지르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종교적 소수자와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초국가적 탄압 활동을 증가시켰다"고 했다.

두 사람은 "우리는 국무부와 여러 차례 만나 이들 국가에 대한 경고를 촉구했지만 모든 권고를 따르지는 않았다"며 "우리는 단념하지 않고 앞으로도 미국 정부가 종교적 자유를 외교 정책의 핵심 요소로 우선시하도록, 의회가 위임한 파수꾼의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킹 위원장은 인민당과 그 산하 단체인 바르장 달을 종교 자유 침해를 주도하는 배후로 지목했다. 킹은 모디 총리와 인민당이 "민주주의와 종교적 자유를 믿는 척하는 급진주의 힌두교도"라고 비난했다.

ICC의 연례 '올해의 박해자' 보고서는 이러한 공격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인민당의 기독교 탄압 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킹은 특히 모디 총리의 침묵과 인민당 지도부의 기독교 혐오 발언이 공격을 조장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도 인구의 약 2.3%를 차지하는 기독교인들은 점점 더 심한 탄압에 직면해 있다. UCF는 인민당이 전국 총선에서 승리한 2014년 이후 기독교인에 대한 공격이 급증했다고 보고했다.

2023년 상반기에는 인도 내 23개 주에서 폭력이 급증했으며, 400건의 사건이 신고되었다. 이는 전년도 274건에서 증가한 수치이다.

김유진 기자

최악 박해국 북한… "수용소에 기독교인 7만 명"

오픈도어 英 대표 추정 "완전한 공포 속에 살아"



감옥에서 기도하고 있는 북한 성도(실제 상황을 연출한 사진) ⓒ한국오픈도어

오픈도어선교회(Open Doors)가 최근 세계 기독교 박해순위인 '월드와치리스트(World Watch List, WWL)'에서 북한을 1위로 선정한 가운데, 북한 수용소에 수감된 기독교인의 수가 약 7만 명으로 추정됐다.

헨리에타 블리스 오픈도어스 영국 대표는 미국의소리(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은 다른 박해국보다 훨씬 위험한 곳"이라며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완전한 공포 속에 살아간다"고 말했다.

"북한 내 기독교인들은 그 자리에서 처형될 수도 있을 뿐 아니라 그들과 그 가족들은 모두 수용소로 보내져 강제 노동, 강제 재교육, 고문, 굶주림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이라고 VOA는 전했다.

특히 블리스 대표는 북한에는 약 7만 명의 기독교인이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고 한다.

또한 "북한에선 김정은과 그의 조상 외에 다른 사람을 숭배하는 것이 완전히 불법이기 때문에 어떤 종교 단체도 북한에서 안전하게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고.

북한에서는 신앙을 유지하다 발각되면 공개처형, 관리소 이송, 노동교화형 등의 박해를 받으며, 성경책 등 기독교 관련 미디어, 물품을 소지해도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심지어 목숨을 잃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대를 이어온 지하 그루터기 신자, 중국에 나갔다가 복음을 듣고 돌아온 신자, 기독교 라디오 방송 등 매체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는 신자, 소수이지만 기존 신자들의 전도를 통해 믿게 되는 신자 등 약 40만 명의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오픈도어선교회는 "한국교회는 북한 내 신앙의 자유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특별히 기독교 박해 중단을 위해 힘써야 한다"며 "특별히 북녘의 형제자매들을 위한 관심과 기도를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각종 수용소에 수감되거나 산간오지로 추방된 기독교인들과 그 후손들에 대한 부당한 처벌이 중단되고 이들이 복권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한다"며 "또한 하루 속히 북한이 자신들이 가진 모순을 깨닫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하며 외쳐야 한다. 그것이 주 안에서, 또한 한민족으로서 하나된 한국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의 최소한의 책임일 것"이라고 했다.

김진영 기자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LA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예배 오후 2:00
영혼의샘 내적치유 영성집회 오후 7:30(월,수, 금)
김성식 담임목사
LA백송교회
백합화처럼 순결하고 소나무처럼 늘 푸르른 영혼으로 소생시키는 교회
6031Linden Ave. Long Beach, CA 90805
T. (213) 674-7966, (213)245-6616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00 (차세대예배 오전 9:15)
3부예배(차세대예배) 오전 11:30
대학청년부/EM 오후 2:00
새벽예배 (월)온리인 Only 오전 6시 (화-토) - 오전 6:00
수요중보기도모임 온리인 오후 8시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깨우고,이민2세를책임지며,이민가정을치료하며,선교명령을순종하는교회
26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Olympic과 Elden 코너)
T. (213)386-2233

주일예배 오전 10:50
금요말씀과 삶 공부 오후 7:00
아침말씀예배(월~토) 오후 9:00
써니김 담임목사
LA씨티교회
일터교회를 세우는 예수 공동체
741 S. Crenshaw Blvd., LA, CA 90005
T. (323) 833-9090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영어) 오전 10: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 3부예배(대예배) 오전11:30 새벽기도 화-토 오전 5:30
중보기도회 오후 2:00
김재연 담임목사
영생교회
1829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2-7356

주일 1부 전통예배 오전 7:30 수요 오전 중보기도회 오전 9:30
주일 2부 찬양예배 오전 9:0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토요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4부 오후 1:00 영,유아부,유치부, 초중고등부 주일 오전 11:00
김지훈 담임목사
동양선교교회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T.(323)466-1234 Email: om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예배 오전 10:50
2부예배 오전 10:5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금)
Youth예배 오전 10:50 토요비젼새벽예배 오전 6:30
한천영 담임목사
갈릴리선교교회
가족같은 교회, 가족 이상의 가치
3721 Marmion Way., Los Angeles, CA 90065
T. (323) 735-6412 / gmcchurchc.com

1부예배 오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2부예배 오전 9:30 수/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전 11:45
진유철 담임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세운 뜻을 이루어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주일예배 오전 7:30, 9:00, 11:00
교육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9:30
청년부예배 오후 1:30
박은성 담임목사
나성영락교회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 (323) 227-1400 web@youngnak.com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한국학교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영유아, 유년부 오전 11:00 새벽예배 평일 오전 5:30
중고등부 오전10:50 토요새벽 오전 6:00
고광선 담임목사
한길교회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0
T.(323)735-0200 churchtheway@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김성원 담임목사
남가주새소망교회
예배 성령 선교로 세움 받아 함께 달려가는 예수그리스도 공동체
11840 Paramount Blvd., Downey, CA 90241
T. (562)674-3016, cell. (562)417-1800
www.newhopechurchsc.org

주일예배: 아침 10시반 라디오 방송설교
수요예배: 저녁 7시 라디오서울 AM 1560
매일 오전기도회: 9-11시 주일 아침 6시
매일 저녁기도회: 8-10시
서사라 담임목사
주님의사랑 교회
세계선교와 함께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로 단장하는 교회
216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T. (213) 574-9400
lordslovechristianchurch@yahoo.com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강지원 담임목사
새 한우리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선교와 전도하는 교회
1818 S Western Ave #403., LA, CA90006
T. (323) 702-6709

주일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토) 오전 6:30
엘리야 김 담임목사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439 S Western. #100, LA, CA 90020
T. (213) 272-6031

1부예배 오전 8:00 GCEM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3부예배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라티노 오후 5:00
신승훈 담임목사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섬기고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주일예배 오전 10:55
수요예배 오후 7:30 (온라인)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김 신 담임목사
주향교회
3412 4th St, Los Angeles, CA 90020
T. (213) 383-4951/4952 / www.joohyang.org

주일1부예배 오전 8:00 E.M(대.청) 오후 1: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한글학교주일 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11:00 오전 6:30 (토)
중고등부 오전11:00
곽부환 담임목사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주일예배 2부 오전 9:5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월~금 오전 6:00
주일예배 4부 오후 2:00 EM Worship Sunday 2:00
김일형 담임목사
새생명오아시스교회
1041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6
T. (323)730-7000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대학청년부 성경공부 주일 오전 9:30
한현종 담임목사
크렌셔장로교회
1060 Crenshaw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407-1600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금요저녁기도회 오후8: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이수호 담임목사
올림픽장로교회
3055 Wilshire Blvd. #220., LA, CA 90010
T. (213)387-1700 olympicch@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사우스베이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아침 성경공부 10:40
2부예배 오전 11: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3부 EWS 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유중고등부 예배 오전 8:40
이호민 담임목사
가디나선교교회
1044 W. 164th St., Gardena, CA 90247
Tel. 310)532-0191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45(화~금) / 6:20(토)
이황영 담임목사
남가주기쁨의교회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326-0300, http://rpcsc.com

문서선교를
후원하는 교회
Christianity Daily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토) 오전 6:00
윤성현 담임목사
늘푸른동산교회
17116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562) 774-7224 / evergreenhill.org

1부예배 오전 8:30 유아/유치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EM 1부 9:30/ 2부 11: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중/고예배 오전 11:00
김정훈 담임목사
대흥장로교회
파송가라,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라(출3:9~10)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T. (310) 719-2244 / dkpc.org

1부 예배 오전 8:00 금요 예배 금요일 저녁 7:30
2부 예배 오전 10:45 새벽 예배 매일 오전 6:00
EM성인예배 오전 9:30
김경환 담임목사
은혜로교회
새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431 Madrid Ave. Torrance, CA 90501
Tel. 310)787-7766 / www.gwctorrance.com

1부예배 오전 9: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화-토)
3부예배 오후 2:00
이종용 담임목사
코너스톤교회
이땅의 참교회, 말씀대로의 교회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 F. (310) 530-8400 / cornerstonetv.com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45
EM 예배 오전 9:4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KM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월-토) 오후 6:00
김우준 담임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주님앞에 드려짐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T. (310)370-5500 / www.torrancegcc.org

주일1부 오전 7:45 수요예배 오후 7:30
주일2부 오전 9:45 새벽기도 월~토 오전 6:00
주일3부 오전 11:30
EM예배 1부 오전 9:45/2부 오전 1130
고창현 담임목사
토렌스제일장로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1880-1900 Crenshaw Blvd, Torrance, Ca 90501
T. (310) 618- 2222

주일예배 오후 1:00
최순환 담임목사
New Church
전도와 양육으로 하나님 나라를 재건하는 큰 군대
24328 S Vermont Ave #214, Harbor City, CA 90710
T. (310) 905-2228 / newchurchdtla.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오렌지카운티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GRC(EM)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방상용 담임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Step Up 하고 Step Out 하는 교회(행 6:7)
12413 E. 195 th St. Cerritos, CA 90703
T. (562)402-2919 www.cmchome.org

모레노밸리 예배시간: 매주 일 오후 3시
LA 밸가든구국재단 : 매주 수요일 오전 11시
이우호 담임목사
CRPC 모레노밸리한인교회/LA구국재단
24725 Alessandro Blvd. Moreno Valley CA 92553
T. (954) 200-0875

1부예배 오전 7:30 금요찬양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장애인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장년부 오전 9:30, 11:3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6:00(토)
구봉주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예수믿고 변화되어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20
영어예배(EC) 오전 9:30
청년예배 오후 1:30
백정우 담임목사
남가주동신교회
복음을 복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성도를 성도되게
2505 Yorba Linda Blvd. Fullerton, CA 92831
Tel. 714) 680-9556~7 www.dongshin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5:30
수요예배 오후 7: 30
Youth/ College 주일오전 11:00
지영환 담임목사
다우니제일 교회
주를 기쁘시게하는 교회(고후 5:9)
7948 Quill Dr. Downey, CA 90242
T. (562) 861-1004 www.downeyfirst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1:3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7:00(수) 제자성서 오전 9:30(금)
중보기도 오전 9:30(목)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림학춘 담임목사
라구나힐스연합감리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은혜와 열정의 GnP 300
24442 Moulton Parkway. Laguna Woods, CA 92637
T. (949)380-7777 / www.lagunaumc.org

1부예배 오전 7:00 성인 영어 예배 오전 9:00,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9:00 일본어 예배 오후 1:15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학교 오전 9:00,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교회
역동적 복음, 능동적 선교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수요예배 오후 7:00
2부 오전 9:15 중고등부 오전 11:15
3부 오전 11:30 한어부 오후 1:00
4부 오후 2:00 KM대학청년부 오후 2:30
박신웅 담당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다음세대를 세우고 복음으로 다가서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949)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청년부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9:15 새벽기도회 오전 6:00 (월-금)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평신도 지도자들을 세워 초대교회 역사 이뤄가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rcoc.com

1부예배 오전 07:20 새벽예배 평일 오전 05:30
2부예배 오전 09:10 토요일 오전 06:00
3부예배 오후 11:20 금요성령예배 오후 07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한 교회 상급받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주일 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박 훈 담임목사
함께걷는교회
하나님, 성도, 이웃과 함께 걷는 교회
6102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1
T.(213)598-9130 breadhoon@hanmail.net

주일예배 1부 오전 7:45 수요여성예배 오전 10:00
주일예배 2부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3부 오전11:30 새벽예배(평일) 새벽 5:30
(청장년/교육부서) (토/주일) 새벽 6:00
김종규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 제일장로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714) 899-9191 / oc1church.com

1부예배 오전 8:20 수요기도회 오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청년예배 EM 오후 1:30 오전 6:00(토)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네가 나를 사랑하는냐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252-9191 / www. lordlight.org

1부예배(EM) 주일 9:00am 금요찬양예배 8:00pm
2부예배(KM) 주일11:00am (매월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새벽예배 화~금 5:30am
(유아유치부,유초등부,중고등부) 토 6:00am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교회
복음 중심의 선교적 제자공동체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email@gmail.com

LA 동부 지역

1부예배 오전 7:30 주일학교/중고등부 오전 11:40
2부예배 오전 9:40 대학청년부 오후 2:00
3부예배 오전 11:4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EM(Holy Wave) 오전 9:40 금요영성집회 저녁 7:30(금)
우영화 담임목사
LA동부사랑의교회
복음으로 사는 사람 (창 12:2-3)
5540 Schaefer Ave. Chino, CA 91710
T. (909)590-3722 www.eastsarang.org

1부예배 오전 7:45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45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6:00
3부예배 오전 11:45
고승희 담임목사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美 UMC 대항마 보수 감리교단, 남서부서 세력 확장 중

미국 연합감리교회(UMC)에 대한 보수적인 대안으로 출범한 세계감리교회(GMC)가 미국 남서부와 서부 해안으로 세력이 확장되고 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2022년에 출범해 이미 4천2백개 이상의 회원 교회를 보유한 GMC는 최근 남서부에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서부 주 임시 지구'로 알려진 새로운 지역기관 창설을 준비하고 있다.

키스 보예트(Keith Boyette) GMC 과도기연결책임자는 CP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5월 3일 서부 주 임시지구의 공식 운영을 목표로 GMC 임시지도자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회원이 될 여러 지역교회는 새롭게 개척된 교회들이고, 다른 교회들은 UMC에서 탈퇴하고 GMC에 가입하기로 투표한 교회들"이라고 했다.

보예트에 따르면, 다른 UMC 연회와 비교했을 때 UMC 서부지역교회에 대한 탈퇴는 매우 비용이 많이 들고 관료적이어서 탈퇴를 원하는 교회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UMC에 남거나 그렇지 않으면 수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과 자산을 떠나야 한다.

보예트는 현재 서부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감리교 교세가 감소한 이유에 대해 1970년대부터 점점 더 진보적인 신학 및 사회적 입장을 옹호했던 것을 원인으로 꼽았다.

그는 "GMC는 서부에 교회를 개척하고, 성장하고, 배가시킬 것이라고 확신한다. 감리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전통적인 표현을 고수할 때, 그들은 항상 사람들을 교회로 끌어들였다"고 했다.

이어 "장기적으로 GMC는 사명과 비전을 공유하며 성장하고 배가될 것이다. 우리는 서부에서 감리교의 쇄신을 이끌기 위해 앞장서 온 신실하고 끈기 있는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의 영광과 겸손을 느낀다"고 했다.



지난 2019년 2월 24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MC 특별총회 모습. ⓒUMC

GMC는 이를 위해 현재 펜실베이니아주 오크데일의 크로스로드교회와 연계된 교회 개척 자원 조직인 리버네트워크(The River Network)와 제휴하고 있다.

크로스로드교회의 설립자이자 리버네크워크 전무 이사로 섬기고 있는 스티브 코디 목사는 CP와의 인터뷰에서 "2022년 GMC 교단이 창립될 때부터 GMC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며 "GMC 출범 당시 지도부는 리버네트워크를 교회 개척 분야의 전략적 파트너로 초대했었다. 난 GMC 목사이고 그 사명을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교회 개척을 최우선 과제로 삼으려는 계획이 너무 기뻤고, 리버네크워크 전무이사로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 배가 운동을 촉진하기 위해 (교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일을 하게 되어 기쁘다"고 덧붙였다.

리버네크워크는 지난 18개월 동안 GMC의 전략적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3개국에 기반을 둔 700명 이상의 교회 개척 지도자를 훈련하는 데 도움을 줬다.

코디 목사는 "개인적으로 미국 전역에서 교회 배가의 큰 잠재력을 보고 있다. 우리는 UMC를 떠난 일부 사람들이 새로운 GMC 교회의 출범 팀원이 되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한편, 2019년부터 2023년 말까지 7,660개의 교회가 UMC에서 탈퇴했으며, 이는 전국 회원 교회 수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이미경 기자

미국인 24% "이스라엘 지원 너무 적어" 2001년 이후 최고치


ⓒUnsplash/ Levi Meir Clancy.

미국 민주당원 중 절반은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중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지원하기 위해 '너무 적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미국인의 비율은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서 갤럽은 이스라엘과 2007년부터 가자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테러단체 하마스 사이의 지속적인 갈등에 관해 미국 성인 1천13명의 견해를 개괄적으로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23년 12월 1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데이터는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4%포인트다.

갤럽은 민주당 응답자의 49%가 "미국이 팔레스타인을 지원하기 위해 '너무 적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35%는 미국이 '적절한 양'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14%는 팔레스타인인들이 미국의 '너무 많은' 지원을 받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너무 적은'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한 미국 전체 성인 평균은 33%였다. 이와 대조적으로 공화당원 중 16%, 무소속 의원 중 34%만이 팔레스타인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너무 적다'고 평가했다. 반면, 공화당 응답자의 52%는 미국이 팔레스타인에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스라엘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는 민주당원과 무소속 모두 40%가 "미국이 '과도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느꼈고, 공화당원은 26%만이 이에 동의했다.

전반적으로 미국 성인의 약 4분의 1(24%)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더 많은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믿고 있으며, 이는 갤럽의 추적에 따르면 2001년 10월 이후 같은 답을 한 응답자 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였다.

보고서는 "갤럽은 이스라엘-헤즈볼라 분쟁 중인 2006년 미국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미국인들의 견해를 마지막으로 측정했다. 현재 미국이 두 그룹 모두에 대해 너무 적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2006년 수치보다 높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스라엘에 대한 조치는 2001년부터 주기적으로 요청되었으며, 최근 미국이 너무 적게 지원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인 24%는 기록상 가장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 대다수 주에서 성별 위화감 진단 건수 증가



ⓒPexel

2018년부터 2022년 사이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성별 위화감 진단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데피니티브 헬스케어'(Definitive Healthcare)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주별로 성별 위화감 진단이 증가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편집해 최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사춘기 차단제, 남성호르몬 처방, 거세나 이중 유방절제술 등 신체를 손상시키는 성형수술 등의 소위 '성별 확인 치료'를 지지하는 관점에서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사우스다코타를 제외한 모든 주에서 성별 위화감 진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가운데 버지니아(274%)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인디애나(247%), 유타(193%), 알래스카(183%), 사우스캐롤라이나(171%), 델라웨어(170%), 캔자스(147%)가 그 뒤를 이었다. 이어 콜로라도(145%), 워싱턴(145%), 메인(135%), 네브라스카(134%), 조지아(132%), 미네소타(122%), 워싱턴DC(122%), 버몬트(116%), 로드아일랜드(114%), 켄터키(112%), 노스캐롤라이나(109%), 매사추세츠(108%), 와이오밍(107%), 캘리포니아(102%) 순이었다.

스펙트럼의 반대쪽 끝에서는 성별 위화감 진단을 받은 이들의 수가 사우스다코타에서 23% 감소했다. 가장 적게 증가한 지역은 하와이(6%), 코네티컷(10%), 아이오와(30%), 플로리다(35%), 아칸소(42%), 오클라호마(49%) 순이었다.

보고서에는 미성년자 성전환 시술 금지의 영향으로 2021년에서 2022년 사이에 성별 위화감 진단이 감소했다는 것을 암시하는 데이터도 포함돼 있었다.

보고서는 "플로리다에서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꾸준히 증가했다가 2022년 말까지 16% 감소했다. 2023년은 트랜스젠더 케어 금지 법안이 통과된 해다. 노스다코타 진단 건수도 마찬가지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3년 4월 청소년 트랜스젠더 케어 금지를 앞두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11%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아이오와(14%), 네브라스카(5%), 몬태나(3%) 주에서 성전환 절차에 대한 제한이 시행되기 전인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성별 위화감 진단이 비슷한 수준으로 감소했음을 강조했다.

입법 또는 행정을 통해 유사한 조치를 취한 다른 주에는 앨라배마, 애리조나, 아칸소, 조지아, 아이다호, 인디애나, 켄터키, 루이지애나, 미시시피, 미주리, 노스캐롤라이나,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사우스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유타와 웨스트버지니아가 포함됐다.

미국소아과학회(American College of Pediatricians)는 사춘기 차단제의 부작용으로 골다공증, 기분 장애, 발작, 인지 장애, 그리고 이성 호르몬과 결합할 경우 불임 등을 언급했다. 또 이성 호르몬의 잠재적인 장기적 영향으로 심장 마비, 뇌졸중, 당뇨병, 혈전 및 암의 위험 증가 등을 꼽았다.

한때 자신의 정체성을 소년으로 규정했던 저명한 탈성전환가 클로이 콜(Chloe Cole)은 자신이 10대 때 겪었던 자살 충동이 미성년자 때 받은 이중 유방절제술 때문이라고 말했다. 콜은 자신이 겪은 약물과 시술이 "깊은 신체적·정서적 상처, 심각한 후회, 의료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남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혜진 기자

"낙태 종식 위한 교회의 역할과 친생명 운동의 미래"

그렉 로리 목사, '생명을 위한 행진' 초청 연사



그렉 로리 목사 ⓒ유튜브 캡처

미국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Harvest Christian Fellowship)를 이끄는 그렉 로리(Greg Laurie) 목사가 친생명 운동의 미래와 교회가 낙태 종식을 돕는 데 어떻게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했다.

로리 목사는 '모든 여성과 함께, 모든 어린이를 위해'라는 주제로 열린 제51차 '생명을 위한 행진'에 초청 연사로 참석했다.

로리 목사는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친생명 지지자들에게 사람들과 일대일로 대화하고 태아의 인간성에 대해 교육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나 자신도 결혼하지 않은 관계에서 잉태되었다. 나는 낙태 통계의 일부가 될 수도 있었다"라며 "어머니는 나를 출산하기로 결정하셨다. 말할 필요도 없이 그녀가 그런 결정을 내려서 기쁘다. 따라서 우리는 친생명 운동을 법안과 투표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한번에 한 사람씩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에 대한 규제 권한을 주정부로 되돌린 대법원 판결 이후 친생명 옹호자들과 대통령 후보들은 다음 단계가 연방정부의 15주 낙태 금지 법안을 제정하는 것인지 논의했다. 친생명운동의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 운동이 주 차원의 낙태 제한 통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연방정부의 15주 낙태 금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로리 목사는 그가 제안하는 낙태 제한 유형에 대한 질문에 "아마도 주마다 다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다르다"라며 교회가 법안 제정 외에도 임신 여성들과 함께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라고 촉구했다.

친생명 비영리 단체인 '케어 넷'(Care Net)이 의뢰한 2015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여성 10명 중 4명 이상이 낙태 당시 교회를 다녔으며, 단 7%만이 임신을 끝내기로 한 결정을 교회에서 누군가와 논의했다.

로리 목사는 "(이 통계는) 생명이 수정에서부터 시작되고 낙태라는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을 의지를 가진 목회자들이 친생명 운동에 더 많이 필요함을 의미한다"면서 "일부 영적 지도자들이 이 문제의 정치적 성격 때문에 교회에서 낙태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피하고 싶어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이자 영적인 문제"라면서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다.

낙태를 경험한 교인 여성의 숫자에 대한 케어넷의 조사 결과에 대해 로리 목사는 "심지어 기독교인조차도 죄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리 목사는 교회가 임산부와 아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그룹을 모아 여성과 가족을 돕는 다양한 방법을 강조했다. 이 그룹은 산모를 격려하고 무료 기저귀, 의복 및 탁아 서비스 형태로 도움을 제공한다.

로리 목사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하다"라며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살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고립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공동체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기 때문에 교회가 언덕 위의 빛처럼 빛날 수 있는 곳"이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화~금)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 오전 6: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구경모 담임목사
한빛장로교회
11608 Valley Blvd., El Monte, CA 91732
T. (626)444-0521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말씀강해 오후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예배 오전(월-금) 5:30 (토) 오전 6:00
안 환 담임목사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철야기도회(마지막주) 오후 8: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화-금) 오전 6:00(토)
EM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송재호 담임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la@hnsla.org

1부예배 오전 7:45
2부예배 오전 9:10
3부예배 오전 12:00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6:00, (토)오전 6:30
고태형 담임목사
ECO선한목자교회
교회여, 성숙하라!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909)591-6500 sunhanchurch.com

KM 주일예배 EM 주일예배 새벽예배
- 1부 07:30AM - 1부 09:00AM - 평일(월~금) 05:00AM
- 2부 09:15AM - 2부 11:00AM - 토요 예배 06:00AM
- 3부 11:00AM
김지성 담임목사
글로벌선교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생명의 공동체
23425 Sunset Crossing Rd Diamond Bar 91765
T. (909)396-4441 www.igm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중,고등,대학부 오전 11:00
수요성경학교 오후 7:30 새벽예배 화~토 새벽 6:00
안정섭 담임목사
예수동행교회
10408 Balboa Blvd. Granada Hills, CA 91344
T. (818) 366-0089 / www.ilovejcc.com

LA 북부 지역, 라스베가스

주일 1부 오전 9:00 JCCC Academy 오후 12:30
주일 2부 오후12:30 주중새벽기도회 오전 5:30
EM 오후 12: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사랑부 오전 11:00
김경진 담임목사
기쁜우리교회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125 S. Louise St, Glendale, CA 91205
T. (818)662-0400 www.joyfulccc.org

주일 1부 오전 8:00 중고등부 오전 10:30
2부 오전 10:30 한아청년 오후 12:30
EM예배 오전 10: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화~토 오전 6:00
이정현 담임목사
만남의교회
거룩한 믿음으로 도약하는 교회
18101 Lassen St. Northridge,CA 91325
T. (818)882-9191 F. (818)882-9777 www.churchmannam.com

1부 예배 오전 8:30 EM예배 (1부)오전 9:00
2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2부)오전 11:00
금요성령집회 오후 7:30 한어 청년부 주일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오명찬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예수님처럼 믿는 교회(Believe Like Jesus)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곽덕근 담임목사
은혜와평강교회
말씀과 성령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교회
9140 Haskell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 894-9266

밸리채플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 영어예배 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저녁 7:45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196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T, (818)363-5887
OC채플
수요영성집회: 오후 7:30
새벽기도 월-금 오전 5:30/ 토 오전 6:00(ZOOM)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1
최 혁 담임목사
주안에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www.icccla.org
e-mail: icccc.office1@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9:4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1:30
교육부 오전 11:30
국윤권 담임목사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 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주일1부예배 오전8:00 중고등부(아가페홀) 오전11:0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부예배(믿음채플) 오전11:00
유아유치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6:00
초등부 오전11:00 Youth 금요모임(금) 오후7:30
유경재 담임목사
나성북부교회
성경을 배우며 성경에 충실한교회
8756 Woodley Ave. North Hills, CA 91343
T. (818)893-8755

주일예배 오전 11:00
화요기도모임 오전 10: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6:00
토 오전 7:00
김상현 담임목사
한인필그림교회
2518 W. Grand Ave. Alhambra, CA 91801
T. (626)570-1610 (교회) , (714)853-4030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지동근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 472-5979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새벽예배(화-금) 새벽 6: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EM예배 주일 오전11:00
수요예배 저녁 7:00
박성호 담임목사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T. (661) 831-2262 / onnuribk.com/anc

주일예배 1부 오전 9:45
주일예배 2부 오전11:30
유초등부 주일 오전11:30 수요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전11:3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임인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중앙교회
3225 S Rainbow Blvd #200, Las Vegas, NV 89146
T. (702) 489-2999 / www.joonganglv.org

주일예배 1부 오전 8:15 (한국어)
주일예배 2부 오전10:15 (한국어, 스패니쉬)
주일예배 3부 오후12:15 (한국어,교육부)
새벽예배(월-토) 새벽 6:00
(7175 W Oquendo Rd, Las Vegas, NV 89113)
강일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9525 W Maule Ave, Las Vegas, NV 89148
T. (702) 453-1223 / www.fglvchurch.com/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교육부예배 오전11:00
수요말씀기도회 오후 7:00
토요새벽예배 오전 7:00 E. lvkcchurch@gmail.com
이정환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커뮤니티 교회
예수님의 제자되어 성령님의 열매 맺는 교회
622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252-0077 / lvkcc.org/lvkcc/index.php

주일예배 1부 오전11:00
주일예배 2부 오후 2:00
EM예배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송삼용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즐거운 제자교회
6985 W Sahara Ave, Las Vegas, NV 89117
T. (702) 378-9828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EM예배 주일 오후 1: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새벽기도회(화-토) 새벽 5:30
유년부예배 주일 오전11:00
정공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
6827 W Tropicana Ave #130, Las Vegas, NV 89103
T. (702) 742-3324 / thinkhappychurch.org

주일낮예배 오전 11:00(설교 동시통역)
주일저녁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화~토) 오전 5:30
조응철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 E. drjho@hot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저녁 6:00
새벽예배(화-토) 새벽 6:00
이병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제일침례교회
2625 Westwind Rd, Las Vegas, NV 89146
T. (702) 331-5026

주일 예배 오전 11:00 (영어 동시통역)
화요중보기도 오전 10:00
수요 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박은호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은혜와 사랑의 교회
2580 Montessouri St. #107, Las Vegas, NV 89117
T. (702) 539-6348

주일 1부 예배 11:30 AM
주일 2부 예배 1:30 PM
수요예배 7:00 PM
새벽기도 화~토 5:50 AM
임명진 담임목사
라스베가스 우리좋은장로교회
8425 W. Windmill Ln. Las Vegas, NV 89113
T. (702)685-2212 , woorijoeunchurch.com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la@gmail.com

크리스천 비지니스

CHRISTIAN BUSINESS

aga MEDICARE OPTIONS
Annie Moon
Insurance Agent
License #0B51378
MEDICARE(메디케어 보험)
213-503-1669
4055 Wilshire Blvd. #321,. Los Angeles, CA 90010
e-mail : 429annie@gmail.com

아이넥스 바디샵
최고의 기술과 완벽함을 추구합니다.
자동차 사고...
더 빠르고 완벽한 복원을 원하신다면
이제 아이 넥스 입니다.
inex AUTO COLLISION CENTER
Quality Body Work & Life Time Warranty
2811 Leeward Ave Los Angeles, CA 90005
E-Mail : inexcollisioncenter@gmail.com
213.383.1230
FREE ESTIMATE · TOWING

헤어 컷의 명장이 되고 싶으십니까?
* 헤어컷 배워 선교하실 분(무료)클레스
* 라이선스는 있으나 기술이 없으신 분
* 빠른 시간 안에 헤어드레서가 되고 싶은 분
* 격조 있는 Hair Cut을 구사하고 싶은 미용사
문의 (213)392-2323
- 아시아미용선수권 우승
- 아시아미용가협회수석강사
- 영국 알란 Beauty College 한국강사
- 독일 슈바츠코프(Beauty College) 초대 한국강사
- 한국국가대표 심사위원 트래이너 역임

신비의 침술, 놀라운 쑥뜸
Youtube에서 김용석 원장으로 검색하시면
많은 치료사례를 보실수 있습니다.
김용석 한의원
구당 김남수 선생님의 무극 보양뜸을 체험해 보십시오.
LA 323.733.8814 OC 714.522.8818

다양한 컨텐츠 제작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각종모임 주문환영(교회, 골프모임, 동호회...)
엄마의 정성이 한 가득 ~~
미리 주문해 주세요!
고기, 김치만두
찹쌀 오방떡
술빵
새우만두
떡갈비 정식
떡갈비 김밥
Cooking Mom
T. 213.378.8530/213.674.7476
3660 Wilshire Blvd. #120 LA, CA 90010

F1 PLUMBING
업계 최저가격
드레인 클린 $30불 부터
213-434-8947
OUR SERVICES:
• Water Leaks & Pipe Clogs
• Drain & Sewer Cleaning
• Pipe Repair & Replacement
• Water Heaters
• Toilets, Sinks, Disposal

NATURE'S TREASURE
Innervis NUTRITION
건강을 선물하세요
부모님 선물로 딱이네~
기억력 개선
피로 회복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항산화 작용
5 목 넘김이 쉬운
비타민 D3 5,000 IU
120 배지터블 캡슐 $8.80
D3 5,000 IU 선사인 비타민!
햇빛을 보지 않고, 주로 실내에서 생활하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비타민D 결핍을 보충해 줍니다.
6
비타민 C500
180 베지터블 캡슐 $11.99
당신의 건강과 뷰티를 위한 필수 영양소! 필수영양소 비타민C와 칼슘, 그리고 노화 방지, 피부 개선, 항바이러스 등의 효능을 가진 로즈힙까지 함유된 제품입니다.
9
면역력
120 타블렛 $11.99
비타민 C, 비타민 D, 아연, 로즈힙을 사용하여 제조된 강력한 면역력 개선 제품입니다. 신체 면역체계의 다양한 세포 기능을 지원해 줌으로써 면역력을 기본부터 끌어올려 줍니다.
전화구매
213-434-1170

한국 개신교인, 5년 새 20.3%→16.5%
20 · 30대는 10명 중 1명 꼴



개신교인 비율은 2017년 20.3%에서 2023년 16.6%로 줄었다. 20 · 30대에서는 각각 9%와 11%로, 청년 10명 중 1명 꼴이었다.

20~40대 중에선 무려 절반 가량 감소해
60대 이상 49%... 사회보다 고령화 빨라

대한민국 개신교인 인구(만 19세 이상)가 정점을 찍었던 2012년 22.5%에서 10년 만에 16.6%로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20~40대에서는 무려 절반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회데이터연구소(대표 지용근, 이하 목데연)가 최근 한국인의 종교 분포를 알고자 전국 5,451명의 대규모 표본을 대상으로 단독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성인 기준) 진행했으며, (주)지앤컴리서치가 수행했다.

먼저 개신교·불교·천주교 등 '종교인'의 비율은 2004년 57%로 최고치를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 2023년 37.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30대 종교인 비율은 각각 16%, 19%로 2017년 대비 절반 가량 감소했다.

개신교인 비율은 2017년 20.3%에서 2023년 16.6%로 줄었다. 20·30대에서는 각각 9%와 11%로, 청년 10명 중 1명 꼴이었다. 하락세는 불교가 2012년 22.1%에서 2023년 12.4%로 개신교보다 컸으며, 가톨릭은 2004년 8.2%에서 2023년 7.8%로 지난 20여 년간 큰 폭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교회의 고령화 속도는 사회보다 빨랐다. 60대 이상의 비율은 교회 출석자 중 무려 52%로, 일반 국민 중의 비율인 32%보다도 매우 높았다.

만 19세 이하 청소년층의 개신교인 비율은 성인 평균보다 낮았다. 개신교인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의 13.6%로, 불교(7.6%)와 가톨릭(5.7%) 비율을 합한 수치와 비슷했다.

개신교인 비율은 중학생에선 17%인데, 고등학생에선 10%로 떨어졌으며, 청소년 중 남학생에선 17%로 여학생(10%)보다 높았다.

10년 후 개신교인의 비율은 어떻게 될까. 단순 지난 11년간의 기울기를 반영하면 10년 뒤 12.6%까지 떨어지며, 가나안 성도의 비율은 37.1%까지 증가할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참고로 미국은 어떨까. 2022년도 퓨리서치센터 조사 결과, 미국 개신교인은 2007년 52%에서 2021년 40%로 감소했으며, 무종교인은 같은 기간 16%에서 29%로 늘어 미국 역시 탈종교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데연은 "한국교회는 탈종교화와 개신교인의 감소, 가나안 성도 증가, 저연령층의 종교 무관심 현상에 더해 저출산·고령화라는 거대한 인구 구조적 문제까지 맞닥뜨리고 있다. 고령화 시대에 노인목회도 중요하지만, 한국교회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차세대 사역에 집중해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

이어 "우선 청소년과 20대 청년의 신앙이 유지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청소년의 교회 출석률은 64%인데, 20대에 접어들면서 55%로 떨어진다.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단단함이 청소년 시기에 만들어져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청소년과 청년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영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송경호 기자

예수 영화 〈선택받은 자〉 시즌 4, 2월 대개봉



'선택받은 자(The Chosen) 시즌4' 트레일러 영상. ⓒ엔젤스튜디오 홈페이지

예수를 다룬 드라마 시리즈 〈선택받은 자〉(The Chosen)'의 시즌 4가 2월에 미국 전역 극장에서 개봉된다.

미국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따르면, 에피소드 1-3화는 2월 1일 극장에서 개봉하며, 4~6화는 2월 15일, 7~8화는 2월 29일에 개봉된다. TV 스트리밍 시리즈의 전체 시즌이 전국 극장에서 선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고편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상대로 음모를 꾸미고, 유다가 금고를 훔치고, 세례 요한이 죽음에 이르는 장면을 보여주며 유튜브에서 170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예고편에는 예수가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며, 그의 제자들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가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포함되어 있다. 이 예고편은 유튜브의 '트렌딩' 차트에서 2위를 차지했다.

〈선택받은 자〉 공동 프로듀서 크리스 주엔은 크리스천헤드라인스에 "시즌 4는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좀 더 진지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엔은 "우리는 처음 몇 시즌 동안 모든 제자들을 만나고 시작하는 데 할애했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새로운 단계에 도달하며 슬픔이 시작된다"며 "스토리라인이 훨씬 더 강렬한 지점에 다다른다"고 설명했다.

주엔과 그의 사업 파트너인 체드 건더슨은 아웃오브오더 스튜디오(Out of Order Studios)를 소유하고 있으며, 매일 촬영 현장에서 시리즈 제작을 돕고 있다.

건더슨은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은 훨씬 더 큰 시즌이다. 당연히 모두가 그 내용이 어디로 향할지 알고 있다"며 차기 시즌에 예상되는 십자가 처형과 부활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클라이맥스와 그 이후의 해답을 알고 있지만, 이제 어떻게 진행할지가 관건"이라며 "[감독] 댈러스 (젠킨스)가 어떻게 영화를 조율할지, 작가들이 이 여정 가운데 우릴 어디로 데려갈지,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상황에서 각 캐릭터들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큰 놀라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막달라 마리아를 연기한 엘리자베스 태비시는 시즌 4에 대해 "이번 시즌에는 많은 고통과 슬픔이 있다. 그러나 희망과 빛도 공존한다"라며 "이 시즌에는 내가 복음에서 가장 사랑하는 이야기 중 일부가 담겨 있다"고 말했다.

시즌 4는 미국의 배우·방송인 노동조합(SAG-AFTRA)의 파업 기간 중에 촬영되었으나, 노조가 승인한 면제로 인해 촬영은 단 하루만 빠진 상태로 무사히 마쳤다. 〈선택받은 자〉는 독립 제작물로, 분쟁의 중심에 있던 주요 스튜디오들과 관련이 없어 파업 면제 대상이 되었다.

주엔과 건더슨은 파업 면제를 "작은 기적"이라고 묘사했다. 파업이 시작된 날에는 이 시리즈의 팬들로 구성된 600명의 엑스트라가 촬영장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주엔은 "하루 동안 배우 없이 600명의 엑스트라만 참여하여 거대한 장면을 촬영했다. 그 장면은 놀라울 정도로 훌륭하게 나왔다"고 회고했다. 그 후 파업은 배우들과 엑스트라들이 함께 장면을 촬영해야 할 시점에 맞추어 종료되었다고.

〈선택받은 자〉는 2021년 당시 미국에서 11번째로 큰 영화 배급사인 패섬(Fathom)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영화로 등극했다.

김유진 기자

믿을 수 있는 최고의 의료진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호그 병원
Hoag Hospital



애너하임 리저널 병원
Anaheim Regional Medical Center



세인트 주드 병원
ST. Jude Medical Center



U.S. 최고의 대형병원들과 함께합니다.

서울 메디칼 그룹
SEOUL MEDICAL GROUP



할리우드 차병원
Hollywood Presbyterian Medical Cent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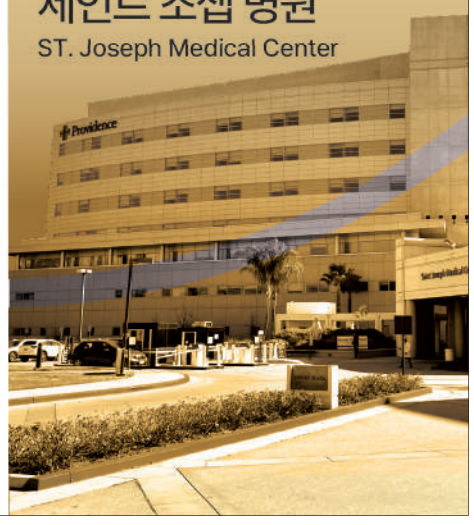
시더스 사이나이 병원
Cedars-Sinai Medical Center



UCLA 병원
UCLA Medical Center



세인트 조셉 병원
ST. Joseph Medical Center



2024
중·고자녀를 위한
정체성 회복 여름캠프
부모가 꼭 권하고싶은 기독교육캠프

기간 : 2024년 6월 17일(월)~7월 12일(금)까지
장소 : 한국 충남 논산 소재 벨국제아카데미
대상 : 미주 한인 2세 자녀들($1,700/1인)

캠/프/내/용

1. 크리스천/나의 정체성교육
2. 한국인과문화 정체성교육
3. 다양한 한국문화 체험 등으로 진행





상세안내는 기드온동족선교 홈페이지와 큐알코드 검색

■ 등록신청 : www.gideonbrothers.org
■ 벨국제아카데미: http://bellschool.or.kr

기드온 동족선교 GIDEON BROTHERS MISSION WORLD GBMW

BELL INTERNATIONAL ACADEMY

문의 : T.(425)775-7477 gideonbrothers100@gmail.com

협찬 : 미주기독일보

가슴으로 읽는 성경 - 마태복음, 제자 되기 (4)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왕



김 영 길 목사
TMF(Thanksgiving Mission Foundation)의 대표

왕이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신 내어놓는다는 말씀이다.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왕은 자기 권좌와 영토를 지키기 위해 백성들을 전쟁터로 내보낸다. 그중에 얼마는 죽을 것이다. 전쟁은 어차피 서로 죽이는 행위니까. 왕은 수많은 군사들이 죽어도 개의치 않는다. 훈장과 약간의 보상금만 주면 된다.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는 백성들로 부터 추앙을 받을 것이다. 조금 심하게 말하면, 왕은 사람들의 목숨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한다.

그런데 예수라는 왕은 전혀 다르다.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 자기 생명으로 백성들의 생명을 구해낸다. 그것도 죄로부터. 그렇다면, 죄가 눈앞에 있는 적군보다 더 위험하고 두렵다는 말인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천사가 말한 "자기 백성"은 누구일까?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 19:5-6).*

예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찾아오셨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교회는 일찌감치 이 사실을 깨닫고 있었다. 사도 요한의 말을 들어보자.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요 1:9-13).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모든 인류를 포함한다. 바울은 디도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딛 2:11-14).

바울이 "우리"라고 부르는 디도는 할례조차 받지 않은 헬라인이었다. 그는 바울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고 있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강조했다. 그 은혜가 "우리를 속량하시고...깨끗하게 하사...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다. 예수님께서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은 생물학적으로 맺어진 것이 아니고 은혜로 빚어진 새로운 가족이다.

베드로도 이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벧전 2:9-10).

바울과 베드로의 말을 음미해보자. 그들의 말은,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에,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뜻이다. 우리가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도저히 그의 백성이 될 수 없었던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그가 죽으셨다.

그래서 더욱 감격스럽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아가고 있었을 때, 그때 이미 예수님은 우리를 그의 백성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있었다. 우리가 죄의 진흙탕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우리를 가리키시며 '저기 내 사랑하는 백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라도 성령님께서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감동을 주시면 우리는 즉시로 복창(復唱)해야 한다. '맞습니다.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순간 전도와 선교가 시작된다.

김한요 칼럼

선교의 날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처음으로 한국에 복음이 들어간 해가 1885년입니다. 그 이후 140년 지난 지금 한국의 복음 확장력은 모든 선교 역사에 기록경신을 이루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으로 당시 조선은 고립되어 있었던 나라였습니다. 그 가운데, 일제강점기 36년과 동족의 전쟁을 치른 한국은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으며, 또한 파송한 선교사들을 후원할 만큼의 교회들이 성장하며, 세계에서 가장 규모 있는 교회 50개 중, 반 이상이 한국에 있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선교 역사에 다시 없을 만한 업적을 이루었습니다. 지금은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도로를 점유하고, 수많은 가전제품도 made in Korea일 정도로 경제적 성장도 괄목상대 할 만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성장은 희생의 열매임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로버트 토마스(Robert Jermain Thomas)는 1866년 미국의 무장된 상선 제너럴셔먼호를 타고 대동강변에 도착했지만, 배가 폭탄에 의해 좌초되고, 토마스와 일행들은 육지로 끌려와 처참하게 군인들에게 모두 참수당하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의 나이가 27세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병사에게 성경을 전해주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외치고 순교 당합니다. 기록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오 하나님, 이 사람이 자기의 하는 일을 모르오니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의 씨앗이 헛되지 않게 하소서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1885년 부활절 최초의 선교사로 한국 땅을 밟았던 언더우드 선교사는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받고 있사오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이름도 없이 생명을 바친 수많은 선교사님에 의해 교회와 학교 그리고 병원들이 세워지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경제 대국 10위권에 있으면서, 수혜국에서 시혜국으로 돌아선 가장 모범적 사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베푸는 것이 복이요, 그것이 성장의 힘이 된다는 것을 증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늘 선교의 날을 작정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결단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기대합니다. 축복의 유통자들이 되십시다. 선교의 주역들이 되십시다. 할렐루야!

부 고

2001년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난 23년 동안 LA에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섬겨왔던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담임 목회자 **채동선** 전도사(향년 63세)가
2024년 1월 15일 새벽 5시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장례 예배 일정

■ 천국환송예배
일 시: 2024년 1월 27일 (토) 오후 3시
장 소: 새생명 비전교회 (담임 강준민 목사)
4226 E. Verdant St., Los Angeles, CA 90039
집 례: 안맹호 목사 (Dana Christian Mission)

■ 하관예배 / 가족장
일 시: 2024년 1월 29일 (월) 오후 1시
장 소: Rose Hills Memorial Park
집 례: 안맹호 목사 (Dana Christian Mission)

■ 연락처: 626-786-1814 (마가교회)

■ 유가족 부인: 채은미 사모
형: 채동진 형수: 채성희
조카: 채단비 조카사위: Henry Lam
조카: 채샘물 조카사위: David Kim
여동생: 채미아
조카: Amber Schiattone
여동생: 조정아 매제: David Jo
조카: Timothy Jo 조카며느리: Diana Jo
조카: Abigail Jo
조카: Rachel Jo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교우 및 유가족 일동

*개별 부고는 생략합니다.
*근조 화환은 정중히 사절합니다.

민종기 칼럼

예수의 흔적을 구했던 고 채동선 전도사



민 종 기 목사
충현선교교회 원로
KCMUSA 이사장

2023년 6월 어느 날입니다. 함께 교회를 섬기던 최 집사님이 "한인연합센터"(Korean American Community Coalition)를 창립하신다 해서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방문한 사무실이 마가교회 안이었습니다. 마가교회의 담임 채동선 전도사님이 오셔서 즐거이 축복하셨고, 인사를 나누며 감사를 전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두서너 달 전, 타운의 한 식당에서 우연히 만나 우리 모임이 전도사님 일행의 식대를 대납했는데, 전도사님이 갑자기 고인이 되셨다니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마가교회와 가까이 지내시는 한인연합센터 최 집사님의 이야기로는, 작년 말에 말기 암 판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굴이 좀 검다 싶었는데, 전도사님은 위암이 간암으로 전이되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위가 안 좋아서 4년 동안 소화제만 먹었다는 이야기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 집사님은 그동안도 교회 안의 사무실을 무료로 사용하고 교회 시설을 이용하여 모임을 주재할 수 있었습니다.

마가교회, 곧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는 자신이 가난하게 되어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만들었습니다. 채 전도사님은 나그네 된 사람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거처를 제공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종종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기댈 언덕이 되셨습니다. 힘든 사람들이 모여 가족적인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채 전도사님이 젊은 시절에 회사의 파산을 체험하고 우울증으로 약물에 빠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난 목회 시절 동안 거처가 불분명한 사람, 경제적 파산자, 알콜 중독자와 주변의 청소년들을 찾아 함께 식사하고 상담했습니다. 매달 개스비가 약 1,500불이었다고 하니, 전도사님은 발로 뛰는 목회를 하셨습니다.

채 전도사님의 가문은 기독교적 전통이 깊은 가정입니다. 증조부는 일본 강점기 시절 신사참배를 거부한 채정민 목사입니다. 조부는 한국 총신대에서 헌법과 교회사를 가르치며 여러 교회의 분쟁을 중재할 뿐 아니라, 한때 기독신보 주필이었던 채기은 목사님입니다. 부모님과 형제 자매와 조카들이 50명이나 되는 대가족인데, 가족 모임은 즐겨 가시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가족으로 삼아 도왔습니다. 히스패닉 교회, 몽골 교회, 합창팀, 서비스센터, 선교사님들이 묵어가는 장소, 침술 선교, 심지어는 다른 교회와 예배실 및 파킹장을 즐거이 공유하는 놀라운 관대함을 가졌습니다. 마가교회는 상당한 액수의 렌트비를 지불하면서도, 다른 단체들은 좌, 우파를 불문하고 무료로 쓰게 했습니다.

목사님을 지원하며 섬기는 사모님은 얼마나 더 수고가 많으셨겠습니까? 영주권을 내려는 사람들을 위하여 약 30명의 재정지원을 하셔서, 나중에는 이민국에서 재정보증을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22년 동안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교역자들과 같이 유무상통하며 10여 년을 같이 살았기에, 그들이 가족이 되었습니다. 사모님은 검안의로서 높은 연봉을 받아 모든 사역에 투자하셨습니다. 전도사님 부부는 "남 좋은 일 해주는 도사", "자기 것 챙기는 데는 어린아이"였습니다. 이웃 사랑을 위해 "쓰는 데는 박사", "거두는 일에는 바보"였습니다.

병든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하던 사모님은 "예수님, 주님 동생이잖아요, 살려주세요!" 간구하셨다고 합니다. 생명의 불빛이 꺼져가는 전도사님을 보며 걱정하는 성도들을 오히려 위로하시며, "전도사님 돌아가시면 난 부자 돼요", "전도사님이 안 쓰면 돈 모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라며 교회의 도움을 거절하셨다고 합니다.

알콜 중독과 우울증, 마약과 수차례 자살 시도를 예수로 극복한 전도사님은 목회를 선택하였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의 공동체는 "나의 흔적"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흔적"을 남기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교회와 채은미 사모님 위에 예수와 성령의 위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윤임상 교수의 교회음악 이야기

어찌 찬양 안할까(How can I keep from singing)



윤 임 상 교수
월드미션대학교
음악학과장

해마다 3월 17일이면 성 패트릭 데이 (St. Patrick's Day)로서 이곳 미국에서는 휴일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이날은 5세기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 (St. Patrick, 386-461) 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초록색 계통의 옷을 입고, 세상은 온갖 초록으로 물듭니다, 특히 삼위일체를 상징하는 세 잎 클로버로 디쟈인된 초록의 물품들이 유난히 눈에 뜨여 인상에 남는 날이기도 합니다.

패트릭은 원래 로마계 브리티시 영국 사람입니다. 그의 나이 16살에 아일랜트 켈트족 (Celts) 해적들에게 납치당해 아일랜드에서 노예 생활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때 그는 비록 혹독한 노예 생활 속에 육체적 고통이 심했지만, 그 속에서 자연스럽게 게일어와 아일랜드 관습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연세계를 보며 놀라운 회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몇 년 후 그는 노예 생활에서 탈출하여 본국으로 돌아갔지만, 자신을 힘들게 했던 아일랜드 켈트족을 품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기로 하고 훈련을 받고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을 아일랜드에서 복음 전도자로 사역하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후대에 성인의 칭호를 받게 된 것입니다.

성 패트릭과 깊은 연관이 있는 우리의 찬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Be Thou My Vision) 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의 찬양 가운데 소망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찬송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찬송에 보면 일반적으로 작곡가와 작사가의 이름이 속하는 곳에 "Irish Melody" 및 "Anonymous"와 같은 모호한 항목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그 내면에 바로 패트릭의 사역을 반영한 가운데 이 곡이 만들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AD 43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해 부활절 일요일에 현지 아일랜드 왕은 누구도 불꽃이나 촛불을 켜는 것을 금지하는 이교 드루이드 축제(Druid Festival)를 갖는 법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누구도 존경하지 않는 패트릭은 이것에 반기를 세우며 목숨을 걸고 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슬레인 언덕(Slane Hill)에 올라가 거대한 불을 피웠습니다. 고대 아일랜드 사람들이 깨어났을 때 그들은 모두 패트릭이 왕에게 반항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빛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빛이 어둠 속에서도 빛나며 오직 그분만이 찬양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몇 년 후, 무명의 작곡가가 이 패트릭의 영웅적 행위를 기리기 위해 멜로디를 썼습니다.

멜로디 뒤에 숨겨진 이야기는 전설적이지만, 가사 뒤에 숨겨진 역사는 조금 더 모호합니다. 전통에 따르면 6세기 아일랜드 시인 성 달리안 포게일(St. Dallán Forgail, C.560-640)이 성 패트릭을 기리기 위해 "Rop tú mo Baile"이라는 제목의 게일 시를 썼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포게일의 시 사본은 14세기에 나온 것으로, 저자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습니다. 포게일과 시를 연결하는 다른 역사적 증거가 없기 때문에 "Be Thou My Vision" 가사의 실제 출처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이 노래를 "무명(Anonymous)"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Slane"과 "Rop tú mo Baile"은 모호해졌습니다. 그러나 성 패트릭이 슬레인 언덕에 불을 붙인 지 거의 1500년이 지난 1905년에 잊혀진 찬송가가 시간의 안개 속에서 다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25세의 대학생 메리 번(Mary Elizabeth Byrne, 1880-1931))은 14세기 사본 "Rop tú mo Baile"을 발견하고 처음 영어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오늘날 우리의 유명한 찬송가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이 찬송이 주는 분명한 교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산 소망을 일깨우게 합니다. 벧전1:3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 에서 베드로는 크리스천 유대인들에게 산 소망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이것이 성자 패트릭이 당시 서슬 퍼런 최고의 권위자 아일렌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스도 복음의 횃불을 환히 밝히게 된 근원이었던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기독교의 자기 부인은 스토아 철학에서 말하는 무감한 상태(Apathy)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합법적인 목적들을 추구하되 하나님을 그 보다 앞세울 준비가 되어있는 마음가짐을 뜻한다고 이야기 합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보면 이 루이스가 말하는 이론이 성립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 속에 절규하며 "내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마 26:39절 중반) 기도합니다. 하지만 결국 예수께서 하나님의 원리에 절대 순종하며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마 26:39절 후반) 고백하는 이론에서 말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산 소망을 소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참 소망을 붙들고 주어진 일들에 열심히 노력하며 모든 조건에서 평화를 만들고, 감사를 만들고 그리고 소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비록 환경이 평화를, 감사를, 그리고 소망을 고백할 수 없는 환경일지라도 말입니다. 이 때 우리는 "내 맘의 주여 소망 되소서 (Be Thou My Vision) 라는 찬송을 진정성 있게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4 미주기독 대학박람회

TALBOT SCHOOL OF THEOLOGY BIOLA UNIVERSITY
신입생 모집
탈봇신학교 한국어 목회학박사 학위과정
Korean Doctor of Ministry
• 세계 최고의 교수진
• 영성 형성 집중 프로그램
• 실용적인 사역 대비
• 오프라인 수업
• 미국 비자 (I-20) 발급
카카오톡 채널: "탈봇" 검색
유튜브: "탈봇신학교" 검색
Email: talbot.korean.dmin@biola.edu
13800 Biola Avenue, La Mirada, CA 90639 | Tel : 562-903-4705

미 성 대 학 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학과(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자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사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조성호 박사 T(626)227-3454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이상훈 박사,
1204 W. 163rd St.Gardena, CA 90247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인터넷 홈페이지 www.mbts.edu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한국부
- 남침례교 6대 신학교(HLC & ATS 인가)
- 100% 한국어
- I-20 발급
- 저렴한 등록금과 장학 혜택
성경사역학철학박사
목회학석사
교육목회학박사
목회학박사
5001 North Oak Trafficeway., Kansas City, MO 64118
Tel.(816)414-3754 Email:ks@mbts.edu

미주장로회신대학교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 ATS, ABHE 정회원
- 온•오프라인 통합 블렌디드 수업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학자금 지원 (Cal & Pell Grants)
- 학부 | 신학, 글로벌경영학, 가정상담학, 교육학, 중국어 신학
- 석사 | 목회학, 목회학 원목집중과정, 목회학 코칭집중과정, 선교학, 상담심리학, 전문코칭학, 중국어 선교학, English M.Div.
- 박사 | 목회학, 선교학박사, 선교학철학박사, 상담심리학
입학문의 (562) 926-1023, ext. 300 www.ptsa.edu
주 소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 ABHE, ATS 정회원
■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가능
■ 온캠퍼스와 온라인 프로그램
■ 신학, 상담학, 음악학, 간호학, 글로벌리더십 학위과정
■ 유아교육, 가정사역, 비영리단체사역 수료과정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213)388-1000 Fax:(213)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복 음 대 학 교
Evangelical University
▪TRACS 정회원 인준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714)527-0691(0692) Fax:(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GATEWAY SEMINARY
Biblical • Missional • Global
게이트웨이신학대학원에서
한영 이중언어과정 학생을 모집합니다.
학위과정 - 목회학석사(M.DIV.) & 신학석사 (M.T.S)
상담문의 : 714-256-1311 EXT.24 / KEB@GGTS.EDU
WWW.GGBTS.EDU / KEB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AZUSA PACIFIC UNIVERSITY
Azusa Pacific Seminary
Transform the World with Christ
LA·오렌지 캠퍼스 M.DIV. M.A. D.MIN.
아주사 퍼시픽 신학대학원
입학문의 : T.(626)857-2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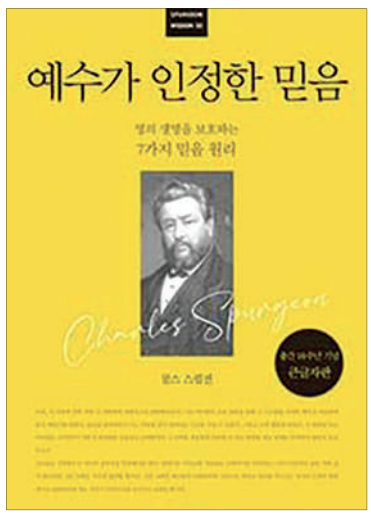
글로벌침례신학교
Global Baptist Theological Institution & Seminary
미래의 하나님의 일꾼을 양성하는 요람
목회자와 교사의 사명이 다시 살아나는
Re-Vital Online Program
www.gbtis.org
학교주소 | 3108 Valley View Ln, Farmers Branch, TX 75234
이메일 | aurahelio@gmail.com
전화 | 508-826-5145

FULLER THEOLOGICAL SEMINARY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www.itsla.edu
ITS 신학대학원
International Theological Seminary
"미국연방인가기관 ATS정회원" 2006년 취득
▪MATS 선교학 석사 ▪M.Div 목회학석사
▪Th.M 신학석사 ▪D.Min 목회학박사
100% 온라인 ATS인가 학위 • 온라인 수업 제공
문의(626) 653 9547 EXT.# 112/admin.kor@itsla.edu

'예수가 인정한 믿음' 가지고 싶다면

'믿음이 좋다'는 말, 무슨 의미일까?



예수가 인정한 믿음

찰스 스펄전 | 송용자 역
터치북스 | 208쪽

신앙의 핵심은
믿음에서 시작하여
믿음으로 끝마치는
'믿음의 길' 이다

우리 주변엔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는 성도가 있다. 많은 경우 교회에서 요구하는 봉사와 섬김의 기회마다 빠짐없이 참석하여 헌신하는 성도들이 그런 평가를 받는다.

새벽부터 나와 기도하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소리로 뜨겁게 찬양하면, 사람들에게 '믿음이 좋다'는 말을 듣게 된다. 또는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우직하게 신앙을 지키는 사람에게 '믿음이 좋다'는 말을 한다. 믿음이 흔들릴 만한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견고하게 서 있는 믿음을 가졌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믿음이 좋다'는 평가를 내릴 때, 그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믿음의 크기를 계산하려 한다. 그 사람이 무엇을 믿고 누구를 의지하고 왜 신뢰하는지를 알고 싶어하기보다, 그것과 상관없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의 퍼포먼스를 보이는지를 보고 싶어한다. 중요한 건 예수님은 그런 기준으로 우리 믿음을 평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다.

터치북스에서 2023년 '큰 글자판'으로 새롭게 출간 10주년을 기념해 재출간한 '스펄전 위즈덤 시리즈' 마지막 책 〈예수가 인정한 믿음: 영의 생명을 보호하는 7가지 믿음 원리〉가 마침내 나왔다. 설교의 황제 스펄전의 명설교 중에서도 특별히 믿음과 관련된 설교를 7편 선정하여 책으로 구성한 것이다.

①열매로 드러나는 믿음(마 21:17-20) ②뿌리가 깊은 믿음(막 4:17), ③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마 7:24-27) ④영원한 생명과 항상 연결된 믿음(딤전 6:12) ⑤하늘에서 난 믿음(요 3:3) ⑥꾸밈없는 순전한 믿음(눅 12:1) ⑦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요 15:5).

19세기 영국 메트로폴리탄 타버나클 교회에서 31년간 수천 명의 성도를 돌보고 말씀으로 양육했던 찰스 스펄전은 성경 본문에 대한 확신과 성도를 향한 사랑을 기반으로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든지 지혜와 감동이 있는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믿음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참 믿음으로 빚어갈 수 있도록 돕는 탁월한 설교가 수록되었다.

스펄전이 가진 은사의 탁월함은 한 구절 안에서도 본문이 담고 있는 영적 의미를 충분히 발견하여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폭넓게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 비유적 표현으로 생생하게 청자에게 전달한다.

가령 스펄전은 참 믿음이 열매로 드러난다고 말하면서, 무화과나무 사건을 가지고 설명한다. 무화과는 먼저 열매가 열리고 잎이 나는데, 예수님이 꾸짖은 나무는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다. 이를 통해 스펄전은 겉으로 탁월하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 무조건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성장의 일반적인 법칙'을 따르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이 진짜를 가리키는 열매가 아니라, 삶의 전반에 드러나는 '경건함'이 있어야 일반적인 성장 법칙에 따른 열매를 건강하게 맺는 것이다. 스펄전은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좋은 밭의 비유) 안에서 믿음의 법칙을 또 발견한다.

'뿌리가 깊은 믿음'. 이는 말씀을 받는 밭의 상태를 설명하신 것이지만, 스펄전은 이 말씀을 통해 열매 맺는 참 믿음은 환난과 박해에 넘어지는 믿음이 아니라 뿌리가 깊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고 가르친다.

그는 이렇게 호소한다. "외적인 것들에 의존하는 가엾은 자들이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런 악에서 건져주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과 구별되기를 기도한다. 참되고 견고하며, 모든 고난에 대해 인내하면서, 뿌리를 깊이 내리기를 간절히 기도한다(54쪽)!" 스펄전은 이렇게 청자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한다.

참 믿음은 굳건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한다. 믿음은 철저히 주관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한다. 또한 참 믿음은 하늘에서 주시는 선물로 영생의 소망을 지향한다. 믿음의 출처가 세속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이 바라보는 것도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야 한다.

참 믿음은 순수하여 위선적인 신앙을 도저히 가질 수 없게 만들고, 참 믿음은 끝까지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분만을 의지하는 믿음이다.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몇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셨고, 또 재림하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다(눅 18:8).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갖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발견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바란다. 믿음의 결국은 우리 영혼의 구원이고(벧전 1:9),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히 11:6). 스펄전의 탁월한 설교가 담긴 〈예수가 인정한 믿음〉을 읽는 모든 독자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원한다. 자기를 보호하고 다른 이를 생명으로 이끄는 참 믿음이 지금 우리에겐 절실히 필요하다.

조정의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인

[1월, 작가들의 말말말]



▣ 임동수 - 고맙다, 오늘도 버텨주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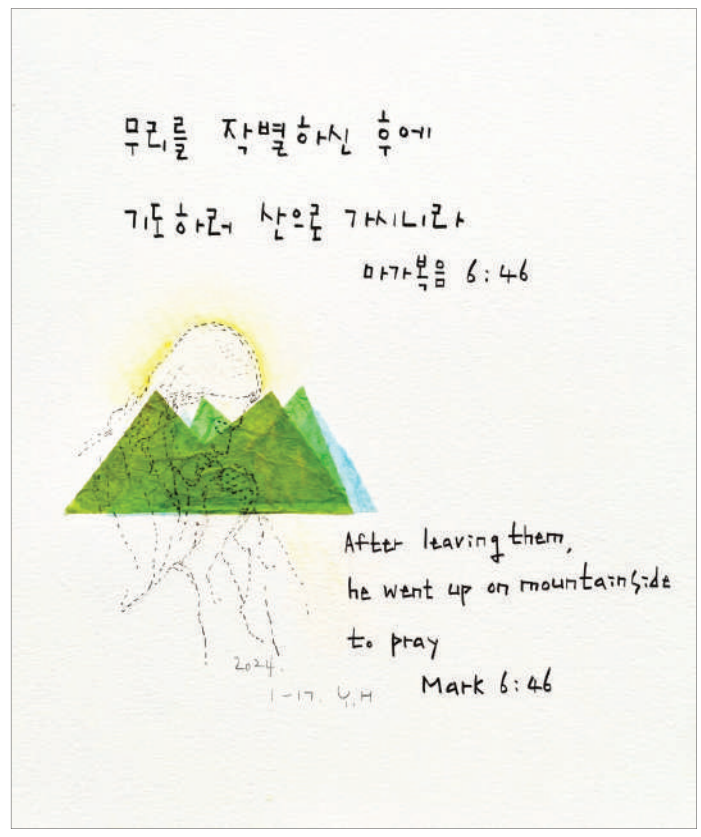
우리는 종종 굴러떨어집니다. 심지어 오늘도 한참을 내 맘대로 기어오르다 떨어지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쿵 하고 부딪친 내 머리를 쓰다듬은 따스한 손길을 느낀다면 우리는 울며 다시 안길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고, 비록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주님이 하셨음을 다시 승리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스스로 해결하려 발버둥쳤던 시간들의 수고를 이제는 내려놓습니다. 능하신 주님, 당신만이 온전한 치유자 되심을 믿습니다. 결코 완전할 수 없는, '나'라는 한 인간의 삶에 대한 실망으로 좌절하는 그 시간에 나는 오히려 그런 나를 보시는 주님의 눈을 바라보겠습니다. 모든 순간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럴 자격도, 염치도 없는, 나의 유일한 거룩한 핑계요, 이유입니다.

▣ 서창희 - 하나님의 성격 수업



하나님의 성격 수업의 핵심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격을 분석하는 데서 멈추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성격은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격에도 거듭남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성격도 죄로 인해 타락하여 오염되어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이 내게 보여주신 성품을 통해 내 자신의 성품을 완전히 다시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자신의 성격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품을 창조하시고, 성품의 완전함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성격은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하신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날 때 거듭나고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주의 말씀묵상 | 김영희 권사



담임목사 청빙 공고

올 네이션스 교회는 PCA(Presbyterian Church in America) 수도 노회에 소속된 교회로서 버지니아 주(VA), 비엔나에 위치하고 있으며, Kingdom Dream (수백명 선교사 파송, 2세교육, 지교회 설립)의 사명과 비전을 가진 교회입니다. 이에 선교의 비전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이끌어가실 새로운 담임목사님을 찾고 있습니다.

1. 자격 요건
-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 목회경력(Full Time) 5년 및 그에 준하는 경력을 가지신 분
- 한국어와 영어, 소통이 가능하신 분
- 미국 PCA 교단에 소속되어 있거나, 가입이 가능하신 분
- 미국 거주 및 사역에 법적인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 서류
- 이력서 – 중요 경력 포함
- 목사안수 증명서 및 최종 졸업(학위) 증명서
- 목회철학과 비전 (Letter Size – 2장 이내로)
- 추천서 (2명이상– 소속노회, 시무교회 각 1부)
- 자기소개서 (신앙고백, 목회경험, 성장배경, 가족소개: Letter Size – 2장 이내로)
- 6개월 이내의 한국어 설교 동영상 2개 이상(YouTube 및 인터넷 링크 제출요, Required)
- 6개월 이내의 영어 설교 동영상 (선택 사항, Optional)
- 가족사진

3. 제출 방법: 이메일 및 우편
- Email: CFANinVA@gmail.com
- Mail: (Attn: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The Church for All Nations 8526 Amanda Pl., Vienna, VA 22180)

4. 제출 기간: 1차 마감 4월 30일까지

5. 기타
- 제출된 서류는 비밀이 보장되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선임된 분은 개별 통지합니다.

올 네이션스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www.thecfan.com

집안의 대를 이어 나가는 마음으로
고객에게 최선을 다합니다!

할머니 손 맛 그대로!
48시간동안 우려낸 진한 국물 맛!
최고급 고기만을 엄선!

송영 툼크 설렁탕

단체주문 환영
T.(213)277-1339

2717 W Olympic Blvd. #108 LA, CA 90006(구) 베버리순두부 자리

BTS SOLAR DESIGN

태양광, 솔라!!

주택용, 30% Tax Credit / 상업용, 최대 80% Tax Benefit

2024년 대박



상업용 건물,
Tax Benefit
60%~ 80%

연방 ITC : 30% 이상
쏠라 설비의 감가상각비 중
60%를 다음해에
공제 가능 (2024년 설치 시)

- 원금 회수기간: 3년 ~ 6년
- 전기료 절감: 최대 90%

100% Made in USA

SCAN ME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솔라 설치 가능

Why Solar?

(왜 태양광을 설치해야 하는가?)

- 주택, 커머셜, 교회 등 설치 가능
- 최고 성능의 패널 사용
- Zero Down Payment (PPA의 경우)
- 전기료 50~90% 절감
- EV Car 사용자 Outlet Free

Lic#854389

BTS Solar Design Inc. T. 213-500-8000



ADU 전문

리모델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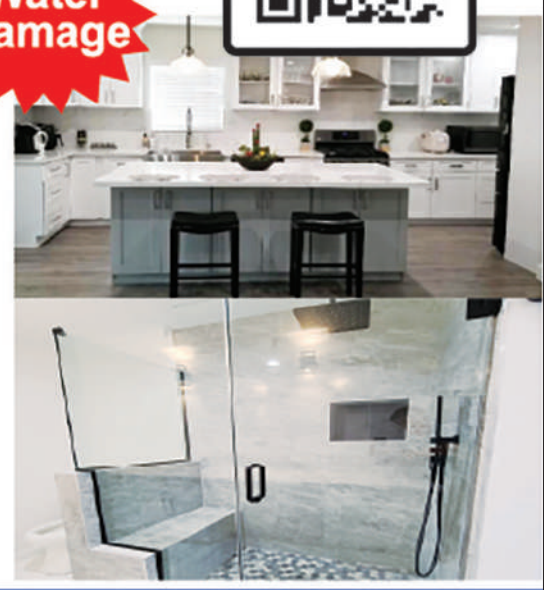
실제 작업 사진 보러가기



Kitchen & Bath 완전 리모델링

실내구조 변경 | 집수리 일체 | 디자인/설계/시공

Water Damage



- 1~2명이 일하는 시스템이 아니고, 각 분야별로 2~3명이 조를 이루어 Crew가 일을 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하고 빠릅니다.
- 마루시공팀, Kitchen팀, Bathroom팀, Counter Top팀, 페인팅팀, Carpentry팀, 전기팀, Low Voltage음향팀, Plumbing팀, Window팀, Councrete팀, Stacco팀 Roofing팀, Solar시공팀, 철공게이트팀, 지진대비 보강공사팀, 디자인설계팀 (하청없이 직영팀으로만 운영합니다.)
- Kitchen 완전 리모델링 4-5일 완성 / Bathroom 완전 리모델링 5-6일 완성

"23년 건축의 달인과 지금 상담해 보세요"

방문시 예약해 주세요!

Lic#854389 Abundance Design & Construction

K-Urban Builders Inc.

견적상담 LA 213.310.1800
2621 W. Olympic Blvd. #205 Los Angeles, CA 90006

견적상담 OC 949-781-9111
Show Room 6904 Oran Cir. Buena Park, CA 90621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WWW.CHDAILY.COM THURSDAY, January 26, 2024 Vol. 900 B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 역할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인규 목사
미주 기독일보 대표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독일보가 지난 20년 동안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독 언론 정론지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편집 고문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교계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고, 복음을 실어 나르는 통로 역할을 성실히 담당해 온 기자님들과 편집자님, 신문을 더욱 빛나게 만들어 주신 디자이너님들과 인쇄, 배송 등 모든 직원들의 수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독일보는 창간 이래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라는 표어와 함께 문서선교와 성경적 가치 수호, 화해와 일치, 그리고 기독교 문화 창달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또한, 빠른 감각을 기초로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진 온/오프라인 기독교 언론으로서 교계의 연합과 발전, 부흥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종교 자유, 북한 인권을 비롯해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등의 이슈들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세속주의의 도전에 맞서 성경적 진리를 수호하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해 왔습니다.

나아가 연약한 교회를 함께 일으켜 세우는 위브릿지 사역, 차세대 신앙 전수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성경 필사 사역에 이르기까지 약한 자를 섬기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사역에도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흘려온 수많은 땀과 눈물을 뒤로하고 진리의 파수꾼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삼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파자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0년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20년을 기대합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앞으로의 시간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선포되고,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이 온 세상에 전파되길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주 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



박기호 교수
풀러신학교 선교대학원
아시아 선교학 원로교수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기독일보를 축하드립니다. 창간 예배를 드린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전 기독일보 설립예배가 드려질 때 나는 누가복음 8장 8-14절 말씀을 읽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제목 아래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신문(新聞, newspaper)은 대중에게 다양한 소식과 사건들을 전달해 주는 정기 간행물의 한 종류입니다. 신문은 다양한 소식과 사건들을 전딜하여 주는 매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소식들 가운데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소식이 있고 사람들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좋지 않은 소식이 있습니다.

천사들이 양치던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good tidings of great joy)이었듯이 (눅 2:10),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 이었듯이 (눅 2:14) 저는 기독일보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매체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평화를 가져다 주는 신문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전했던 기억이 납니다.

기독일보가 창간되면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는 기독일보의 기사들을 관심을 갖고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기독일보가 전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매우 유익한 신문으로 성장해온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그 동안 기독일보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시드리며 기독일보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신실한 스텝들에게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성령이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을 모토로 창간되어 오늘 20주년을 맞이한 기독일보가 그 동안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온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는 신문이 되어주리라 믿습니다.

이인규 사장의 비전과 헌신으로 기독일보는 크게 발전하였고 단순히 소식과 사건들을 전하는 하나의 기독교 신문으로 역할 뿐 아니라 미주한인사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긍정적인 기여를 해왔다고 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큰 교회들과 작은 교회들을 잇는 위브릿지 사역을 통하여 한인사회의 바람직한 영적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고 있고 차세대 아이들이 부모의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성경 필사 장학생도 행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사역들로 칭찬하지 아니할 수 없는 기독일보의 독특한 공헌입니다.

기독일보 직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오늘날과 같은 발전을 이루심을 치하드립니다.

계속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미주에 사는 한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쁨이 되는 신문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잘 달려 왔습니다



송정명 목사
미주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 회장

미주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미주 이민 사회에서 20년 동안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며, 특히 기독교 언론으로 교계 신문의 일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이민 목회 현장에서 통용되는 "크레딧"(credit)을 주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목회자가 같은교회를 10년 정도 섬겨 왔다면 그 목회자에게는 크레딧을 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일보가 2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인터넷과 지면 신문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며 성장해왔다는 것은 큰 credit을 가질만한 일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이 일을 묵묵하게 감당해온 이인규 사장님과 섬겨온 직원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기독일보가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창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해온 것은 이인규 사장님과 기독일보 직원들의 헌신과 노고 덕분입니다.

이제는 이민 사회 뿐만 아니라 지구촌 구석구석 까지 문서 선교의 한 모퉁이를 감당 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사역도 창안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든든해 집니다.

감사한 것은 교계 대소 행사 현장에는 가독일보 취재기자가 꼭 참석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뉴스의 현장성을 중시하고 신속한 보도 자료를 확보하겠다는 언론의 기본 자세도 갖추고 있어 귀하게 보입니다.

미주기독일보와 이인규 사장님, 그리고 모든 직원들에게 뜨거운 박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기독언론의 소중한 사명을 잘 이끌어 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다른 20년 동안도 알차고 귀한 소식들을 전해주실 것을 기대하며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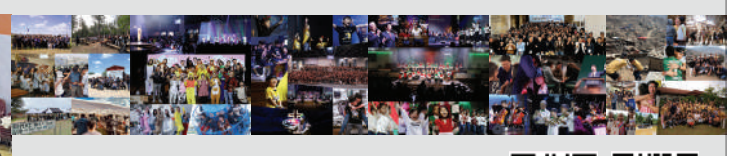
•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

주일예배
1부 : 주일 오전 9시 15분 (캐롤튼)
2부 : 주일 오전 11시 00분 (캐롤튼)
3부 : 주일 오후 12시 45분 (노스캠퍼스)
Bridgeworld Church : Morning at 10AM (North Campus)
세미한영어예배 (English Service) : Morning at 11:15 AM (Markers Hall)

주중예배
금요성령집회 : 금요일 오후 7시 (본당)
새벽기도회 (화-금) : 오전 6시 (본당)
목장모임 : 목장이 정한시간
청년부 예배 : 토요일 오후 7시 (본당)
향기로운 수요여성예배 : 매 주 수요일 오전 10시 (연중 봄/가을학기 중)

다음세대예배
주일 영아부 예배 (SPROUT)
- 매달 둘째주일 2부 예배 후
유치부예배 (DREAM KID)
유초등부예배 (TEAM KID)
청소년부 예배 (POWER YOUTH)
- 1부 : 주일 오전 9시 15분 (캐롤튼)
- 2부 : 주일 오전 11시 00분 (캐롤튼)
- 3부 : 주일 오후 12시 45분 (노스캠퍼스)
동그라미(장애인)예배
- 주일 오전 11시 00분 (에벤에셀홀)
유치부선교학교 (미션프랜즈)
유초등부선교학교 (CIA/Awana)
- 금요일 오후 7시
카란 어린이 합창단
- 주일 오후 1시 (에벤에셀홀)





2024 Overflowing Worship
다장넘는 예배

세미한교회 홈페이지
세미한교회 Youtube



세미한교회 SEMIHAN CHURCH
담임목사 이은상

캐롤튼
1615 W Belt Line Rd,
Carrollton TX 75006

노스캠퍼스
9750 John W. Elliott Dr,
Frisco, TX 75034

Bridgeworld Church
9750 John W. Elliott Dr,
Frisco, TX 75034

세미한의 5대 비전
(W.O.R.L.D.)
Worshiping Church : 예배하는 교회 – 예배사역
Oikos Church : 소그룹 교회 – 소그룹(목장)/친교사역
Reaching Out Church : 돕는 교회 – 구제/봉사사역
Life Giving Church : 살리는 교회 – 선교/전도사역
Discipling Church : 제자삼는 교회 – 교육사역

창간 20주년 축사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는 실천하는 언론



최영봉 목사
남가주 기독교회협의회
회장

안녕하세요. 남가주 1400개 교회와 성도님들 그리고 동역자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남가주 제 54대 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최영봉 목사 인사 올립니다.

이번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맞이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기독일보는 남가주는 물론이요 전 세계적으로 문서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총력을 다하고 있는 남가주 교계를 대표하는 기독신문입니다.

또한 오늘날에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또한 성경필사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는 사역을 펼치며 지역사회와 동포사회에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일보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정신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기독일보의 미래에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섭리하심이 더 광대하리라 믿고 더욱 더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기독일보와 이인규 목사님과 그리고 수고하시는 모든 직원들과 동역자분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민자에게 복음의 소식 전하는 기독일보



국윤권 목사
충현선교교회 담임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선교를 통해 한인 사회에 복음을 전하므로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을 성실히 섬겨온 기독일보에 기쁨과 감사와 말씀을 전합니다. 특히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팬데믹 가운데 기독일보의 역할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교회가 움츠려 있을 때 기독일보는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감당해 주었습니다.

앞으로 이민자들에게 복음으로 소망을 전하고 교회와 세계 가운데 기쁨과 자랑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기독일보



송태섭 목사
사단법인
한국교회연합 대표

미주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단순이 긴 역사의 순간들이 아니라 한 생명의 무한한 가능성을 품은 성숙한 성인으로 거듭나는 카이로스적 순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질적인 도약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시대의 도전 앞에서 작은 교회를 지원하고 교회 간에 연합과 협력을 촉진시키는 위브릿지 사역을 시작해 오늘까지 성공적으로 이끌려 오신 일이나 다음 세대를 지혜로운 말씀으로 무장시켜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양성하는 성경필사 사역을 진행하신 일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감을 주었으며 앞으로 기독일보가 해 나가는 사역에 대해 큰 기대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성인의 나이를 접어둔 만큼 더 큰 믿음과 열정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지키고 잠든 성도를 깨워 그리스도의 강인한 군사로 서게 하고 거짓된 세상에 맞서 참된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데 앞장 서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이 미주기독일보 새로운 장을 장식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성경적 가치로 미주 사회 이끌어



권혁빈 목사
씨드교회 담임

미주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함께 축하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일보가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지식을 제공해 왔는지 저는 다 알 수도, 헤아릴수도 없습니다. 미주지역의 교회들과 성도들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고 깊은 신앙과 지혜로 인도해 주었으며 매일의 삶속에서 성경의 원리와 가치를 살아가도록 여러분이 도와주었습니다.

많은 수고와 헌신으로 달려오신 이인규 목사님과 또한 함께 하시는 동역자 한분 한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실천



천환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제41회 대표회장

할렐루야 새해 복을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독일보의 지난 20년 동안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선한 일에 수고하신 모든분들에게 축하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독일보가 지난 20년 동안에 보여준 헌신과 또 선의의 경의를 표합니다.

기독일보는 단순한 뉴스 전달을 넘어서 신앙과 사회에 연결고리로써 막중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년 동안에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며 독자들에게 신앙의 본질과 사회적 가치에 대해서 성찰할 기회를 넉넉하게 제공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같은 불확실한 시대에 기독일보는 더욱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사람들이 고립감을 느끼는 가운데 기독일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서 커뮤니티를 연결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또한 위브릿지 사역과 같은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소외된 작은 교회에 손을 내밀고 또 낙담된 목회자를 일으켜 세우고 무너진 교회들을 건강한 교회로 세워가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다음 세대를 대상으로 성경 필사 장학생 모집 사역을 통해 다음세대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은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독일보가 이렇게 세상의 빛의 역할과 중요한 역할을 지속할 수 있는 이 아름다운 헌신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실천해 내는 소중한 복음전파의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증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해 주신 하나님께도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 특별한 날, 언론의 정론 그리고 바른 신앙과 신학 추구, 그리고 사회와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모범적인 사역을 담당해 주신 기독일보가 더욱 힘차게 비약하는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맞이하기까지 선한 수고와 헌신을 높이 자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안에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창간 20주년 축사

복음을 지키는 파숫꾼 되길



진유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기독일보의 창립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이라는 비전 아래 지난 20년간 한결같이 교회를 위해 헌신한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세상 속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오직 복음뿐입니다. 기독언론의 사명은 이 복음을 전하는 나팔수이자, 이 복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서 교회의 사역과 연합을 돕는 일입니다.

기독일보는 미주 각 지역을 비롯해 전 세계 교회들의 소식을 발빠르게 전할 뿐 아니라, 교회가 공동으로 기도하며 대처해야 할 사안들에 대한 여론을 조성함으로써 그 책임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룬 것에 만족하지 말고 교회가 마지막 때 복음 전파와 세계 선교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그것을 듣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주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있어야 그 이름을 듣고 부르며 구원받는 자도 있다는 뜻입니다.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기독일보가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는 사명을 분명히 하고 한 단계 도약하여 하나님의 더 큰 칭찬과 상을 받길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샬롬.

진리와 뉴스를 빠르고 따뜻하게 전하는 기독일보



김한요 목사
베델교회 담임

독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언론의 역할이 그러하듯이 항상 사실과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이유도 참된 진리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가 어두운 소식들로 참 부정적인 소식들로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틀린 소식들로 가짜 뉴스로 판을 치는 참으로 암울한 사회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오셔서 어둠을 밝히시는 참된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오셨는데 이를 바로 전하고 신속하게 전하고 그리고 따뜻하게 전하는 기독일보의 창간과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의 수고는 정말로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라고 믿습니다. 계속되는 이 귀한 언론의 역할 참된 진리와 이 뉴스를 빠르고 따뜻하게 전하는 일에 계속해서 쓰임 받는 귀한 우리 기독일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런 대사 역할한 기독 정론지



민종기 목사
재미한인기독선교재단 이사장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독일보가 발간된 지 벌써 20년이 지났음을 기념하며 축하를 보냅니다. 그동안 열정적인 마음과 일관된 열심으로 귀한 노력을 다하신 사장 이인규 목사님과 모든 직원 위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일보가 20년 동안 이민 사회의 기독교 정론지로서 하나님의 영광스런 대사가 되어 복음과 즐거운 소식을 전파한 것은 이민 사회를 위한 값진 공헌이었습니다. 더욱이 교회 성도들을 겨울날의 따끈한 티와 같이 위로하고, 여름날의 냉수와 같이 시원하게 하신 귀한 섬김으로 우리 왕 예수 그리스도의 나팔이 되셨던 것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다.

지금도 큰 교회와 작은 교회를 사랑과 물질로 맺어주는 작은 교회 돕기 운동의 공동체적 사역을 통해서, 또한 차세대들이 성경을 읽는 삶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펼치는 모든 사역을 보면서 감사합니다.

매스컴이 언어로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도모하는 것에 찬사를 보냅니다. 이는 참으로 보기 드문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척박한 이민 사회 기독 언론의 현실 속에서, 좋은 기독 정론지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늘 형통하시고 귀한 언론의 모범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21년 22년의 역사가 쌓일수록 많은 칭송이 구름처럼 일어나며,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이 신문사와 모든 기자 및 동역자 위에 이슬을 머금은 안개처럼 덮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동행하심과 보호와 사랑의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격려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20년



궁인 목사
휴스턴 새누리교회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미주 기독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일보는 지난 20년 동안 기독교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톡톡히 수행해 왔으며, 이를 통해 한인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과 세계 각지의 기독교 신자들에게 소중한 정보를 전달해 왔습니다.

한인 교회에게 뿐만 아니라 한국과 미국을 아우르는 다양한 지역의 기독교 소식을 전달함으로써, 기독일보는 기독교 공동체의 소통의 다리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지역의 기독교 신자들이 서로의 소식을 나누며 공감하고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미디어 사회에서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쏟아지는 현대 사회에서, 기독일보는 신뢰성 있는 기독교 소식을 제공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안정된 지식의 출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디어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는 시대에, 기독일보는 더 많은 책임을 맡아 미디어의 중심에서 신뢰와 정보를 전달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20주년을 맞아 우리는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온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미주 기독일보를 통해 많은 독자 여러분과 함께한 이 시간이 더욱 풍요로워지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소식과 정보를 통해 여러분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제공하고자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20년도 주님과 동행하는 여정 되길



김우준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담임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가는 위 브릿지(We Bridge)사역 그리고 성경필사를 통해서 다음세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20년도 늘 주님과 동행하는 멋진 여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교회창립 19주년 기념

담임목사 위임, 장로/권사 은퇴, 안수집사 임직

감사예배

베이커스필드 ANC온누리교회가 창립19주년을 맞아 감사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 박성호 목사님의 위임 예배와 장로, 권사 은퇴식 및 안수집사 임직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오셔서 마음껏 축복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1월 28일(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베이커스필드 ANC 온누리교회 본당
  6700 Schirra Ct., Bakersfield CA 93313
- Tel : T.(661)831-2262


목사위임
박성호


시무장로 은퇴
주희종


시무권사 은퇴
이남은


안수집사
박경춘


안수집사
박진영


안수집사
오은규


안수집사
오영은


안수집사
윤영미


안수집사
윤자원


안수집사
윤현수


안수집사
윤혜진


안수집사
이고은

창간 20주년 축사

교회 방향을 제시하는 나침반



이상명 박사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2024 갑진년 새해는 2023 계묘년보다 하나님 은혜가 기독일보 독자와 온누리에 더욱 풍성하기를 기원합니다.

미주 지역 한인 교회를 서로 돌아보게 하고 하나되게 하는 일에 앞장서 온 기독일보가 올해로 창간 20주년을 맞이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디아스포라 한인 공동체의 경사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일보는 교회와 사회와 세계의 주요 이슈를 시시각각 전하여 독자와 세상을 이어주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시각으로 세상을 읽도록 프론트 라인(frontline)에서 우리의 눈과 귀가 되어 주었습니다.

기독 신문은 현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풍향계여야 하고, 교회가 가야 할 방향을 바르게 제시해주는 나침반이어야 하며, 성도의 생활과 신앙을 위한 길라잡이 역할을 해 주어야 합니다. 복음의 정신으로 현시대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이민교회와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주요 매체 가운데 하나는 신문입니다. 지난 역사 속 기독언론은 복음전파와 함께 민족의식 고취와 근대화를 불러오는 통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깨어 있는 기독언론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공동체는 더욱 정화되고, 편견과 미몽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비전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위기와 심각한 도전이 여전한 2024년 새해에도 기독일보가 더욱 도약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2024 갑진년 새해에 기독일보가 미주 지역 한인 교계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디아스포라 한인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묶어주며, 하늘의 지혜와 유익한 정보로 채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세대에 믿음이 전수되도록 중요한 역할 담당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기독일보는 기독교 신앙의 중심으로 화해와 연합의 모토로 창간되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팬데믹 이후에는 위브릿지 사역을 통하여 지역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잘 해왔고 이번 창간 20주년을 맞아서는 차세대 성경필사를 통해 다음세대에 믿음이 전수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바라기는 지난 20년 동안도 열심히 달려오셨듯이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하나님 안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창간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김지훈 목사
동선교교회 담임

세상의 빛이 되기를

존경하는 기독일보 독자 여러분, 2024년은 Grace Mission University와 기독일보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해입니다. 특히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글을 전합니다.

20년 전, 기독일보가 시작될 때부터 편집진은 하나님의 지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하며 출발했을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기독일보는 그 사역의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매 순간 느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Grace Mission University 역시 학문과 영성, 봉사와 전도의 통합을 추구하며 학생들에게 참된 크리스천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왔습니다.

20주년은 고난과 기쁨, 성공과 도전이 교차하는 여정을 상징합니다. 이 여정에서 기독일보는 우리의 신앙과 기독교 교육의 가치를 전하는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20년의 성장과 풍요로움,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새해를 맞이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를 더욱 향해 나아갑니다.

2024년, Grace Mission University는 더욱 깊이 있는 신학적 발전과 학문적 성취를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학생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따르는 자로서 세상에 영향을 미치고, 본보기가 되어 사회에 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데에 더욱 열중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문과 영성이 조화를 이룬 참된 기독교 교육을 제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선포하는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20주년을 맞아, 기독일보는 계속해서 참된 복음을 전하며, 독자 여러분과 함께 성장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기독일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 세상에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기도와 지지에 감사드리며, 2024년에도 함께 걸어가는 여정이 더욱 은혜로운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기독일보에 풍성히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최규남 총장
Grace Mission University

사랑과 정의를 함께 일깨우는 사명



김재성 박사
국제신학대학원대학교 부총장

먼저, 20년 동안 미주 이민 사회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소식을 교류하는 일에 힘써오신 것에 감사와 찬사를 보냅니다.

수많은 언론 매체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하고 있는데, 기독일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든든히 세워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바른 안목으로 좋은 내용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전달하는 일에 헌신하려면 어려움이 있겠지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마 5:12)는 소망을 갖고 힘차게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점점 더 죄악이 창궐하는 세상을 바라볼 때에, 교회가 직면한 어려움이 더욱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이미 코로나 팬데믹으로 교회마다 큰 피해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기독일보가 앞으로도 참된 사랑과 정의를 펼쳐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부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은 암흑과 같을 것입니다. 사랑의 소식, 사랑의 횃불을 항상 밝혀 주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우리가 엄청난 사랑을 받았기에, 냉정하고 차가운 세상을 향해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성경 이야기에 담긴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만 할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로워야 하고, 정당한 방식으로 시행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전파하되, 항상 의롭고 순결하며 떳떳한 방식이 함께 강조되어야합니다.

사랑을 증거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이야기가 기독일보 지면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ANC 온누리교회

ANC 온누리교회는
올해로 창립 28주년을 맞이한
CRC 교단 소속교회이며 LA 선랜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기독일보 창간 19주년을 축하합니다.

JESUS
LOVES YOU

온세대가 제자되어 온누리를 섬기는 복음 공동체





Sunday Worship Services

1부(Traditional Worship)	07:30 am	본당(Main Sanctuary)
2부(Blended Worship)	09:30 am	본당(Main Sanctuary) / Youtube Live
3부(Passion Worship)	11:30 am	본당(Main Sanctuary) / Youtube Live
GM(Disabilities Worship)	09:30 am	M913
ANCC(English Worship)	09:30/11:30 am	체육관(Gym) / Youtube Live



ANC 온누리교회 담임목사_김태형(Rev. Tae Kim)
10000 Foothill Blvd, Lake View Terrace, CA 91342 \ www.anconnuri.com \ (818) 834-7000

창간 20주년 축사

차세대 크리스천 인재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강일한 회장
제 21기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미주부의장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았습니다.

먼저는 지난 20년 동안 신문을 위해 애써 주신 기독일보 임직원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독일보는 이념, 세대, 계층, 인종 간 갈등과 반목이 그치지 않는 현실 속에서 표어처럼 화해의 사자 역할을 수행하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또 세속주의라는 도전 앞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를 수호하고 전파하는 진리의 파수꾼 노릇을 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를 세우고 돕는 위브릿지 사역, 차세대 신앙전수와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심어 사명자를 세우기 위한 성경 필사 사역에 이르기까지 약한 자를 돕고 다음 세대를 양성하는 소명까지 실천하여 지역 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차세대 유능한 크리스천 인재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역할을 해온 기독일보가 20주년을 맞아 평화통일운동의 일꾼을 육성하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미주 지역 사회 내 우리나라의 민주적인 평화통일 운동의 한 축을 감당해 주기를 바라 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 사역의 미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 길 기원하며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동포사회에 희망을 선사하길



최학량 회장
미주한인군목회

기독일보 창간 제20주년을 축하합니다.

벌써 20년이 흘렀군요 창간 그 기념식에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을 역임하고 있었습니다. 초청을 받고 순서를 맡았었습니다. 동포사회의 언론사 운영이 어려운 줄 잘 아는 저로서는 속으로 축하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얼마나 지탱할까 염려가 컸습니다. 그러나 나의 염려를 능가하는 활발하고 당찬 활동은 새롭고 신속, 정확, 폭넓은 기사 거리로 독자들의 가슴을 점령했습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새해는 더욱 동포사회에 좋은 기사와 희망을 선사할 줄 믿고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은혜의 물로 심령을 채우는 신문



임성진 박사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언론 사역을 통해 미주 크리스천들에게는 신앙과 나눔을, 비크리스천들에게는 복음과 섬김을 실천하며 지난 20년간 모범적인 발자취를 남겨온 기독일보에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오늘날과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는 수많은 매체를 통해 엄청난 양의 정보가 쏟아지지만 기쁘고 바른 소식보다는 자극적이고 파괴적인 뉴스가 세상에 더 만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언론 매체를 접할수록 복음보다는 불신앙이,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감동보다는 낙심이 우리 마음에 채워지곤 합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듯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고 세상의 화평을 추구함으로 이 세상에 가득찬 불신앙과 두려움을 물리치는 기독교 언론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갈한 자에게 생수를 공급하듯 때로는 생명의 물로, 때로는 시원한 물로, 때로는 은혜의 물로 한인들의 심령을 채우는 당당한 기독교신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창간 20주년을 맞아 힘세고 강한 청년의 시기로 접어들며 힘찬 도약을 꿈꾸는 기독일보에 거는 희망과 기대가 큽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하여 교회와 세상을 연결하며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는 브리지 사역을 확장하시길 바랍니다.

한인타운 중심의 부모세대와 영어권의 자녀세대를 연결하시길 바랍니다. 한글 중심에서 미 주류사회와 교류하는 기관으로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현재의 역량을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여 계속 성장하는 기독언론 기관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발전하는 신문



박은성 목사
나성영락교회 담임

먼저 지난 20년 동안, 미주 기독일보를 통하여 크게 역사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 돌립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복음 전파를 위한 도구로 이 땅에 세워진 이래,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살리는 아름다운 언론 미디어의 사역을 감당하신 미주 기독일보와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시대의 현대인은 극단적 개인주의와 물질주의에 깊이 함몰되어 자기 성취와 만족을 향해 달려가며, 자기가 원하는 정보를 언제든 취사선택하고 판단하는 시대로 급변하게 되면서 한번 잘못된 정보와 거짓된 소식을 접하면 그릇되고 편향적인 사고와 신앙에 갇혀 살게 됩니다. 이런 시대에도 미주 기독일보는 기독교 정론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며 교회를 살리는 소식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있음이 미주 사회와 교계에 큰 기쁨이며 위로입니다.

앞으로도 기독일보가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 생명 살림의 거룩한 사명을 더욱 힘차게 감당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미주 기독일보의 사역은 우리 안에 결코 멈추거나 위축될 수 없으며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계속하여 부흥하고 발전할 것을 확신합니다. 지난 2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시대를 바라보는 문턱에서, 처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한결같은 초심과 열심으로 수고하신 이인규 목사님과 미주 기독일보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을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이후로도 풍성하신 주님께서 영적 물적 인적 필요와 자원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전 세계적에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기독일보



김귀보 목사
큰나무교회 담임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한가지를 지속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기독교신문을 20년동안 꾸준히 발행하는 것은 엄청난 수고와 헌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독일보 대표 이인규 목사님과 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울면서 씨를 뿌렸기 때문에 거둔 열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인규 목사님을 뵐 때마다 작은 영적 거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현실로 만들려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은 늘 도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목사님의 열정과 순수한 모습을 보시고 기독일보를 축복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20년이면 가장 빛나는 청년의 나이입니다. 기독일보가 지금까지 쌓인 경험과 지식의 바탕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기독일보가 이민교회를 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메신저로 귀하게 쓰임 받길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드립니다.



창간 20주년 축사

아름다운 사역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김경진 목사
기쁜우리교회 담임

올해로 교계에 기독신문 가운데 대표적인 기독일보가 창간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속한 정보, 객관적인 보도뿐만 아니라 아름답고 감동이 있는 그 스토리를 통해서 참으로 많은 교회와 성도님들 또한 특히 목회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시대 때는 온라인 신문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할 방향과 정보들을 제공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방향성을 제시해주고 기독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사역을 넘어 이제 교회와 교회를 연결하고 작은 교회를 돕는 위브릿지 사역뿐만 아니라, 미래 크리스천 리더쉽을 양성하기 위한 장학금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사역에 찬사를 보내드립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많을 성도님들과 교회와 우리 교계에 갈수록 더욱 아름답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우리 기독일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길



제이슨 송 교장
NCA새언약초중고등학교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란 옛말 같이 요즘 같은 정보의 홍수 시대에 믿을만한 정보를 접하기가 쉽지 않다. 불필요한 정보가 삶에 범람하고, 또 거짓과 왜곡된 사실이 마치 진실로 포장되어 전달되기에 사실을 원하는 정보 소비자는 혼란에 빠지게 된다.

이럴 때일수록 기독일보같이 팩트와 진실, 또 덕이 되는 좋은 소식만 전하려고 애쓰는 매체가 존재한다는 게 천만다행이다.

기독교는 진리와 사실을 기반으로 정립된 종교다. 그런데 세상은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고 떼를 쓴다. 예를 들어 성별도 남녀가 아닌 LGBQT+라고, 80가지가 넘는다고 억지를 부린다. 옳고 그름도 없고, 윤리도 상황에 따라 변한다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큰소리를 친다고, 고함을 지르고, 데모를 하고, 정치인을 협박하고 으르렁거려대도 거짓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

이런 얼토당토 안되는 소리에 대응해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 성경적이고 복음적이다. 그래서 기독일보가 계속 꾸준히 진리를 선포하고 전달하고 널리 알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길 간절히 소원한다.

"생각보다 맛있네요"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는 1월 16일(화) 부터 지역 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 점심을 제공하고 있다.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

한인타운 시니어 커뮤니티 센터(이사장 신영신, 이하 시니어센터)는 지난 1월 16일(화)부터 LA시 노인국과 함께 지역 노인 및 저소득 주민들에게 무료 점심 도시락 배식을 시작했다.

첫 이틀 간은 200명, 다음 날부터는 매일 150명에게 식사를 대접했다. 소고기, 닭고기, 터키 등 매일 다른 메뉴와 신선한 야채와 우유, 과일, 오렌지주스도 함께 제공됐다.

도시락을 받은 어르신들이 센터 앞 다울정에 삼삼오오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는 모습이 눈에 띈다. 시니어센터는 대형 스탠딩 히터 4대를 새로 구입해 어르신들이 춥지 않게 식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신영신 이사장은 "LA시 노인국과 손잡고 시작한 새해 첫 프로젝트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메뉴를 걱정했는데, 의외로 반응이 좋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하루배식 인원들 300 명까지 늘릴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점심 무료배식을 받으려면, 시니어센터에 준비된 신청서류 작성 후 바코드 카드를 받아야 한다.

24일(수)까지 접수해 LA시로 보낸 신청서는 모두 433 장에 이른다. 한편, 시니어센터는 전문인협회들이 진행하는 총 40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문의(213)387-7733 김민선기자

강태광 칼럼 **사순절을 아시나요?** 섬기고 나누는 **월드쉐어 USA**



강 태 광 목사
월드쉐어 USA

지방에서 건실한 교회의 원로 목사님의 아들 목사가 유학을 마치고 서울의 중견교회 담임 목사가 되었다. 젊은 목사는 성도들의 사랑과 응원 가운데 목회를 잘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된 지 5년 정도 되었을 때 문제가 생겼다. 건강하게 교회가 성장하던 상황에 맞은 위기는 어처구니없게도 담임목사가 새벽기도회에 불성실하다는 것이었다.

은퇴 생활 즐기던 아버지 목사님이 화들짝 놀랐다. 아들이 '새벽기도회'에 불성실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버지 목사님은 '담임목사가 새벽기도를 빠진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라며 아들을 꾸짖었다. 아들은 "성경에도 없는 새벽기도에 왜 호들갑인지 모르겠다"라며 시큰둥했다. 최근 일이다.

새벽기도회는 성경에 없다. 하지만,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새벽기도회가 없는 한국(한인)교회는 상상하기 어렵다. 성탄절도 마찬가지다. 성경과 로마역사를 종합하면 예수님 탄생은 12월이 될 수 없고, 9월쯤에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것이 정설이다. 예수님 성탄절은 범기독교가 수용한 전통이지만 비슷한 시기에 시작한 사순절은 그만한 지지와 수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기독교 일각에서는 사순절은 지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실제로 사순절을 지키지 말 것을 결의한 교단도 있다고 들었다. 그런 주장에 이유가 보인다. 첫째, 사순절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았고, 둘째, 천주교의 미신적인 종교 행사 유산이어서 칼빈과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반대했으며, 셋째, 말씀 중심의 신앙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성탄절과 사순절은 4세기에 시작했다. 기독교를 공인(313년)한 콘스탄틴 황제 어머니 헬레나는 70대 후반 노령에 성지순례를 했다. 그녀가 성지순례 중에 발견한 골고다 십자가를 기독교 상징물로 삼았고, 베들레헴에 예수님 탄생교회도 건축했다. 금식과 기도로 준비하던 부활절 세례준비의 강화는 사순절로 발전했다. 4세기 교회의 필요를 충족하는 중요한 신앙문화가 형성되었다.

2세기, 3세기 교회 핵심메시지는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이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리고 사도와 속사도 교부가 전하는 생생한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풍성한 은혜를 공급했다. 그러나 많은 이방인이 기독교로 유입되면서 4세기 교회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신입 성도의 양육이 중요한 문제로 부상했다. 당시 이방 종교와 비교하면 신앙상징과 양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기독교는 예수님 탄생과 수난 기사를 신앙 양육과 영성 훈련 재료로 활용하게 되었다.

예수님 탄생에 관심이 없었던 교회가 헬레나의 성지순례와 탄생교회 건축을 통해 4세기에 예수님 탄생 기념을 시작했다. 부활절 세례교육의 강화도 필요했다. 이레네우스는 2세기 후반 기독교의 부활절 세례준비 기간은 2, 3일이었다고 한다. 4세기 초반 교회의 부활절 세례준비 기간은 6일간이었다. 그런데 니케아 종교회의 후 4세기 후반부터 교회의 부활절 세례준비 기간은 40일간으로 편성된 것을 여러 자료가 전한다.

2~3세기에 세례지원자 교육이 비교적 단순했다.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기독교 신자가 되기를 원하던 당시 세례지원자들은 길고 복잡한 준비가 필요치 않았다. 그러나 기독교가 공인 된 후 즉 4세기부터는 많은 세례 대상자들에게 좀 더 세밀한 세례준비가 필요하다는데 교회가 공감했다.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해 이런 공감이 모든 교회에 확산한 것으로 보인다.

초대 교회의 사순절은 성도들에게 다양한 영적 성장을 제공했다. 부활절 세례준비자에게는 양육의 기간, 신앙으로 돌아온 자들에게는 회개의 기간, 일반 성도에게는 성숙의 기간, 성숙한 성도에게는 사랑의 실천 기간이었다. 모름지기 사순절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돕는 거룩한 기간이었다. 성탄절, 새벽기도가 신앙에 큰 유익을 주는 것처럼 사순절도 우리 영혼에 큰 유익을 준다.

영스칼라

GPA 학점 관리
1:1 튜터링
수업 스케즐
1:1 성적 상담

과외 활동
동아리 활동
자원봉사
여름, 겨울 캠프

대학 컨설팅
1:1상담, 컨설팅
에세이 첨삭
대학 선택
전공선택, 진로상담
비교과 활동 준비
레쥬메(리력서)
대학지원
인터뷰 연습



www.ysprep.com

YOUNG SCHOLARS 영스칼라

* 시험준비반 프로그램, SAT, ACT, AP, 사립학교 준비반이 있습니다.
리더쉽, 인텐쉽, 리서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남가주 지점 : San Marino (626) 286-0200, La Canada (818) 864-6855, Irvine (949) 880-4329
■북가주 지점 : Cupertino (408) 352-5141 ■한국, 강남 압구정 : (02) 543-7388

가주간호학교
Veritas CNA School

Veritas CNA School (간호보조사 과정) 가장 안정된 직장과 다양한 베네핏이 주어지며 의료 분야의 다양한 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간호보조사 자격증 취득 후 취업을 보장하며 직접 도와 드립니다.

가주보건국(CPHD)의 정식인가를 받은 가주 간호보조사 학교는 CNA Certification (간호보조사 자격증) 시험 준비 코스가 있습니다.

6-8주 과정이며 한국어 강의도 있습니다
병원, 클리닉, 양로병원 등 다양한 의료분야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오버타임 수당, 휴가와 병가수당, 은퇴연금, 의료보험등 다양한 해택과 취업보장! 16세이상 소시얼 넘버와 택스 넘버가 필요합니다.

지역 : 엘에이 , 파사데나, 산 마리노

■ Contact information
Phone: T.(213)216-4944
jungyeemail@gmail.com
http://www.veritascareer.com

VERITAS CAREERS COLLEGE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를 잇는 We Bridge 교회

박은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50
교회학교 & 유스예배 주일 오후 12:50
수요나눔 교역자 오전 9:30
수요중보기도 오후 8:30
"모든 예배시 일본어와 한국어로 진행됩니다"
Acts Global Church
15 Orange Tree, Irvine, CA 92618
T. (714)886-7287

이미애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30
주일예배 2부 오전 11:15
새벽기도 오전 5:30
Angel's Church
255 S Hill St, Los Angeles, CA. 90012
T. (323)485-8787

한주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화요예배 오전 10:00
금요예배 오전 10:00
Connecting Mission Baptist Church
8520 Western Ave. Buena Park, CA 90620
T. (510)390-5456

이현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교육부예배 오후 12:00
목요예배 오후 7:30
토요새벽예배 오전 6:30
His Presbyterian Church
4037 Lehman R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18-6611 www.Hisch.org

송재봉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목요중보기도회 저녁 8:00
새벽예 새벽 6:00(월-토)
LA사랑의 동산교회
2865 W. 7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63-9899

박지상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LA하나교회
1503 Crenshaw Bl, Los Angeles, CA 90019
T. (213)500-2047

Joe Hong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Metanoia Church of Southbay
18051 Crenshaw Blvd., Suit I, Torrance, CA 90504
T. (213)800-3120

Isaiah Lee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Community Church
77651 Commonwealth Ave. Buena Park, CA 90621
T. (714)336-0520

장경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성경공부 및 기도회 금요일 오후 7:30
https://www.facebook.com/chkho69
Only One Church
1525 Glenoaks Blvd. San Fernando, CA 91340
T. (469)289-8781 카톡 ID : chkh0810

제임스김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The Well Church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T. (562)410-9225

남상권 담임목사
주일 1부 오전 8:00
주일 2부 오전 10:3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6:30(토)
수요성경공부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7:30
남가주 어노인팅교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1455 Crenshaw Blvd Suite 205., Torrance CA 90501
T. (213)800-3651 www.anointingchurch.org

김상현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In Christ Christian Church
1465 W. Orangethorpe Ave, Fullerton, CA 92833
T. (213)422-6388

안상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남가주늘사랑교회
1650 Avenida Selva, Fullerton. CA 92833
T. (714)482-5466

오상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00
EM/교육부 오전 10:00
새벽예배 오전 6:00
금요성구탐구 오후 7:30
남가주예수사랑교회
16113 S. Denker Ave, Gardena, CA 90247
T. (310)702-7571

김창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
남가주은혜선교교회
300 Vallejo Dr. Glendale, CA 91206
T. (310)713-3006

차권희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성령집회 저녁 7:00
토요 비전새벽기도회 오전 6:00
놀웍장로교회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90650
T. (213)598-6878

강은덕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9:30
청년부예배 오전 9:30
늘새론교회
899 S. Disneyland Dr. Anaheim, CA 92802
T. (714)453-8829 dmsejrrkd@hanmail.net

김영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더섬기는교회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정용암 담임목사
주일예배 낮 12:00
수요TEE성경공부 오전 10:00
랜초한인교회
31300 Rancho Community Way, Temecula, CA 92592
T. (714)337-8096 http://rancho.kr

신용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어린이주일학교 오후 2:30
화요성경읽기 오후 7:30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7:30
로고스라이프교회
4872 Bishop St. Cypress, CA 90630
T. (714)673-2141

정달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리뉴얼새힘교회
1636 W 8th St. #315. Los Angeles, CA 90017
T. (213)509-5360

김명구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아침기도회 오전 6:30 (화-토)
중보기도 오전 10:00 (주일)
소그룹 성경공부 오전10:00-12:00 (수)
말씀위의교회
3579 Arlington Ave, #500, Riverside, CA92506
T. (909)247-7355

서민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방주교회
1343 W. Valencia Dr. #G, Fullerton, CA 92833
T. (714)222-8746

장현석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1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토요아침기도회 오전 8:00
버몬한인교회
702 Euclid Ave., Beaumont, CA 92223
T. (909) 809-7922 www.beaumontkoreanchurch.com

지동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40
목요예배 오후 7:00
토요새벽 오전 5:30
베이커스필드 아름다운교회
4500 Buena Vista Rd, Bakersfield, CA 93311
T. (661)472-5979

윤 혁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1:00
주일예배 EM 오후 2: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화-금 오전 5:30 / 토 오전 6:00
브림장로교회
3561 Foothill Blvd, La Crescenta, CA 91214
T. (626)376-5331

신현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금)
생명과사랑의교회
3431 W. 8th St. Los Angeles, CA 90005
T. (213)604-3004

곽태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생명의길교회
1201 Dorothy Ln, Fullerton, CA 92831
T. (657)252-0858

장동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6:00 (토요)
선민교회
3388 W. 8th St. #204, Los Angeles, CA 90005
T. (213)700-5638

임상훈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성경공부 평일 저녁 6:30
섬김의교회
12440 Firestone Blvd, Norwalk, CA 90650
T. (213)290- 8129

이석기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8:00
주일예배 2부 오전11:00
성령과 함께 일하는 교회
2666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06
T. (626)679-2115

김요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저녁기도회 오후 8:00
금요철아기도 오후9:00
새벽기도 (월~금) 오전 6:30
성암교회
2551 Beverly Blvd, #D, Los Angeles, CA 90057
T. (213)220-6421

정찬군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성경공부 주일 오후 1:30
아침기도회(온라인) 오전 7:00(화~토)
기도모임 오전 11:00(화)
예심교회
7342 Orangethorpe Ave. Ste B-113. Buena Park, CA 90621
T. (562)315-6543

김지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시 [세대가 함께 하는]
주일학교 & Youth 오후 1시 30분
금요성령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청년부 수요일 저녁 8시
수요 (온라인) 새벽기도 수요일 새벽 5시 30분
원웨이침례교회
601S Palm St, La Habra, CA 90631
T. (213)249-5017

최주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2:00
수요기도회 오후 8:15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은혜가샘솟는교회
10949 Zelzah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818)703-2292

표희곤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45
어린이 & Youth 오전 11:45
은혜샘교회
5471 W Cerritos Ave. Cypress, CA 90630
T. (714)337-0551

류연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주님의숲교회
1221 Candlewood Dr. Fullerton, CA 92833
T. (562)567-4573

김성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8:30 /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주백성교회
3400 W. 6th St. Suite 202, Los Angeles, CA 90020
T. (818)633-1241

양수용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New Start Mission 매주 목요일 오전 10:30
초대교회
1345 S. Burlington Ave. Los Angeles, CA 90006
T. (818)434-1253

권혁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나눔 코이 모임 오후 6:00(월)
카마리오열방교회
1369 Del Norte Rd. Camarillo, CA 93010
T. (805)419-6043

조 인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주일성경공부 오후 7:3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
1101 E Ponderosa Dr., Camarillo, CA 93010
T. (213)700-3341 www.kfpcc.com

류광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 2:00
주일학교 오후 2:00
금요youth모임 오후 7:00
목요중보기도 오전 10:00
커넥션교회
114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5
T. (714)366-9263

김용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및 성경공부 저녁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토)
크레센타밸리 한인연합감리교회
2700 Montrose Avenue, Montrose, CA 91030
T. (323)774-2992

정하이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후1:00
크로스교회
3663 W 9th St, #110, Los Angeles, CA 90019
T. (626)342-4366

오충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요청시)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주일예배 3부 저녁 언제든(요청시)
주중예배 목요 오후 8:00(한어) / 금요 오후 8:00 (영어)
파워워십 2번째주 금요 오후 8:00(영어) / 4번째주 목요 오후 8:00 (한어)
하늘기쁨의교회
12104 Los Coyotes Ave, La Mirada, CA 90638
T. (213)215-0555

양국민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토요중보기도회 오전 6:00
함께하는 주은혜교회
520 S Lafayette Park Pl. #520 Los Angeles CA 90057
T. (310)753-6169 tgodsgc@gmail.com

양홍규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기도회(주일) 오후 3:00
굿프렌즈교회
5721 Lincoin Ave #K, Cypress, CA 90630
T. (714)852-8485



성경필사 장학생 소/감/문

헌신상 1



Daniel Oh

Jesus Love Church
West High School 12학년

"그리스도의 섬김과 은혜를 위해 내 삶을 살기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으며 예수님을 저의 구원자로 영접했습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돈, SNS 등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다 보니 그 분과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 대신에 그리스도를 향해 제 삶의 초점을 다시 맞출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움을 구했습니다. 마침내, 고등학교 3학년 때, 저는 우연히 내 인생에서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과 진정으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성경필사를 시작하고 싶었지만 그것에 맞춰 일정을 어떻게 조절해야 할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여러 대학 지원서와 에세이, 그리고 공부하기 어려운 수업에 시달렸습니다. 필요한 책들을 훑어보며 이 추가된 도전을 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우연히 마태복음 6장 25절을 읽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생명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저는 즉시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임을 깨달았습니다. 대학 입시, SNS, 시간 자체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저는 가장 중요한 것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권입니다. 그 순간 저는 그날 최소한 30분을 마태복음 필사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이내 30분이 2시간이 될 정도로 마태복음을 자세히 필사하고 읽는 일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세상적인 필요에 대한 걱정을 멈추고 대신 영적인 필요에 집중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복음서를 쓰면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저의 정체성과 제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요한복음까지의 예수님의 기적과 가르침은 저에게 모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제자들의 간증을 쓰면서 저는 진정으로 이전보다 더 가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은 저에게 기독교 교회의 기원을 가르쳐 주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의 뿌리와 진정으로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바울이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열정적으로 기독교 신앙 전도를 추구한 것을 보았고, 그를 따라가고 그에게 영감을 받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통해 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편지를 읽으면서 세속적인 세상에 대한 저의 사랑이 죄악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25절에서 언급한 로마 시민들처럼 저는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겼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저의 죄성과 제가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자격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았습니다. 저 같은 죄인에게는 단 한 번도 회개할 기회조차 주지 말고 큰 벌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끝이 없으며 은혜의 선물은 모든 사람, 특히 가장 비참하고 죄 많은 사람을 위한 것임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대학 진학과 그 이후에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가 충만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저는 새로 변화된 신앙의 제자로서 서 있고,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은혜를 위한 삶을 살 것을 자랑스럽게 말하겠습니다.

은혜상 3



Erin Kim

OIKOS Ministry (Irvine Woori Baptist Church)
CalState Fullerton Sophomore

"하나님의 사랑은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고 오래 기다려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많은 일들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 성경필사 장학금을 신청했을 때 제 생각은 너무 단순했습니다. 이 글을 쓰는 여정 내내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어떤 것도 저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제 자신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습니다. 저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를 통해 말씀하시고 그의 말씀을 통해 저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기대했고, 그분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의 방식으로.

제가 이 장학금을 받기 전에는 저의 믿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강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나는 직장, 학교, 과외 활동 중에 항상 그와 이야기를 나누었고 주님에 대해 조용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심지어 조롱과 신성 모독이라 할지라도 저와 전능하신 아버지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이 장학금에 대해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만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성경 필사를 시작하면서 저는 예수님과 우리가 그분과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실 정도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강한 사랑에 감동받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고, 쓰고, 묵상할 때 눈물이 흘렀고, 다른 사람들이 저를 볼 때 그들도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더욱 예수님을 닮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육체적으로 지쳐가곤 했습니다. 팔이 아프고 손을 움직일 때마다 아팠습니다. 더 많은 날이 지나고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에는 잘못된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 가족은 말다툼이 많았고, 개학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가장 친한 친구와의 관계도 말다툼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특정 사람들에 대한 증오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제 삶은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제가 하나님과 더 강한 관계를 맺는 것을 방해하는 것이 원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 무시하고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서 제 삶의 약속을 지키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성경을 필사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밤 내 문제에 대해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야기가 진행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주님은 어머니를 통해 제가 계속 우울한 상태에 있고 하나님께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면 원수가 승리하도록 내버려두게 될 것임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나님과의 분리가 두려웠습니다.

"주님, 문제가 생기면 계속 도망가고, 필요할 때만 돌아오고 싶지 않습니다. 피곤해서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지금 제가 겪는 환난 가운데 주님을 통해 의롭게 말하고 행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많은 불치병을 고치시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신 하나님이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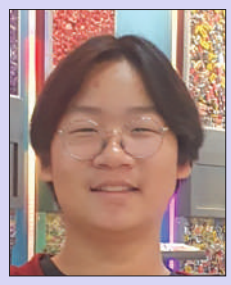
다른 간증이나 영화에서 나오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저를 바로 데리러 오시지 않고 그를 통해 치유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날이 서서히 흐를수록, 하나님은 천천히 저를 일으켜 세워 계속해서 성경을 쓰게 하시고, 제 문제 대신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을성 있고 친절하며 이해심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용어가 진부하고 단순하게 들리더라도, 하나님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그 뒤에 숨은 의미는 훨씬 더 커집니다. 그분은 내내 저와 함께 계셨지만 깨닫는 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다 또 다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지금은 글을 쓰지 않아도 움직이기 힘들 정도로 계속해서 글을 쓰느라 손이 아프지만, 하나님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가 피를 흘려야 할 때에 그분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아픈 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과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축복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며, 우리가 그에게서 도망쳐도 그분은 항상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항상 그분의 아들과 딸이며 그분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토록 신비한 방법으로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신실상 2



서 온 유

Beautiful Church
Marshall Fundamental Secondary School 9학년

"성경 필사는 나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처음 성경 필사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너무나 설레이고 기대가 되었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제 손으로 직접 쓰면서 좀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었고, 더 깊이 알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점점 제 안에서 잊혀져 가고 있을 때쯤, 성경을 읽는 동시에 직접 쓸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내심 저는 성경쓰기를 시작하기 전부터 행복했습니다. 첫 페이지를 쓰기 시작할 때는 혹여나 글자를 틀리는 실수를 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성경필사를 마쳤을 때는 어떤 기분일까? 또한 제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까? 라는 걱정과 기대와 설레임을 안고 시작하였습니다.

첫 페이지를 쓰는 중에 너무 긴장한 나머지 많은 실수를 하였지만 아직 시작이고 갈 길이 많으니 열심히 잘 써야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써 내려갔습니다.

신약의 첫 권인 '마태복음'을 다 쓰고 난 후에는 손이 아프지 않고 쉽게 쓸 수 있는 요령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마태복음'과 같은 책을 다섯권이나 더 써야 한다는 생각을 하니 끝이 까마득해 보였습니다. 힘을 내어 조금 더 쓰다 가도 아직 써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기도 했지만, 성경의 말씀을 한절, 한절 써 내려갈 때마다 제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고, 영의 양식을 먹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누가복음의 필사를 끝냈을 때에는 더이상 시작할 때처럼 "가자! 아자! 아자!" 하는 마음은 안 들었지만 그래도 반은 해냈다는 생각은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앞으로 반이 남았다는 부담은 더욱 저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누가복음을 쓸 때는 여러가지 생각들이 저를 유혹하고 나태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도 보고 싶고, 가끔은 멍 때리고도 싶고, 다른 책들도 읽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성경 필사를 쓰고 있는 제 옆을 지나가실 때마다 몇 장을 쓰고 있는지 물어 오셨는데 그때마다 너무 짜증도 나고, 화도 나긴 하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 엄마 아빠의 간섭과 관심이 없었더라면 주어진 시간 안에 성경 필사를 못 마쳤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쓰고 싶은 유혹을 이기고 계속 성경을 쓰고 나니 더 이상 핸드폰을 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지 않았고 전자기기를 사용하는 시간도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저 스스로에게 참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필사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겨울방학 전에 학기를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 시험도 있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해야 하는데 이제 12월은 이미 시작되었고, 성경 쓰기는 아직 한 권 반 정도 남아있었습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1주일은 학교 공부에 전념하기로 마음먹고 학교 공부에만 집중하였습니다.

그렇게 학교시험을 마친 후에도 제 마음은 편하기는커녕 더 조급해졌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몇 명의 학생들은 성경 필사를 마쳤다는 카톡이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직도 사도행전이네' 하는 생각이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그럴수록 밥 먹는 시간만 빼고 더욱 열심히 성경을 쓰다 보니 어느 새 저도 성경필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빼곡히 성경 말씀으로만 적혀 있는 저의 성경필사노트를 보면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지면서 마음이 후련하기도 하고 이제 끝났네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익숙한 말씀도 있었고, 좋은 말씀도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말씀이 기억에 남고 저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 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어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누가복음 17장 6절: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뽕나무 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마가복음의 말씀과 누가복음의 말씀이 다른 말씀처럼 보이지만 동일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를 하거나 무언가를 선포를 할 때에 이것이 이루어 질까 하는 의심이 드는 때가 많았는데 이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작은 믿음만 있어도 그것을 응답 해주시고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거나 기도를 하는데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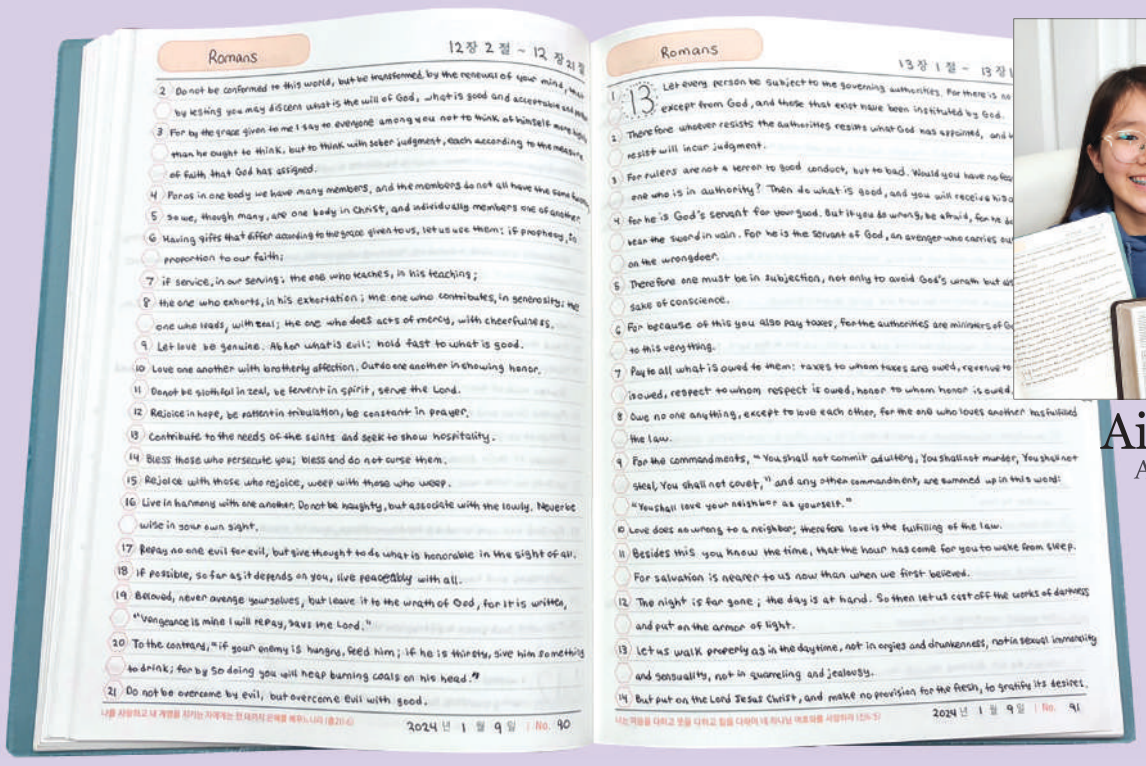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의사가 되어 선교지에 선교사로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더욱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거자야말로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을 필사하면서 위의 말씀처럼 늘 성경을 가까이하고, 성경을 통해 영생을 얻는 것을 믿고 증언하는 자가 되고 싶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15살에 첫 성경 필사를 잘 마칠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 이것을 시작으로 나의 평생에 더욱 성경을 가까이하는 삶을 살고 싶다는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성경 필사라는 새로운 경험은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특별한 선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성경필사 행사를 마련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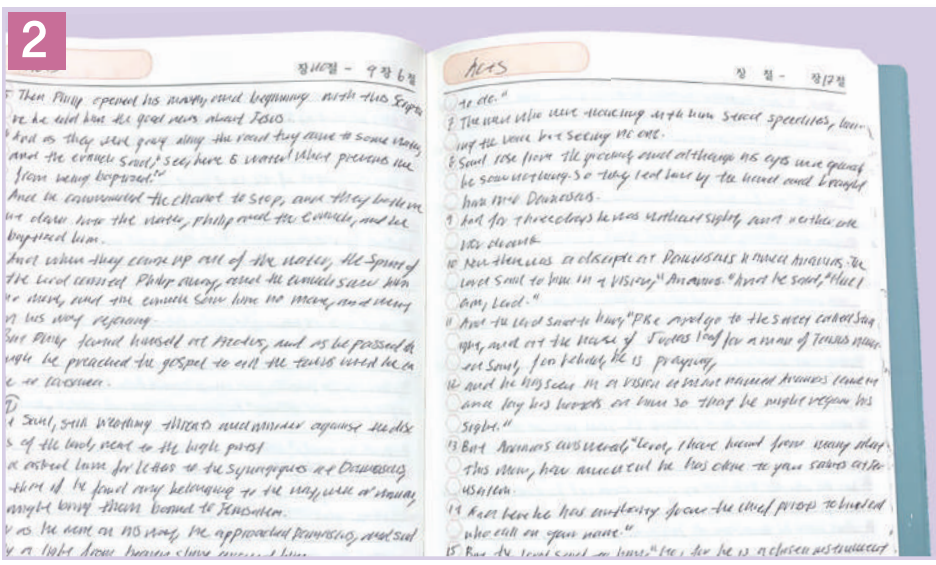
1 더디오상 Congratul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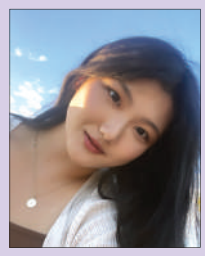




Aimee Oh
Abeka Academ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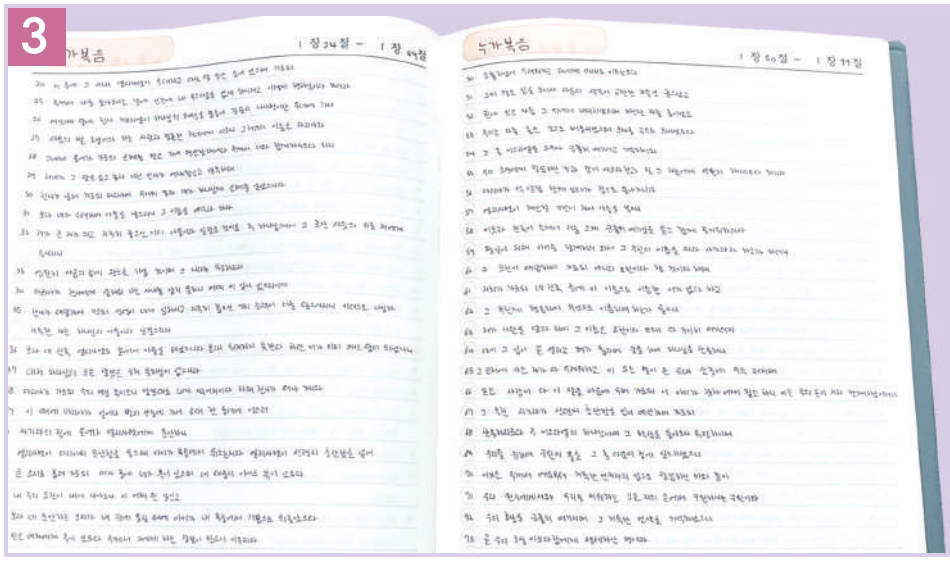
2





Erin Kim
CalState Fullert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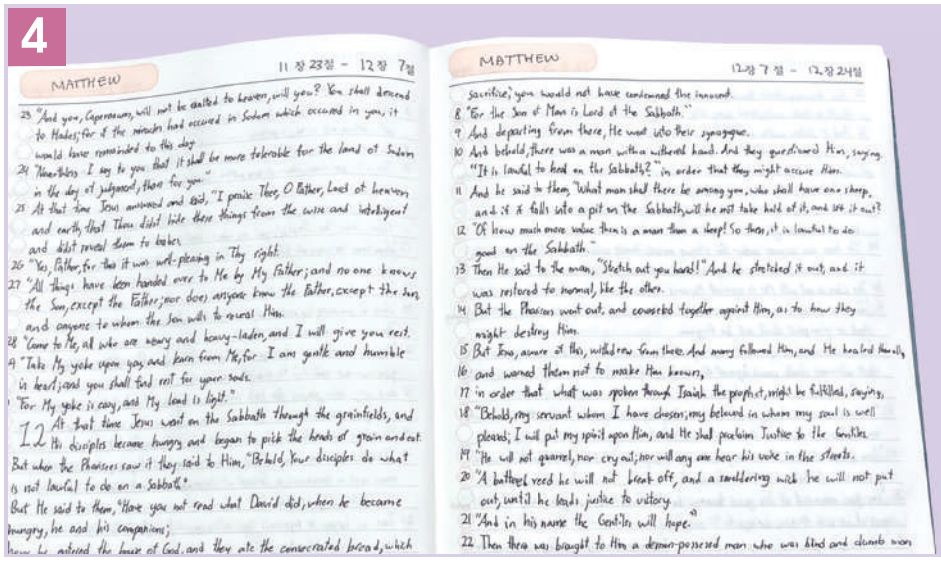
3





Jueon Ryoo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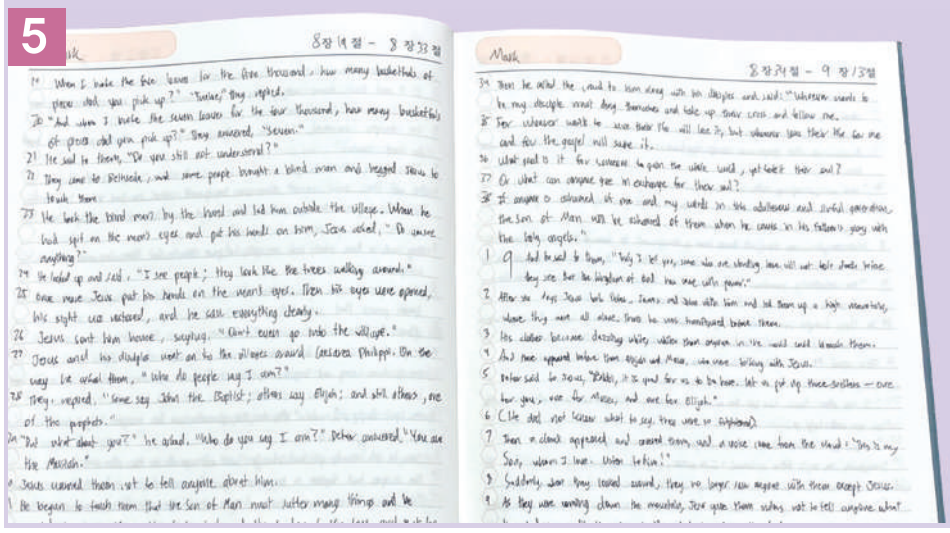
4





서온유
Marshall Highschoo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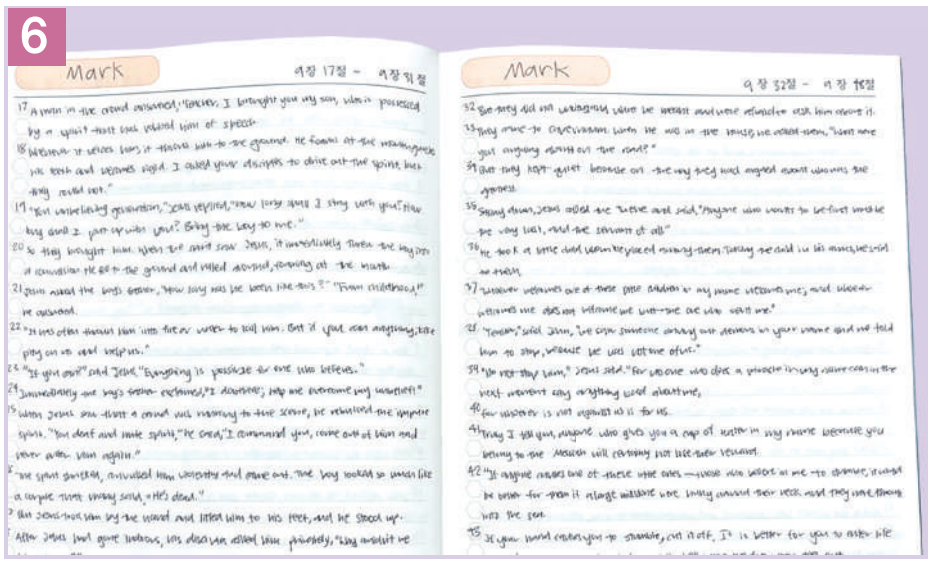
5





youngbin Ryu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6





Hyemi Lee
New Covenant Academy

기독일보 창립 20주년

성경필사 장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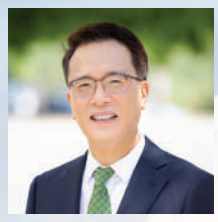
Aimee Oh	Abeka Academy
Caleb Chae	California State University, Northridge
Dael Song	North Hollywood High
Daeun Choi	High school graduation
Daniel Lee	Hebron mission school
Daniel Oh	West High School
Deborah Lin	Cortines School of Visual and Performing Arts
Deokje Wang	California Baptist University
Emily Chung	Oxford Academy High School
Erin kim	CalState Fullerton Sophomore
Faith Choi	Troy High School
Garrett Choi	University California Irvine
Hyemi Lee	New Covenant Academy
Hyunbin Lee	PCC, Freshman
Ivy Lee	Dwight Global High School
Jaemin Lee	Grace Mission University
Jason Lee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Joseph Oh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Joy Hwang	University of Georgia, Junior
Joy Jun	Cal State Fullerton, Junior
Joy Yang	UC Irvine, Senior
Jueon Ryoo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Junior
Juhyuk Joel Cha	UC Riverside, Freshman
Minji Choi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Minrong Sun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UCLA)
Mirah Jang	California Community Colleges
Onyu Seo	Marshall Highschool
Paul Lee	Crescenta Valley High School
Rachel Chung	Cypress College
Reisa K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arah Jang	Olivet University
Silas Jang	Olivet Academy High school
Yewon Kim	Sunny Hills High School, 9th
Youngbin Ryu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Dosun Kim	UC, San Diego
Sungil Bae	San Diego State University

기독일보 창립 20주년

성경필사 후원자

BTS SOLAR 폴 킴 목사
F1 플러밍 박규태 대표
Gem Tech 이홍주 장로
NCA 새언약초중고등학교 제이슨 송 교장
Open Bank 민 킴 행장
TMF선교회 김영길 목사
가나안 교회 김 인철 목사
감사한인교회 구봉주 목사
골드 핑거 김병호 장로
김용식 장로
나눔과 섬김의 교회 엘리야 김 목사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남가주은혜선교교회 조동철 장로
다민족 중보기도 연합기도운동
대양장로교회 류당렬 목사
러빙워십 죠셉 리 목사
미주장신대학교 이상명 총장
민주 평화통일 자문회의 미주 부의장 강일한
버버리팍 브릿지교회 김재호 목사
베이커스필드 ANC교회 박성호 목사
삼성통운 제이콥 박 장로
샘 커뮤니티교회 샘 신 목사
성동진 내과 성동진 원장
성화장로교회 이동진 목사
세리토스선교교회 방상용 목사
시누랑 올케랑 김명덕 장로
아름다운 교회 고승희 목사
영생교회 김재연 목사
월드미션대학교 임성진 총장
월드쉐어 USA 강 태광 목사
웨스트힐 장로교회 오명찬 목사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
이해훈 집사
장경화 집사
주님의 영광 교회 신승훈 목사
주안에 교회 최 혁 목사
주찬양교회 진석호 목사
최인숙 권사
충현선교교회 국윤권 목사
코너스톤교회 이종용 목사
크렌셔장로교회 한현종 목사
토랜스제일장로교회 고창현 목사
토렌스 조은교회 김우준 목사
풍성한 교회 박효우 목사
하마성경통독 김권수 목사
하톤교회 진건호 목사
한국 장로교 총연합회 회장 천 환 목사
한길교회 고광선 목사
한솔보험 황선철 장로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김한요 목사
Rev. Bryan H. Kim, Lead Pastor

교회 예배 및 모임 안내

- 주일 1부 예배: 오전 7시 / 본당
- 주일 2부 예배: 오전 9시 / 본당
- 주일 3부 예배: 오전 11시 / 본당
- 주일 4부 청년 예배: 오후 2시 / 본당
- 주일 영어 예배: 오전 9시(1부), 11시(2부) / BGC 채플
- 주일 日本語 礼拝: 오후 1시 15분 / 임마누엘 채플
- 주중 새벽 기도회: 화-금 오전 5시 30분 / 본당
- 토요 헵시바 새벽 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6시 / 본당
- 수요 예배: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 / 본당



베델교회 BETHEL CHURCH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 Tel (949)854-4010 • Text-only: (949)229-1181
www.bkc.org • email: bethel@bkc.org • 수양관 (949)943-9697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예배시간

주일예배 오후 12:30
어르신예배 오후 3:00
금요기도회 오후 7:00



김 영 일 담임목사

T. (909)975-1260
jacobkim1318@gmail.com
4100 W. Commonwealth Ave. #102
Fullerton, CA 92833

더 섬기는교회
THE SERVING KOREAN COMMUNITY CHURCH



밸리채플

주일1부 오전 8:00
주일2부 오전 11:00
주일3부(영어예배)오후 1:30
금요영성집회 오후 7:45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주안에교회 ICCC
대한예수교장로회미주합동총회
최혁 담임목사 | iccc.office1@gmail.com | (818) 363-5887
www.lcccla.org

OC 채플

오후7:30 수요영성집회

오전5:30(월-금) 새벽예배
오전6:00(토) - Zoom

밸리채플: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 OC채플: 680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종 합

뉴욕교협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열어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16일 오후5시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2024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열었다.

1부 예배는 류승례 목사(신년하례준비위원장)의 사회로 김원기 목사(사회봉사위원장) 대표기도, 조엔리 권사(이사장) 성경봉독, 뉴욕장로성가단 찬양, 손경호 목사(WPC총회장) 설교, 뉴욕권사 선교합창단 헌금송, 황규복 장로(뉴욕장로연합회장) 헌금기도, 송일권 목사(수석협동총무) 광고, 황경일 목사(증경회장단 의장) 축도 등의 순서로 드렸다.

손경호 목사는 '하늘에 비전을 품고사는 인생'(창13:14-18)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변화무쌍한 시대를 잘 대처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강한 믿음을 가지는 것"이라면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팬데믹 시대를 지나며 고초를 겪었는데 앞으로 더 큰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 향후 20년간의 세상은 현재 보다 더욱 암울 할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또 손 목사는 "사도바울은 딤후 3:1을 통해 후배 목사에게 말세의 일을 말했다. 길게 나열한 것 중 주목할 것은 자기 중심적인 세상이 온다는 것이다. 요즘 결혼을 안 하려고 하고 결혼해도 애기를 안 낳으려고 한다. 그리고 물질만능주의가 팽배한 시대가 된다고 했다. 물질이 세계를 지배하는 신이 된다. 마지막으로 쾌락주의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다"면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손 목사는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는 장면이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또한 하늘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 줄 믿는다"면서 "세상은 고단하고 힘들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비전을 보는 눈을 가질 수 있다면 모든 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2부 신년하례식은 1660 K라디오 우진숙 국장의 사회로 이재봉 목사(선교사교류분과위원장) 트럼펫 연주, 미국 국가 및 애국가 제창, 박태규 목사 신년인사, 김영환 전도사 특송, 베델첼버 특주 및 김천일 바리톤 특송, 목회자상, 평신도상, 사회봉사자상 시상, 감사패 전달, 한재홍 목사 폐회 및 만찬기도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정치인들과 기독교 및 사회단체 대표들의 축하 메시지도 이어졌다. 뉴욕한인회 김광석 회장, 김의환 총영사, 존리우 뉴욕주 상원의원, 줄리원 뉴욕주 시원의원, 론김 뉴욕주하원의원, 그레이스맹 뉴욕하원의원, 린다리 뉴욕시의원, 뉴저지교협회장 김동권 목사, 윤세웅 목사(신학윤리위원장), 테렌스박(아시안아메리칸유권자연맹 회장), 김명미 한인봉사센터 회장 등이 덕담을 통해 뉴욕교협이 한인사회를 온전히 선도하는 기관이 되기를 주문했다.

황규복 장로는 헌금기도를 통해 "팬데믹 중에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교계의 불협화음 속에서도 교협이 2024년 새해를 맞아 희년 50주년 사역을 시작하게 하신 은혜에도 감사드린다. 교협이 귀한 사명과 본질에 충실히 감당할 것을 믿는다"면서 "인류 역사상 가장 어두워져 가는 이 땅을 위해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부르셨기에 한국교회들과 연합해서 힘을 모아 뉴욕에 있는 전 세계 다양한 민족들에게 성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가 16일 오후5시 뉴욕한인봉사센터에서 2024년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을 열었다. ⓒBGEA

박태규 회장은 신년인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주신 많은 정치인들과 큰 단체들 비롯해 작은 분야에서도 솔선수범해서 지역사회를 위해 수고하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린다"면서 "많은 분들의 기도와 협력으로 인해 뉴욕교협은 50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달려가면서 부흥과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한다"고 말했다.

이날 목회자상은 이만호 목사와 이풍삼 목사에게 수여됐다. 평신도상은 이광모 장로, 조동현 장로, 오마리아 집사가 시상했다. 뉴욕교협 사업에 협력해 준 송윤섭 장로와 이은숙 권사에게는 감사패를 전달했다.

뉴저지교협 회장 김동권 목사는 축사를 통해 "뉴욕교협이 희년을 맞아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합하고 하나되는 귀한 본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대원 기자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오렌지 카운티 민족학교가 저소득층 가정의 세금보고를 도와드립니다"

민족학교(사무국장 김진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세금보고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1991년부터 매년 저소득층을 위해 무료로 세금보고를 대행해 주었던 민족학교는 올해 오렌지 카운티 지부에서 10년만에 서비스를 재개한다.

대상은 W-2 수입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소유한 주택이 없고 이자 수입이 월 500달러 미만이며, 4인 가족 기준 2023년 총소득이 $96,600 (1인 $46,950, 2인 $63,500, 3인 $80,050) 미만이면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자영업 소득이 있거나 투자,임대, IRA등의 소득이 있거나 총소득이 연방 빈곤선 322% 이상인 사람은 제외된다. 세금보고 장소는 오렌지카운티 민족학교이며 (620 N Harbor Blvd Fullerton, CA 92831) 기간은 2월 1일부터 3월 29일이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해야 한다. 예약문의는 전화 또는 이메일로 할 수 있다.

문의 :714-986-5957, taxreturn@krcla.org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

〈성경, 빅 픽처를 보라!〉 저자 세미나가 2월 26(월)~27(화) 양일간 또감사교회(최경욱 목사)에서 진행된다.

대상은 목회자, 선교사, 사모, 전도사, 신학생이며, 2월 20일까지 선착순 50명을 모집한다. 등록비는 무료이며, 점심과 강의안(PDF), 〈성경, 빅픽처를 보라!〉가 제공된다.

이 행사는 킹덤월드미션(KWM)과 기독여성이스라엘선교회(CWMI)가 주최하며, 미주성시화본부, 미주장신대 박사원, 또감사교회,주님세운교회, 웨스트힐장로교회에서 후원한다.

문의: 김웅자 사모(818-825-1764, 카톡 ID:glovic)

한인 어린이들 마틴 루터 킹 데이 예배에서 공연



나성순복음교회 어린이 성가대가 지난 1월 15일(월) 에벤에셀 침례교회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기념예배에서 공연했다. ⓒ교회 제공

나성순복음교회(진유철 목사) 어린이 성가대가 지난 1월 15일(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위치한 에벤에셀 침례교회(Ebenezer Baptist Church)에서 열린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데이기념예배에서 공연했다. 이 행사는 폭스뉴스가 공중파와 유튜브를 통해 미국 전역에 광고 없이 실황 중계했다.

마틴 루터 킹 데이는 흑인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탄생일인 1929년 1월 15일을 기념하자는 취지로 제정됐다.

나성순복음교회 어린이 성가대는 이 행사에서 축사를 전한 이영훈 목사(한국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에 이어, 한국을 대표해 특별 순서로 공연했다. 20명의 학생으로 구성된 어린이 성가대는 아리랑과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편곡한 곡을 전통부채 춤과 함께 선보인 후, 갓 블레스 아메리카(God Bless America)를 불러 기립박수를 받았다.

1886년에 설립된 에벤에셀 침례교회는 킹 목사가 암살되기 직전까지 8년간 시무했던 교회로, 매년 마틴 루터 킹 데이에 기념식을 열고 있다.

나성순복음교회 제공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축하합니다

설립 20주년
성화장로교회
Sanctification Presbyterian Church

20이 20에 게

창간 20주년
기독일보
Christianity Daily





한 해 두해 걸어온 걸음이 늘 평탄했겠소?
숨이 차기도 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었잖소?
그러나, 우리가 안고 가는 게 진리眞理이기에
견딜 수 있었고,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었소?
진리 안에서 행하는 교회와 미디어로서
더욱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며 함께 걸어갑시다.
성화장로교회 담임 이 동 진 목사

www.sunghwachurch.com
15801 Brighton Ave., Gardena CA 90247
213. 447. 3118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귀생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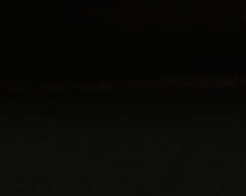
세상을 더 아름답게 볼 수 있게-
당신의 소중한 눈을 건강하게 지켜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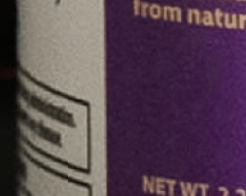
KISEIDO

EYE NOON EY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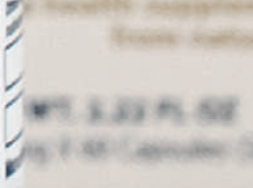
믿음의 이름, 귀생당에서 만든 이시대 최고의 눈 건강 영양제!

좁아진 시야, 흐려진 시야로 고생하는 당신을 위한 최고의 눈 영양제!
[귀생당 아이 눈 아이]는 슈퍼푸드라고 불리우는 청정 열매인 **마퀴베리의 안토시아닌과 델피니딘, 루테인, 지아잔틴** 성분을 함께 구성하여 현대인의 눈 건강의 최적화와 눈 건강에 더욱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롭게 나온 눈 영양제입니다.


망막색소 재활성화


시력기능 향상


야간시력 개선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예방

하루에 2캡슐! 아이 눈 아이로 더 밝은 세상을 만나세요!

아이 눈 아이의 효능 효과

- 눈 기능 활성화, 눈 건강유지 및 보호
- 장시간 컴퓨터, 스마트 폰, TV, 등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눈의 피로 개선
- 백내장, 녹내장, 근시 및 AMD(황반변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
- 활성산소 완화
- 혈류 개선, 미세혈관 순환증가
- 심혈관, 뇌혈관 순환 도움
- 알츠하이머, 치매, 집중력, 인지능력 향상
- 장내 효소 증가
- 소화기능 개선
- 빈혈, 간 기능 개선
- 면역체계 향상

주요성분 안토시아닌, 루테인, 지아잔틴, 아스타잔틴, 델피니딘, 프로안토시아니딘, 피페린, 빌베리

• SINCE 1975 •
귀생당
KISEIDO U.S.A., Inc

1.800.909.0001 www.kiseidousa.com

These statements have not evaluated by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This product is not intended to diagnose, treat, cure or prevent and disease.

마이클 브라운 "복음주의자라는 단어, 존폐 기로에 놓여"

미국의 변증가이자 라디오 프로그램 '라인오브파이어' 진행자인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박사가 '이제 복음주의자라는 용어를 폐기해야 할 때인가?'라는 제목의 칼럼을 크리스천포스트(CP)에 게재했다. 다음은 칼럼의 전문.

오늘날 미국에는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르지 않는 예수의 추종자들이 많이 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을 부끄러워해서가 아니다. 오히려, '기독교인'이라는 말이 너무 희석되어, 어떻게 살고, 무엇을 믿는지에 상관없이 거의 모두가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반드시 특정 신념이나 도덕적 기준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수년 동안 미국에서 여전한 상황이다. 이것의 긍정적인 측면은 예수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누구인지, 무엇을 믿는지 정의할 기회가 있다는 점이다.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만으로도 잠재적인 논의를 촉발한다.

정확히 그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나는 이런저런 교회에 다닌다"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묻는 이들에게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말해보는 것은 어떤가?


마이클 브라운 목사

그게 무슨 뜻일까? 아니면 우리가 감히 그런 주장을 할 수 있을까?

'복음주의자(Evangelical)'라는 용어는 '기독교인'과 같이 잠재적으로 모호한 용어라기보다는, 문화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 영적인 것보다 더 많이 오해되는 용어가 되었다.

토마스 키드(Thomas Kidd)는 1500년대에 처음으로 '가스펠(gospel)'의 동의어로 사용된 '복음주의자'라는 용어를 설명하며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1950년까지 이 용어의 사용은 특히 1942년 전미복음주의협회(NAE)의 설립 때문에 극적으로 변화했다. '복음주의자'는 근본주의자(fundamentalists)가 아닌 개종주의 개신교인(conversionist Protestants)을 가리키게 되었다."

이것의 주요 요인 중 하나는 "1949년에 빌리 그래함(Billy Graham)이 주목받기 시작했고, 1950년에 그가 본격적으로 복음주의 신앙의 대표자로 여겨졌다"는 것이다.

당시 복음주의자들은 빌리 그래함이 믿는 것을 믿었다. 그것은 꽤 간단한 일이었다.

그러나 키드는 "1976년, 그 해에 자칭 복음주의자인 지미 카터(Jimmy Carter)가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뉴스위크는 1976년을 '복음주의자의 해'로 선언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보다 지속적으로 중요한 점은 1976년 갤럽이 처음으로 조사 응답자에게 '복음주의자'인지 '거듭난 사람'인지를 묻고 그 응답을 정치적 행동과 연관시키기 시작한 해였다. 물론 1979년 도덕적 다수파의 등장은 '복음주의자'라는 용어의 정치화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었지만, 여론조사에서 '복음주의자'가 표준 범주로 사용되면서, 그 용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정치적인 이해로 바뀌기 시작했다. 2010년대에는 대부분의 일반적인 미국 관찰자들은 복음주의자가 '백인 종교적 공화당원'을 의미한다고 가정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래서 10년 이상 동안 몇몇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이 용어를 완전히 포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미국인들에게 이 용어는 우리 신앙의 본질보다 신앙의 문화적, 정치적 측면을 더 많이 나타내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들은 많은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특히 트럼프 지지자)이 전통적인 복음주의 신앙을 고수하지 않더라도,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는 경향이 심화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적으로 영적인 의미였던 이 용어가 문화적, 정치적 연관성을 지닌 영적인 용어가 되었고, 이제는 주로 문화적, 정치적 용어가 된 것이다.

루스 그래함(Ruth Graham)과 찰스 호먼스(Charles Homans)가 1월 8일자 뉴욕 타임즈 기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교학자들은 점점 늘어나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또 다른 설명을 제시한다: 복음주의자들은 정확히 예전의 그들의 모습이 아니다."

"복음주의자가 된다는 것은 한때 구원과 회심에 초점을 맞추고,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하며, 낙태와 같은 특정 문제에 대해 강력한 견해를 갖는 것을 의미했다. 오늘날 이것은 문화적, 정치적인 정체성을 묘사하는데 자주 사용된다. 즉, 기독교인들은 박해받는 소수자로, 전통적인 제도는 회의적으로 간주되며, 트럼프가 커 보이게 되었다."

확실히, 인용된 학자들 중 일부는 그들 자신의 편견을 통해 상황을 보는 것일 수 있고, 많은 복음주의 트럼프 지지자들을 백인 우월주의자 또는 반란주의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쪽이든, 복음주의자라는 용어가 특히 일반 대중에게 예전의 의미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밝히는 헌신적인 기독교인들 또는 가톨릭과 복음주의 기독교인을 구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용어는 여전히 (빌리 그래함의 설교와 조화를 이루는) 특정한 신념을 가진 이들을 뜻한다. 그러나 외부 세계에 있어서는, 우리 전통적인 복음주의자가 어떻게 자신을 묘사하는지를 다시 생각해 볼 때이다. 이는 또한 예수님과 성경에 대한 대화를 더욱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가보는 것은 어떨까? 김유진 기자

예배 중에 커피를 마셔도 괜찮을까?

미국의 존 파이퍼(John Piper) 목사가 "교회가 "커피를 마시는' 문화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 5가지 방법을 언급했다.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파이퍼 목사는 최근 '디자이어링 갓' 웹사이트에 게재된 '존 목사에게 물어보세요' 코너에서 "함께 모여 예배할 때 필요한 '경건과 경외'"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 에피소드는 파이퍼 목사가 지난해 9월 "주일예배당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 적절한지 재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트윗을 올리면서 논쟁이 촉발된 후 나왔다. 당시 게시물에는 약 3천개의 '좋아요'와 약 1천5백개의 댓글이 달렸는데, 그 중 상당수는 비판적이었다.

새 에피소드는 '경건한 분위기'로 교회문화를 형성하려는 열망 뒤 맥락을 구축하라는 내용이었다.

파이퍼 목사는 "지난번 공예배의 가장 거룩한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것이 히브리서 12장 28절이 요구하는 '경건함과 두려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라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드리자'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한다"라고 했다.


존 파이퍼 목사.ⓒCross for the Nations 2020

그는 이어 "그러나 나는 커피를 마시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문제의 핵심은 교인들과 지도자들이 제가 의미하는 '경건함과 두려움', 그리고 주일오전 예배의 거룩함과 신성함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라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그들은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알고 있지만 그 단어에는 진지한 기쁨과 함께 사람들을 경건함과 두려움을 갈망하게 하는 설득력 있는 실존적 내용이 없다. 단지 말일 뿐"이라고 했다.

파이퍼 목사는 "일상적이고 커피를 홀짝거리며 오락 지향적인 분위기에서 벗어나 더욱 진지한 기쁨을 누리고 경건하며 깊은 만족을 주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목회자들이 점진적으로 교회를 이끌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제공하려고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목회자들에게 "성경에 관심을 집중시키라"고 촉구하면서 "성경을 다루는 방식과 그 안에서 보는 영광이 이런 종류의 교회로 인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지향 때문에 교회를 떠날 것이다. (그들에게) 이렇게 성경에 복종하는 것은 너무 두렵고 위협적이다. 다른 사람들은 이것에 갈급해 교회를 올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가 말한 두 번째 방법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위하신 그분의 모든 것을 매주 설교로 들으면서 수년에 걸쳐 느끼는 주요 현실로 만들라"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는 "하나님은 중요한 현실이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느끼도록 도우라. 하나님은 삶의 모든 것과 항상 중요한 것으로 관련되어 있다. 그분은 그들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가 말한 세 번째 방법은 "우리와 세상 안에 있는 죄라는 병의 추악함과 그 질병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맹렬함을 여러분의 백성이 느끼게 하는 것"이라고 목회자들에게 말했다.

그는 "만일 그들이 잔을 부어 주시는 것과 죄에 대한 그분의 진노의 합당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들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결코 놀라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네 번째 방법은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의 위엄과 겸손, 고난과 부활, 그리고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의 상상할 수 없는 풍성함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퍼 목사가 나열한 마지막 방법은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회심의 기적을 가르치고 그들이 초자연적인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러분은 기적"이라며 "우리의 생명인 믿음은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했다. 김유진 기자



한국, 유엔서 "탈북민 강제북송 중단" 中에 촉구


유엔 인권이사회 관련 회의 모습. ⓒ유엔TV 캡쳐

한국을 비롯한 3개국은 지난 23일 유엔 인권이사회가 제네바의 유엔 유럽본부에서 개최한 "중국에 대한 4차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에서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가 중국에 대한 UPR에서 북한을 직접 거명하며 탈북자 보호를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의소리(VOA)는 "중국 내 탈북민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기조 변화는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관련 소식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의 윤성덕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포함한 외국 국적의 이탈자들에게 적절한 보호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며 국제 조약 이행을 촉구했다. 윤 대사는 "중국이 강제송환 금지 원칙과 같은 관련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1951년 난민 지위에 관한 협약(유엔 난민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추가적인 난민법 채택을 고려할 것을 권고한다"며 "중국이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비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 당시인 3차 UPR에선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고,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3년에 실시된 2차 UPR 때는 북한을 언급하지 않은 채 강제송환금지 원칙 준수 등을 권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통일부와 외교부 등 관계 부처에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고 탈북민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 공조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중국에 대한 UPR에는 한국과 더불어 체코와 영국이 탈북민 문제를 제기했다. 바츨라프 바렉 제네바 주재 체코 대사는 중국에 "탈북난민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영국의 사이먼 맨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중국을 향해 "시민사회와 독립 언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강제 송환을 끝내며, 인권 옹호자들에 대한 표적 수사를 중단하라"며 탈북민 북송에 문제를 제기했다.

VOA에 따르면, 이날 UPR에서는 중국 내 다양한 인권 침해를 놓고 서방국들과 중국을 옹호하는 제3세계 국가들 사이에 의견이 크게 갈렸다. VOA는 "무려 160개국 대표들이 나서서 45초로 제한된 발언권을 행사했으며, 중국은 첸쉬 제네바 주재 중국 대사를 필두로 20여 개 기관을 대표하는 당국자들이 대거 참석해 자국이 인권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미셸 테일러 제네바 주재 대사는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해 유엔 실무그룹이 지목한 모든 자의적 구금자를 석방하고, 신장, 티베트, 홍콩을 포함한 해외 및 중국 내 개인에 대한 괴롭힘, 감시, 위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테일러 대사는 "개인의 문화, 언어, 종교, 신념에 대한 차별을 중단하고, 티베트와 신장에서 기숙학교를 포함한 강제 동화 정책을 중단할 것"과 "홍콩의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모호한 국가안보, 반간첩, 대테러, 선동법을 폐지할 것"을 권고했다.

캐나다와 일본, 많은 유럽 나라 대표들도 인권운동가들과 소수민족, 파룬궁 등 종교 탄압에 우려를 나타내며, 이런 박해를 즉각 중단하는 한편 홍콩의 보안법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강혜진 기자

中 법원, 저명한 개신교 목사에 징역 14년 선고


ⓒUnsplash/Macau Photo Agency

중국 법원이 저명한 개신교 목사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했다. 목사의 아내와 교인 4명도 3년에서 10년 사이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들은 모두 미신을 사용해 법을 훼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자유아시아방송(RFA)는 최근 다롄시 간징쯔구 인민법원이 60대 칸 시아용(Kan Xiaoyong) 목사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그의 아내 왕 펑잉(Wang Fengying) 사모는 징역 4년형, 교인 4명도 징역형을 받았다.

RFA는 한 소식통을 인용해 "칸의 초기 형량은 20년이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호사들의 강력한 저항으로 인해 당국이 형량을 줄였다. 마찬가지로 왕의 예상 형량은 15~18년이었으나, 최종적으로는 4년으로 확정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중 유죄인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강조했다.

칸과 왕은 2018년 우한에서 다롄으로 이주한 후 온라인 설교 플랫폼 '가정제자네크워크'(Home Discipleship Network)를 설립했다. 2021년 10월 두 사람은 다른 교회 성도 4명과 함께 다롄 경찰에 체포됐다. 소식통은 중국 공산당이 칸 목사의 온라인 팔로워와 그의 교회의 비공식적 지위를 위협으로 여겨 이들을 탄압했다고 전했다.

칸과 왕은 모두 심문 중에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법정에도 제출됐으나, 당국은 이를 반박하지 않았다.

중국의 종교 자유와 인권을 다루는 잡지인 비터윈터는 "이러한 중형은 시진핑 정부가 모든 개신교회를 국영 삼자교회에 강제로 가입시키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도했다.

비터윈터에 따르면, 칸과 공동 피고인에 대한 혐의에는 '불법 사업 관행'과 법 집행을 훼손하기 위한 '이교'(異教)의 사용이 포함됐다. '이단 가르침'으로 번역되는 '이교'는 중국 당국이 '컬트'로 간주하는 집단을 지칭하기 위해 자주 사용하는 단어다. 그러나 전형적인 개신교 가정교회인 칸의 조직은 이에 맞지 않다. 전 세계 기독교 박해를 추적하는 단체인 오픈도어(Open Doors)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교회를 자신들의 이념에 맞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종종 등록되지 않은 '가정교회'를 표적으로 삼는다. 새로운 규정과 디지털 감시로 인해 기독교 활동에 대한 단속이 강화됐다.

강혜진 기자

필리핀 남부 산사태… 모임 중이던 기독교인 10여 명 사망



필리핀. ⓒ나무위키

필리핀 남부에서 발생한 산사태로 근처의 집에서 기도하기 위해 모였던 기독교인 10명이 사망했다. 그 가운데 5명은 어린이로 알려졌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지난 18일 필리핀 남부 다바오데오로주 몬카요 지역에서 며칠간 내린 폭우로 토사가 흘러내리며 인근 건물을 덮쳤다.

민방위국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시신 7구를 찾아낸 데 이어 3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다. 또 며칠간의 폭우로 저지대 마을인 다바오데오로와 다른 3개 지역에서 36,0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했다.

간헐적인 폭우로 인해 추가 산사태가 우려돼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다. 정부 민방위 지역 책임자인 에드나 다양히랑(Ednar Dayanghirang)은 "그들은 산사태가 일어났을 때 집에서 기도하고 있었다. 시신을 수습했을 때 손에 기도지가 들려 있었다"며 슬프지만 이것이 현장의 현실"이라고 했다.

필리핀 군도에서는 매년 약 20번의 폭풍과 태풍이 발생하며, 특히 6월부터 시작되는 우기에는 더욱 자주 발생한다.

2013년 기록상 가장 강력한 태풍 중 하나는 하이옌으로, 당시 7,300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으며 필리핀 중부에서 500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바 있다.

김민선 기자



박욱주 박사의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 영화 〈서울의 봄〉 (3)

〈서울의 봄〉, 〈노량〉, 〈고려 거란 전쟁〉의 공통점

전근대적 역사관 일방성과 편협함
진보좌파 세력 절대선 내세우려고
사건 당일 상황에만 주목하는 잘못
10·26 유신체제 갑작스러운 붕괴,
당시 사람들에게 커다란 불안 요소
북한 도발 및 침략 위협 상존 위기

박욱주 박사님의 이번 '브리콜라주 인 더 무비'에서는 최근 천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서울의 봄〉에 대해 분석합니다. 〈아수라〉의 김성수 감독이 제작한 이 영화는 황정민(전두광), 정우성(이태신), 이성민(정상호), 박해준(노태건), 김성균(김준엽), 김의성(국방장관), 정동환(최한규), 안내상(한영구), 정해인(오진호) 등의 배우들이 대거 출연해 12.12 군사 반란을 극화했습니다.

-편집자 주

◈전근대적 역사관: 자국민의 처지와 이익에만 매몰된 역사인식

최근 한국 역사를 배경으로 삼는 영화들이 개봉되면서, 올해 한국 영화계가 겪었던 극심한 흥행부진이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서울의 봄〉이 1천만 관객을 돌파했고, 바로 뒤이어 개봉된 영화 〈노량: 죽음의 바다〉가 쾌조의 흥행세를 보이면서 누적관객 3백만 명을 돌파했다. 이런 동향은 TV 드라마 쪽에서도 두드러진다. 현재 드라마 〈고려 거란 전쟁〉이 분당 시청률 10%를 기록하며 상당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서울의 봄〉이나 〈노량: 죽음의 바다〉, 〈고려 거란 전쟁〉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우리 한민족의 정치의식이나 민족적 정체성에 대단한 자부심을 드러내는 민족주의적 태도가 목격된다. 〈서울의 봄〉은 비록 군부독재 종식에는 실패했지만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질 만큼 충의로운 군인들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부각시킨다. 〈노량: 죽음의 바다〉는 온갖 정치적 난맥상에도 불구하고 한민족의 투혼을 보여주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위대한 장군과 수하들의 분전을 보여준다. 〈고려 거란 전쟁〉 또한 국력의 절대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민족의 생존과 정체성을 지켜내기 위해 전력을 다한 영웅들의 모습을 집중 조명한다.



12 · 12 당시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했던 것은 준비되지 않은 허술한 민주화가 아니라 국제 자유민주진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정부의 수립과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었다.

어느 나라에서 제작되었든, 해당 국가의 실제 역사적 사건을 다루는 소설, 영화, 드라마 모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나라의 군사적·문화적·정신적 우월감을 표명하는 내용을 담아내기 마련이다. 이는 사실 전근대적 역사관을 반영한 결과물이다.

19세기 이전까지 인류 문화사에서 역사란 기본적으로 승자들의 업적을 기리는 기록이었으며,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역사 기록은 특정한 정치적, 종교적 관점에 따라 일방적이고 편향적으로 기록되었다.

전 세계의 전근대 역사기록 가운데 최고 수준의 정확도를 자랑하는 〈조선왕조실록〉만 하더라도, 통치이념인 유교에 대한 절대적 우월감과 자부심을 바탕으로 조선의 군왕들과 그 신하들의 공과(功過)를 평가하고 있다. 전근대적 역사관은 선과 악, 정(正)과 사(邪)를 비교적 단순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과거의 사실과 인물들에 대한 평가 역시 일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자국의 민족적 이념과 이익에 도움이 되면 절대선이고, 그에 반하면 절대악 취급을 받는 것이다.

현재 한국 대중문화계가 그려내는 역사관 역시 이런 전근대적 성향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아니, 한국 대중문화계만 아니라 학문적 신중함을 갖춰야 할 역사학계마저도 전근대적 자국민중심주의를 표방한다.

이는 대부분의 인문학 후진국에서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자국의 역사를 지극히 국수적이고 편협한 시각 안에서 바라보게 하는 역사관은 세계사 전체의 맥락 안에서 자민족의 위치를 가늠할 수 없게 만드는 부작용을 낳는다.

◈근대 이후의 역사관: 전 세계 인류의 투쟁과 진보의 정황을 유념한 역사인식

서구 인문학 선진국들은 19세기를 기점으로 유럽의 저명한 사상가들을 통해 새롭게 정립된 역사 개념을 가지고, 국수주의적 역사관의 전근대성을 벗어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19세기 독일 관념론은 기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던 '역사' 개념을 혁신적으로 갱신하였고, 이때 갱신된 서구 역사관은 20세기 실존철학 및 포스트모더니즘의 발흥과 함께 한 차례 더 심층적인 혁신 과정을 거친다.

독일 관념론의 대표자 헤겔은 역사에 대한 사고의 혁신을 주도한 인물이다. 그는 역사가 단순히 승자의 '기록'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정신적 진보가 이루어지는 역동적 투쟁의 공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역사의 개념을 재정의했다. 역사란 인류를 포함한 이 세계 전체에 진보의 힘을 불어넣는 신적 정신의 내적 통합의 과정으로서, 필연적으로 다양한 힘들이 부딪치며 갈등, 투쟁, 전복, 그리고 융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지극히 복잡한 역동성을 지닌다는 점을 강조했다.



12 · 12 군사반란 당일의 사건들을 중심 서사로 삼는 영화 〈서울의 봄〉.

헤겔의 변증법적 역사관은 자주 기독교적 역사관의 철학적 변용으로 평가된다.

헤겔은 자신의 역사관 속에 성경이 가르치는 선과 악의 투쟁, 종말을 향해 진행되는 섭리의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세워질 최고로 온전한 지식과 질서에 대한 소망이라는 신앙의 요소들을 받아들여 철학적으로 체계화하였다. 헤겔이 정립한 역사관은 당시 서유럽에서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전근대적 역사인식의 근거를 뒤흔드는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무엇보다 이전까지 각 국가나 지역의 영역에 국한되어 있던 역사의 개념을 전 세계로 확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 오늘날 '세계사'라는 개념이 일반화되는 데에는 헤겔을 비롯한 19세기 서구 역사학자들의 공로가 절대적이었다.

영화 〈서울의 봄〉의 서사와 장면들은 지엽적으로 볼 때 분명 12·12 군사반란 당시 역사적 실상에 부합하는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 사건의 장기적 배경과 세계사적 정황을 완벽하게 무시하는 지극히 협소한 역사관을 보여준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의 군사독재에 반대해 투쟁한 진보좌파 민주화 세력을 절대선으로 내세우기 위해, 역사적 정황의 앞뒤는 생략한 채 사건발생 당일 상황에만 주목하는 우를 범하는 것이다.

10·26 사태를 통한 유신체제의 갑작스러운 붕괴와 그에 뒤따른 국가의 통제력 붕괴는 당시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불안 요소였다. 특히 북한의 도발 및 침략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정부와 군 지휘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은 다수의 정부 요인과 군 수뇌부에게 대단한 위기로 여겨졌다. 미국과 일본 역시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당시의 동북아 정세에서 대한민국에 필요했던 것은 준비되지 않은 허술한 민주화가 아니라, 국제 자유민주 진영에 힘을 보탤 수 있는 정부의 수립과 군 지휘체계의 확립이었다. 김재규-정승화-장태완 세력이 당시 정국의 주도권을 잡지 못한 것은 전두환 세력이 독랄(毒辣)하고 간교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가던 이들과 국제 열강의 중론이 한국 사회를 안정시킬 수 있는 인물의 등장을 원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이 하극상을 통해 절대권력을 획득하게 된 것은 개인의 차원에서는 야심과 권력욕의 발로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당시 대한민국을 둘러싼 역사적 힘의 충돌과 분쟁이라는 거시적 정황을 고려한다면, 12·12 군사반란은 그 시기 대한민국 국민들과 동아시아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채택된 고육책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다.

당시 심각한 위협에 처한 한국의 산업화와 국제 자유민주 진영에서의 입지를 지켜내기 위한 대한민국 지도층의 불가피한 선택의 결과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국정 장악이었던 것이다. 미국과 일본 역시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소련, 중공, 북한 공산주의 세력의 막강한 위협이 상존하던 시기, 한반도의 정치적 안정과 군사력 보전은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전략과 일본 열도의 안보를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건이었던 것이다.

영화 〈서울의 봄〉은 이 모든 외부 정세를 도외시한 채 전두환 보안사령관과 마찬가지로 박정희 정권의 정치군인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과 장태완 수도경비사령관의 표면적 행적만을 부각시키며 전근대적이고 일방적인 역사관에 따른 왜곡된 인물 평가를 감행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역사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이 결여된, 당시를 살아가던 이들의 복잡하고 세부적인 입장과 처지를 임의적으로 배제해 버리는 부적절한 역사적 시각을 견지한 데 따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계속〉

박욱주 박사(연세대연합신학대학원겸임교수)





기독일보 창간 20주년 | 성경필사 장학금

감사예배 | 수여식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독자 여러분

기독일보 창간 20주년을 맞아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기독일보가 지난 20년 동안 문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고 인도하심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기독 언론 정론지로 바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편집 고문들과 독자 여러분들의 사랑이 있어 가능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여러분들을 모시고 창간 20주년 감사예배를 드리려 합니다.

또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로마서까지 성경 필사를 무사히 마친 36명의 학생들에게 장학금 수여식도 함께 하려합니다. 바쁘시겠지만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차세대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 2024년 1월 27일(토) 오전 10시

장소 나성영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화해의 신문

기독일보